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최은영 · 구동희 · 조순기 · 박영실

2008. 10.

이 보고서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위탁 수행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현안연구보고서입니다.

제 출 문

부산발전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현안연구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책임연구	최은영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사무관
공동연구	구동회	부산대학교	교수	
	조순기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주무관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주무관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6
3. 자료 및 연구 방법	8
II. 인구 구조의 변화	11
1. 인구 증감	13
2. 연령 구조	16
3. 가구수와 가구원수	24
III. 부산 대도시권의 내부 인구이동	27
1. 인구이동의 시계열 변화	29
2.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	31
1)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	31
2) 부산 대도시권의 시군구간 인구이동	37
IV. 부산 대도시권과 수도권간 인구이동	43
1. 시도 및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	45
2. 부산-전국 시군구간 인구이동	54
V.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원인	63
1. 연령별 특성	65
2. 학령인구의 이동 특성	71
1)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와 중학생 연령 인구	71
2) 대학진학 인구	76

3. 가임여성의 이동 특성	78
VI. 이동 가구의 특성과 원인	87
1. 이동 가구의 특성	89
1) 이동자 특성	90
2) 이동 가구의 특성	95
2. 인구이동 원인 분석	102
1) 전국 시군구	102
2) 부산 대도시권의 시군구	114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7
1. 요약 및 결론	119
2. 정책적 시사점	122
참고문헌	124
부록 1	129
부록 2	133

표 목 차

<표 1> 전국 인구 대비 부산·서울 대도시권의 인구 변화(1985~2005년)	14
<표 2> 권역별 대비 시도 인구의 변화(1985~2005년)	14
<표 3>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감소 및 증가 시군구(1995~2005년)	15
<표 4>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1995~2005년)	18
<표 5> 부산 대도시권의 가구수 변화(1985~2005년)	24
<표 6> 부산 대도시권 가구의 가구원수 변화(1995~2005년)	25
<표 7> 부산 대도시권의 연도별 인구이동(1996~2005년)	30
<표 8>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1996년)	32
<표 9>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2006년)	33
<표 10> 부산↔울산의 구·군별 이동(2001·2006년)	35
<표 11> 부산↔경남의 구·군별 이동(1996·2006년)	36
<표 12> 경남·울산→부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 (1996·2006년)	39
<표 13> 부산→경남·울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 (1996·2006년)	41
<표 14> 시도별 순이동의 변화(1996~2007년)	46
<표 15> 서울·부산 순이동의 변화(1985~2007년)	48
<표 16> 부산↔시도간·서울↔시도간 순이동 및 전국 순이동 대비 비율 (1996·2001·2006년)	49
<표 17> 시도별 수도권과의 순이동(1996·2000·2005·2006년)	50
<표 18> 부산의 구·군별 수도권으로의 이동(1996·2001·2006년)	51
<표 19> 부산에서 서울로의 구·군별 이동(1996·2001·2006년)	53
<표 20> 부산의 전입·전출 초과 30개 시군구(1996년)	56
<표 21> 부산의 전입·전출 초과 30개 시군구(2001년)	57
<표 22> 부산의 전입·전출 초과 30개 시군구(2006년)	58
<표 23> 10~12세 인구의 순이동 상·하위 10개 시군구(2003·2005·2007년)	73
<표 24> 부산 4개 사례 고등학교의 지역별 진학 현황(2008년)	76

<표 25> 부산 A 사례 고등학교의 성적-지역별 대학 진학 현황(2008년)	77
<표 26> 부산의 구·군별 가임여성의 순이동(1996·2006년)	78
<표 27> 부산에서 전출한 인구의 시도별 분포(1996·2006년)	79
<표 28> 부산에서 전출한 가임여성의 시도별 분포(2006년)	81
<표 29> 부산 대도시권 이동 가구의 구분	89
<표 30> 부산 대도시권 이동자의 연령별 분포(2005년)	91
<표 31> 부산 대도시권 이동자의 학력별 분포(2005년)	93
<표 32> 부산 대도시권 이동자의 직업별 분포(2005년)	94
<표 33> 부산 대도시권 이동 가구주의 연령 분포(2000·2005년)	96
<표 34> 부산 대도시권 이동 가구주의 학력 분포(2000·2005년)	97
<표 35> 부산 대도시권 이동 가구주의 직업 분포(2000·2005년)	98
<표 36> 이동 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2000·2005년)	100
<표 37> 이동 가구의 세대구성별 분포(2000·2005년)	101
<표 38> 이동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별 분포(2000·2005년)	103
<표 39> 일자리수 및 주택수와 순이동의 상관관계(1995~2000년)	104
<표 40> 일자리수 및 주택수와 순이동의 상관관계(2000~2005년)	105
<표 41>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05
<표 42> 부산 대도시권의 일자리수 및 주택수와 순이동의 상관관계 (1995~2000년)	114
<표 43> 부산 대도시권의 일자리수 및 주택수와 순이동의 상관관계 (2000~2005년)	115
<표 44> 부산 대도시권의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15

그림목차

<그림 1> 인구이동의 구성 요소	9
<그림 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증감 비율(1995~2000년)	15
<그림 3>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증감 비율(2000~2005년)	15
<그림 4> 부산의 인구 증감 비율(1995~2000년)	16
<그림 5> 부산의 인구 증감 비율(2000~2005년)	16
<그림 6>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변화(1995~2005년)	19
<그림 7> 부산 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변화(1995~2005년)	19
<그림 8> 울산 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변화(2000~2005년)	20
<그림 9> 경남 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변화(1995~2005년)	20
<그림 10>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1985년)	21
<그림 11>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2005년)	21
<그림 12>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1985년)	22
<그림 13>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2005년)	22
<그림 14> 부산의 인구 피라미드(1985년)	23
<그림 15> 부산의 인구 피라미드(2005년)	23
<그림 16> 부산 대도시권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율 변화(1995~2005년)	26
<그림 17> 부산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율 변화(1995~2005년)	26
<그림 18> 부산 대도시권의 연도별 인구이동 현황(1996~2006년)	30
<그림 19> 부산의 구·군별 순이동(1996년)	34
<그림 20> 부산의 구·군별 순이동(2006년)	34
<그림 21> 부산↔울산·경남의 구·군별 순이동(1996·2006년)	37
<그림 22> 경남·울산→부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1996년) ...	40
<그림 23> 경남·울산→부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2006년) ...	40
<그림 24> 부산→경남·울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1996년) ...	42
<그림 25> 부산→경남·울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2006년) ...	42

<그림 26> 시도별 순이동(1996~2006년)	47
<그림 27> 수도권으로의 구·군별 순이동(1996·2006년)	52
<그림 28> 서울로의 구·군별 순이동(1996·2006년)	54
<그림 29> 부산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1996년)	59
<그림 30> 부산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2006년)	60
<그림 31> 부산의 전입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1996년)	61
<그림 32> 부산의 전입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2006년)	62
<그림 33> 비수도권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66
<그림 34> 비수도권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66
<그림 35> 서울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67
<그림 36> 서울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67
<그림 37> 부산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68
<그림 38> 부산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68
<그림 39> 울산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69
<그림 40> 울산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69
<그림 41> 경남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70
<그림 42> 경남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70
<그림 43> 10~12세·13~15세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5년)	72
<그림 44> 10~12세·13~15세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7년)	72
<그림 45> 부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5년)	74
<그림 46> 부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7년)	74
<그림 47> 부산 중학생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5년)	75
<그림 48> 부산 중학생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7년)	75
<그림 49> 부산 가임여성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1996년)	82
<그림 50> 부산 가임여성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2006년)	83
<그림 51> 부산 가임여성의 전입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1996년)	84
<그림 52> 부산 가임여성의 전입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2006년)	85
<그림 53> 시군구별 순이동(1996~2000년)	106
<그림 54> 시군구별 순이동(2001~2005년)	107

<그림 55> 시군구별 일자리 증감(1995~2000년)	108
<그림 56> 시군구별 일자리 증감(2000~2005년)	109
<그림 57> 시군구별 주택 증감(1995~2000년)	110
<그림 58> 시군구별 주택 증감(2000~2005년)	111
<그림 59> 시군구별 아파트 증감(1995~2000년)	112
<그림 60> 시군구별 아파트 증감(2000~2005년)	113
<그림 61> 울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 순이동(2005년)	129
<그림 62> 울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 순이동(2007년)	129
<그림 63> 울산 중학생 순이동(2005년)	130
<그림 64> 울산 중학생 순이동(2007년)	130
<그림 65> 경남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5년)	131
<그림 66> 경남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7년)	131
<그림 67> 경남 중학생 순이동(2005년)	132
<그림 68> 경남 중학생 순이동(2007년)	132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자료 및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도시 인구의 절대 감소·대도시 주변 지역의 증가와 함께 생활권이 통합되어 있는 거대 대도시권의 형성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구 현상 변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구 현상은 서울과 부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지역 모두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인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의 절대 인구 감소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과잉도시화론과 도시쇠퇴론으로 나뉘어진다. 과잉도시화론에서는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택·환경·교통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시의 적정 인구규모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도시쇠퇴론에서는 인구 감소를 경제적 쇠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본다. 현재 부산의 인구 감소 현상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경합중인데, 부산 인구 현상에 대한 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이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해주는지에 대한 논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산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도시(whirlpool city)로 빨려 들어가는 측면과 부산권 자체가 성장해가는 도시의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산의 교외화라는 측면(구동화, 2007)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보아야 하는 지와도 관련된다.

그동안 논증되기 보다는 가정되어 왔던 이러한 질문에 부분적으로라도 답을 얻기 위해서는 부산의 인구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부산의 인구 현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부산과 서울의 절대 인구 감소가 대도시권에 미치는 원인·과정·결과는 같은가?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인구 현상의 과정인 동시에 원인이면서 미래의 인구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인구이동은 다른 동력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 바 있다(Schnell and

4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Monmonier, 1983; Findley et al. 2001; Stockdale, 2006). 특히 국가 수준의 인구 증감이 출생과 사망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데 비해 지역 수준에서의 인구 증감은 주로 인구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hampion, 1992).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 증감은 목적지(area of destination)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기원지(area of origin)의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두 지역의 인구에 동시에 변화를 일으켜 인구 분포의 지역간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이희연, 2003). 따라서, 지역 인구 정책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부산의 인구 감소 역시 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한데, 장기간의 시계열 분석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는 부산 대도시권은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에 있어서 수도권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인구 현상 변화와 관련해서 서울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양재섭·김상일(2007)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부산 대도시권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 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어떠한 규모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적 측면과 함께 어떤 특성을 가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어떤 특성을 가진 인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떠한 규모로 이동하는가?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양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인구 감소와 거의 등치되어 왔으나, 이 못지않게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는 인구이동이 성·연령·교육정도 등에 따라서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쉽게 이동하는 선별적인 과정(selective process)을 보이기 때문이다(Peters and Larkin, 2002; 이희연, 2003). 특히 최근 지역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두뇌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유입유출 인구의 속성을 비교한 권상철(2003)에 의하면 수도권으로의 정치·경제

기능의 집중과 이에 따른 취업·교육기회로 인해 젊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개인들의 이주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적 자원이 풍족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하기보다는 그 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이동 인구의 질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분석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을 빠져나가는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부산의 인구이동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및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옥양련·류영달, 1994).

흔히 ‘발로하는 지역에 대한 투표’라 일컬어지는 인구이동은 개인의 선택의 결과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인구이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설문지나 면담조사를 통해서 이동 원인을 직접 묻거나 이동 의향을 물어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를 얻는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동은 어느 한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며, 응답자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지 못할 수 있을 뿐더러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구이동의 패턴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관된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데(최은영·조대현, 2005), 이는 인구이동이 개인과 가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사회와 지역이 개인의 인구이동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인구이동 특성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와 부산에서 김해나 양산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원인은 다를 수 있으며, 20대 인구와 30대 인구의 이동 원인은 다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구이동의 원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Sjaastad(1962)에 의하면 인구이동 분석에 있어 연령과 성별 구분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의 분석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을 통해 특정 지역, 특정 인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동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컨대, 특정 연령 인구의 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 한 지역으로 학령 인구의 흐름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양호한 교육환경이 주된 이동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일한 회귀식이나 모형을 통해 인구이동 원인을 분석

한 기존 연구와도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질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분석을 통해서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특성을 살피고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적으로 부산의 인구 현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둘째, 부산 대도시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이동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공간적 패턴은 어떠한가? 셋째, 부산과 수도권 사이의 인구이동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넷째, 특정 연령 인구·학령 인구·가임 여성 등은 선택적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이동 가구의 특성은 어떠한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검토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부산의 인구 현상에 대한 연구의 상당수는 부산 내부의 인구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일관되게 부산의 도심 인구가 줄어들고 점차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서의택·김성일, 1998; 남광우 외, 2001; 윤현철·박봉진, 2003; 김홍관, 2006 등). 서의택·김성일(1998)은 1975년부터 부산 도심의 인구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교외화 현상이 나타났고, 1985년부터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부산의 인구가 점점 외곽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남광우 외(2001) 또한 이와 유사한 시기의 인구자료를 분석하여 1980년에 교외화단계의 전기에, 1990년에는 교외화단계의 후기에 접어들었음을 지적하였다. 윤현철·박봉진(2003)은 부산의 인구분포 패턴이 중심지시가지에서 외곽지역으로 그리고 외곽에서 주변지역으로 단계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재편성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곧이어 주변지역의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의 공간구조 변천에 대한 김홍관(200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지지되었다.

부산 주변 지역의 성장을 경제적인 요인과 연관시킨 분석이 몇 편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권기철(2006)과 김경희(2007)는 부산 인구 감소의 주요한 원인을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부산의 경제활동인구가 경남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

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김성주·이선영(2006)은 김해와 양산이 부산지역과 밀접한 연계가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경제활동 뿐 아니라 통근·통학인구의 이동, 교통량, 도시간 분업체계 등을 함께 분석해야하며, 향후 이 지역들과 연계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의 인구이동 연구는 부산 대도시권 인구 현상에 대한 수도권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구동회(2007)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구동회는 부산의 인구 감소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산의 교외화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의한 결과임을 밝혔다.

부산 내부의 인구변화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이에 대한 원인과 정책적인 대안 연구는 미흡하다. 인구이동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로는 옥양련·류영달(1994)이 있다.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는 이 연구에 따르면 쾌적한 환경과 더 나은 교육여건이 중요한 이동의 요인이었다. 이동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경수(2000a)와 임호 외(2006)가 있다. 김경수(2000a)는 부산시의 총인구규모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핵가족화의 진전과 노후주택의 증가,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소비행태의 변화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택공급물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외화의 진전으로 인해 광역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임호 외(2006)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부산시의 인구정책은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께 역외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 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의 인구이동에 대한 문헌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대도시권 차원의 공간적으로 확장된 인구 현상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연구가 부산 내부의 인구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둘째, 분석 대상이 되는 시기 또한 196,7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의 현상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셋째, 어떠한 특성을 가진 인구가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적인 특성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자료 및 연구 방법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1996~2007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 및 표본자료(1995~2005년) 등이다. 한편 인구이동의 선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산 4개 사례 고등학교의 진학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이동 현상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이동에 대한 자료의 획득과 관계되는데(Knox, 1994; 이희연, 2003), 기존 연구의 한계는 우선 과거에 적절한 공간 단위로 제공되는 인구이동 자료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1995년 이전에는 광역시도라는 큰 공간 단위로 자료가 발표되었으나, 최근 시군구 혹은 읍면동과 같은 소지역 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에 발맞추어 통계청에서는 지속적인 통계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1995년부터 통계청에서는 원자료(raw data)의 형태로 시·구·군별 인구이동 자료를 이동 인구의 연령 특성과 함께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읍·면·동별 인구이동 자료를 합역되지(aggregated) 않은 개별 가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공간 단위가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유연하게 데이터를 가공·처리하여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구이동통계와 같이 지역을 그 기본 단위로 하는 대용량의 복잡한 자료에 기반해서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이동의 흐름(flow)은 기원지, 목적지, 방향(화살표의 방향), 인구이동량(화살표의 굵기)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현상이므로 인구이동의

1) 인구이동통계와 같은 O-D자료는 소지역 단위로 자료가 구축됨에 따라 레코드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최근의 인구이동통계는 연간 레코드 수가 500만 건 이상인 대용량 자료이다. 이 자료는 기원지, 목적지, 연령, 이동월, 성별, 세대수, 단독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에 의한 인구이동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동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소추정,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았으나 주민등록상 이동 신고만 한 과대추정, 이동시기와 신고시기의 불일치 등의 한계를 가진다.



<그림 1> 인구이동의 구성 요소

원인·현상·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그림1).

20세기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는 인구이동 분석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GIS에 기반한 공간 분석을 통하여 작은 스케일의 공간 단위로 구축된 대용량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도와 그래프 등을 통한 시각화(visualization) 기법을 통해 가시화된 공간은 인과관계에 대해 더 많은 설명력과 확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nell and Monmonier, 1983).

여기에서는 주로 1년 단위의 인구이동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단기간의 유동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간의 평균이 사용될 경우 이로 인해 상세함이 제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GIS 분석에는 ArcGIS 9.2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에는 Microsoft Access를, 통계 분석에는 SPSS 14.0을 사용하였다.

Ⅱ. 인구 구조의 변화

1. 인구 증감
2. 연령 구조
3. 가구수와 가구원수

Ⅱ. 인구 구조의 변화

1. 인구 증감

1985~2005년 동안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는 1985년 703만 명에서 2005년 763만 명으로 16.1%가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의 인구 증가율 16.9%보다 낮으며, 48.2%의 증가율을 보인 서울 대도시권과 대비된다(표 1). 이에 따라 전국 대비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 비율이 1985년 39.1%에서 1995년 45.3%, 2005년 4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전국 대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비율은 1985년 17.4%, 1995년 17.2%, 2005년 16.1%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은 1995년 381만 명을 정점으로, 서울은 1990년 1,061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1985~2005년 20년 간 부산의 인구는 0.2% 증가하였으며, 서울의 인구는 1.9% 증가하였다(표 2). 부산 대도시권에서 부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50.0%에서 2005년 46.2%로 다소 감소한 반면 서울 대도시권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60.9%, 2005년 43.1%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5~2005년 사이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감소 및 증가 지역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그림 2~그림 5). 부산 동구·강서구·서구·영도구는 인구가 큰 규모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 북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의령군·산청군·합천군·남해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며 김해시·양산시·거제시는 인구 증가 지역이다.

14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 특성 및 원인 분석

<표 1> 전국 인구 대비 부산·서울 대도시권의 인구 변화(1985~2005년)

(단위: 명, %)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수	비율								
전국	40,448,486	100.0	43,410,899	100.0	44,608,726	100.0	46,136,101	100.0	47,278,951	100.0
부산 대도시권	7,031,458	17.4	7,470,509	17.2	7,659,947	17.2	7,655,814	16.6	7,629,115	16.1
서울 대도시권	15,820,156	39.1	18,586,128	42.8	20,189,146	45.3	21,354,490	46.3	22,766,850	48.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표 2> 권역별 대비 시도 인구의 변화(1985~2005년)

(단위: 명, %)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수	비율								
부산	3,514,798	50.0	3,798,113	50.8	3,814,325	49.8	3,662,884	47.8	3,523,582	46.2
울산	-	-	-	-	-	-	1,014,428	13.3	1,049,177	13.8
경남	3,516,660	50.0	3,672,396	49.2	3,845,622	50.2	2,978,502	38.9	3,056,356	40.1
부산 대도시권	7,031,458	100.0	7,470,509	100.0	7,659,947	100.0	7,655,814	100.0	7,629,115	100.0
서울	9,639,110	60.9	10,612,577	57.1	10,231,217	50.7	9,895,217	46.3	9,820,171	43.1
인천	1,386,911	8.8	1,817,919	9.8	2,308,188	11.4	2,475,139	11.6	2,531,280	11.1
경기도	4,794,135	30.3	6,155,632	33.1	7,649,741	37.9	8,984,134	42.1	10,415,399	45.7
서울 대도시권	15,820,156	100.0	18,586,128	100.0	20,189,146	100.0	21,354,490	100.0	22,766,8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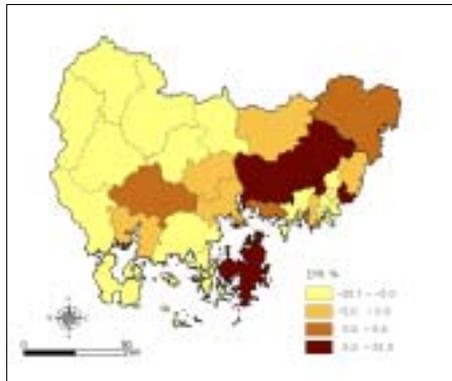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표 3>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감소 및 증가 시군구(199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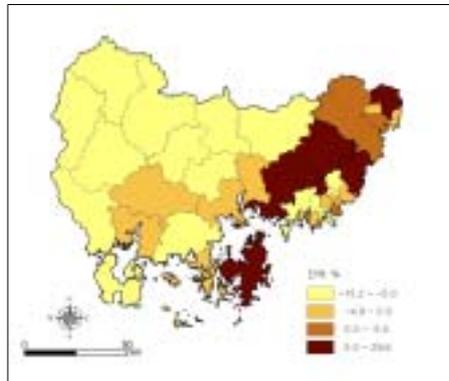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감소 지역				증가 지역			
	1995~2000년		2000~2005년		1995~2000년		2000~2005년	
부산광역시	동구	-20.1	동구	-15.0	해운대구	31.3	북구	10.2
	강서구	-19.5	강서구	-14.7	북구	7.3	기장군	7.0
	서구	-15.4	영도구	-11.3	-	-	남구	1.3
	영도구	-13.8	서구	-10.1	-	-	-	-
	연제구	-12.3	동래구	-9.5	-	-	-	-
울산광역시	-	-	울산 동구	-3.1	울산시	4.1	울산 북구	19.2
경상남도	의령군	-17.0	산청군	-15.2	김해시	29.4	김해시	29.6
	산청군	-12.2	하동군	-12.2	양산시	17.2	진해시	17.3
	합천군	-12.0	합천군	-12.2	거제시	13.4	거제시	15.6
	남해군	-11.8	의령군	-12.1	창원시	7.3	양산시	12.9
	창녕군	-8.6	남해군	-12.0	진주시	2.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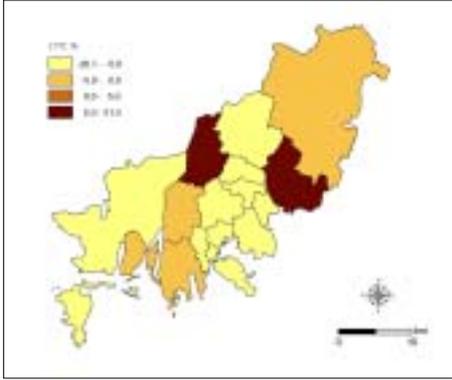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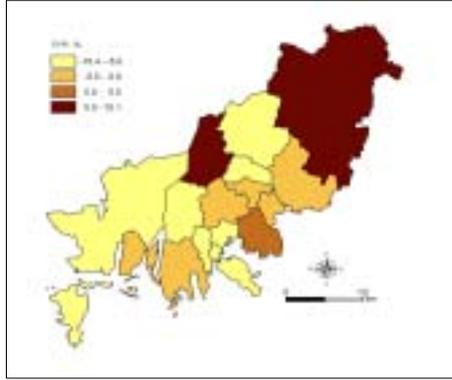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증감 비율(1995~200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3>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증감 비율(2000~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4> 부산의 인구 증감 비율(1995~200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5> 부산의 인구 증감 비율(2000~2005년)

2. 연령 구조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 구조를 보면, 15~24세 인구는 1995년 140만 명에서 2005년 108만 명으로 22.9%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는 42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64.8% 증가하였다(표 4). 그 결과, 35~44세를 기준으로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층 인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45세 이상의 장년 및 고령층 인구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부산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부산의 15~24세 인구는 1995년 75만 명에서 2005년 54만 명으로 28.1%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는 17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76.3% 증가하였다. 특히 0~14세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1995년 84만 명에서 2005년 58만 명으로 30.4%가 감소하였다.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6, 그림 7). 유소년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젊은 연령층의 인구 감소 현상은 35~44세를 기점으로 달라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0~14세 인구 비율은 16.6%로 상대적으로 낮는데, 울산과 경남의 0~14세 인구비율은 각각 22.1%와 20.0%이다(그림 8,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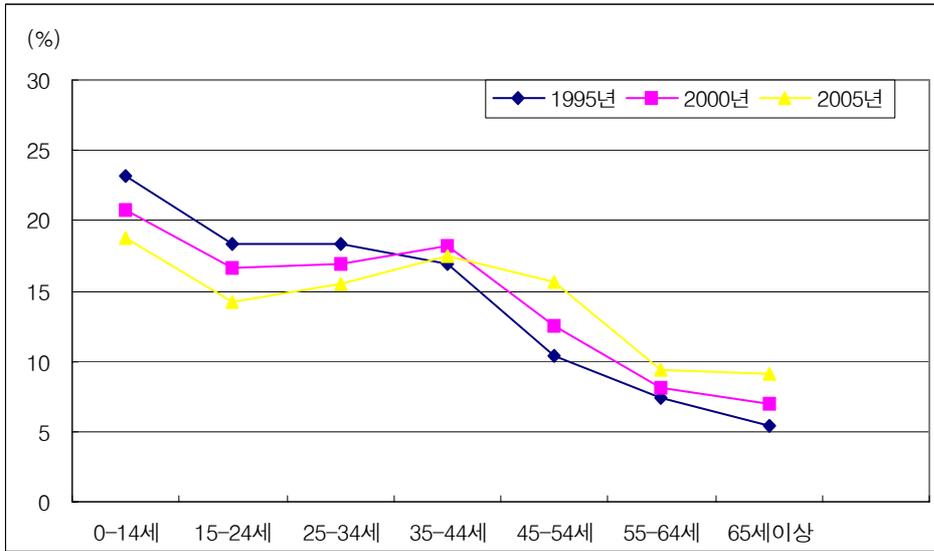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와 서울·부산의 연령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85년과 2005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0~그림 15).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인구 피라미드의 유형이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05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는 전국의 인구 피라미드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20·30대 인구 비율이 다소 높다. 반면에 부산의 인구 피라미드는 25~39세의 인구 비율이 전국과 서울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25~39세 인구 비율의 공동화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199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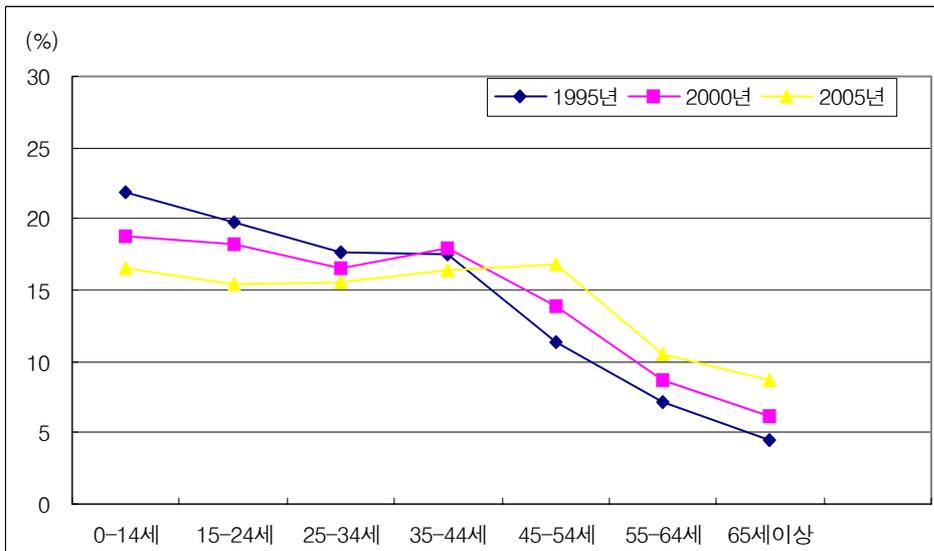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감률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95~2000	00~2005	95~2005	
부산 광역시	0~14세	835,799	21.9	684,484	18.7	581,853	16.6	-18.1	-15.0	-30.4
	15~24세	753,767	19.8	665,203	18.2	541,749	15.4	-11.7	-18.6	-28.1
	25~34세	674,908	17.7	603,547	16.5	545,935	15.5	-10.6	-9.5	-19.1
	35~44세	668,806	17.6	654,643	17.9	577,091	16.4	-2.1	-11.8	-13.7
	45~54세	434,007	11.4	505,644	13.8	591,668	16.8	16.5	17.0	36.3
	55~64세	269,912	7.1	316,408	8.7	370,315	10.5	17.2	17.0	37.2
	65세이상	172,389	4.5	225,414	6.2	303,936	8.7	30.8	34.8	76.3
	연령미상	30	0.0	94	0.0	0	0.0	-	-	-
계	3,809,618	100.0	3,655,437	100.0	3,512,547	100.0	-4.0	-3.9	-7.8	
울산 광역시	0~14세	-	-	253,043	25.0	231,322	22.1	-	-8.6	-
	15~24세	-	-	155,602	15.4	143,943	13.8	-	-7.5	-
	25~34세	-	-	190,336	18.8	171,656	16.4	-	-9.8	-
	35~44세	-	-	206,555	20.4	212,410	20.3	-	2.8	-
	45~54세	-	-	111,719	11.0	157,617	15.1	-	41.1	-
	55~64세	-	-	54,009	5.3	72,137	6.9	-	33.6	-
	65세이상	-	-	40,846	4.0	55,849	5.3	-	36.7	-
	연령미상	-	-	0	0.0	0	0.0	-	-	-
계	-	-	1,012,110	100.0	1,044,934	100.0	-	3.2	-	
경상 남도	0~14세	939,722	24.5	644,440	21.7	609,457	20.0	-31.4	-5.4	-35.1
	15~24세	646,425	16.8	449,387	15.1	393,576	12.9	-30.5	-12.4	-39.1
	25~34세	729,386	19.0	496,898	16.7	462,068	15.2	-31.9	-7.0	-36.6
	35~44세	626,504	16.3	524,105	17.6	539,183	17.7	-16.3	2.9	-13.9
	45~54세	360,875	9.4	334,983	11.3	435,814	14.3	-7.2	30.1	20.8
	55~64세	292,501	7.6	253,483	8.5	271,075	8.9	-13.3	6.9	-7.3
	65세이상	246,120	6.4	267,459	9.0	329,820	10.8	8.7	23.3	34.0
	연령미상	20	0.0	174	0.0	0	0.0	-	-	-
계	3,841,553	100.0	2,970,929	100.0	3,040,993	100.0	-22.7	2.4	-20.8	
부산 대도시권	0~14세	1,775,521	23.2	1,581,967	20.7	1,422,632	18.7	-10.9	-10.1	-19.9
	15~24세	1,400,192	18.3	1,270,192	16.6	1,079,268	14.2	-9.3	-15.0	-22.9
	25~34세	1,404,294	18.4	1,290,781	16.9	1,179,659	15.5	-8.1	-8.6	-16.0
	35~44세	1,295,310	16.9	1,385,303	18.1	1,328,684	17.5	6.9	-4.1	2.6
	45~54세	794,882	10.4	952,346	12.5	1,185,099	15.6	19.8	24.4	49.1
	55~64세	562,413	7.4	623,900	8.2	713,527	9.4	10.9	14.4	26.9
	65세이상	418,509	5.5	533,719	7.0	689,605	9.1	27.5	29.2	64.8
	연령미상	50	0.0	268	0.0	0	0.0	-	-	-
계	7,651,171	100.0	7,638,476	100.0	7,598,474	100.0	-0.2	-0.5	-0.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주: 연령별 인구는 총인구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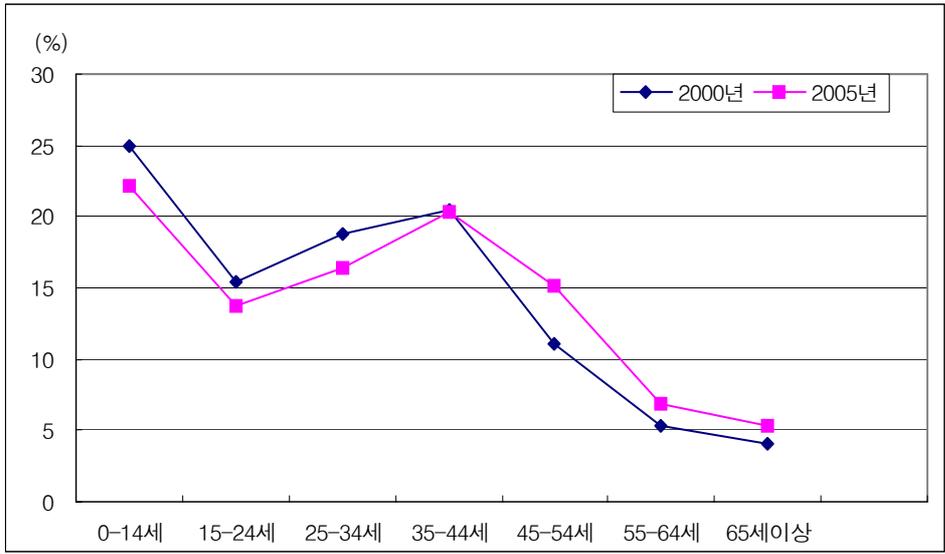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6>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변화(199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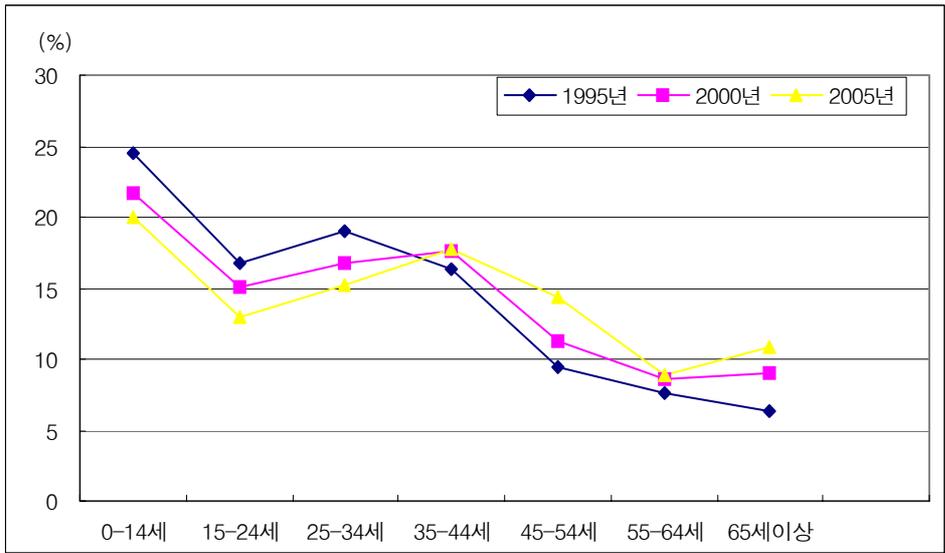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7> 부산 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변화(1995~2005년)

2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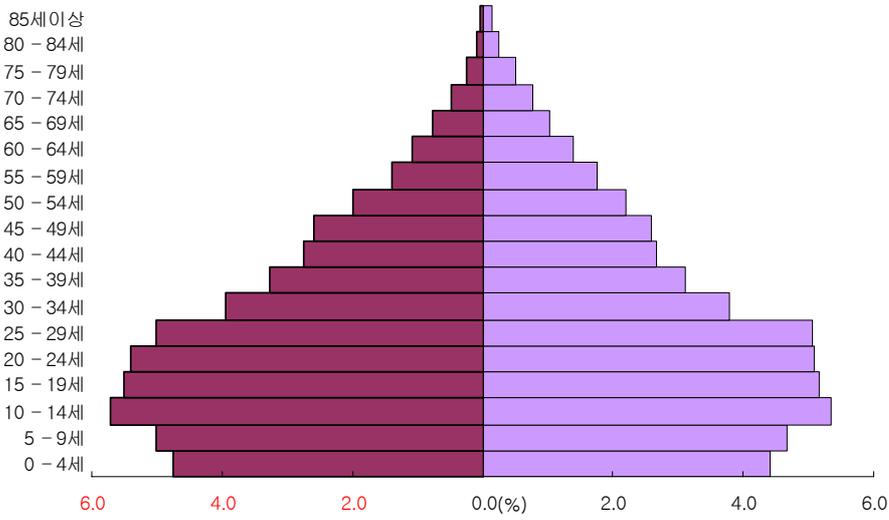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8> 울산 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변화(2000~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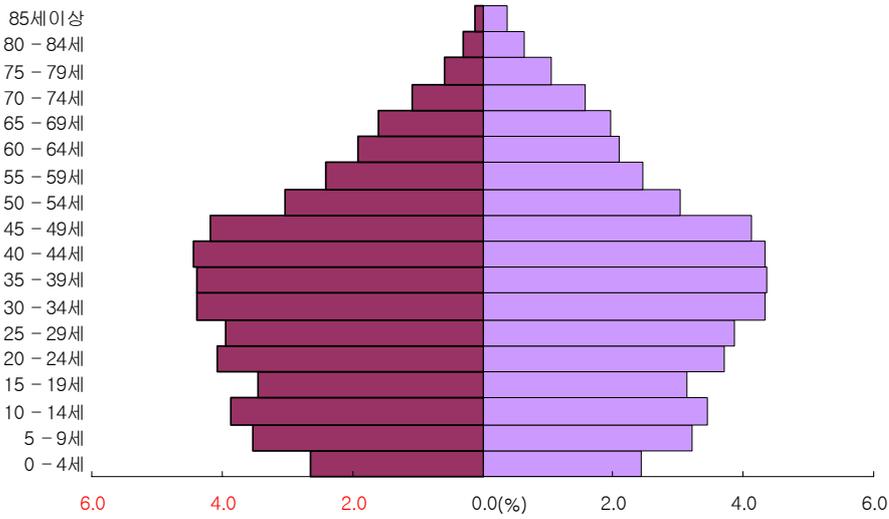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9> 경남 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율 변화(1995~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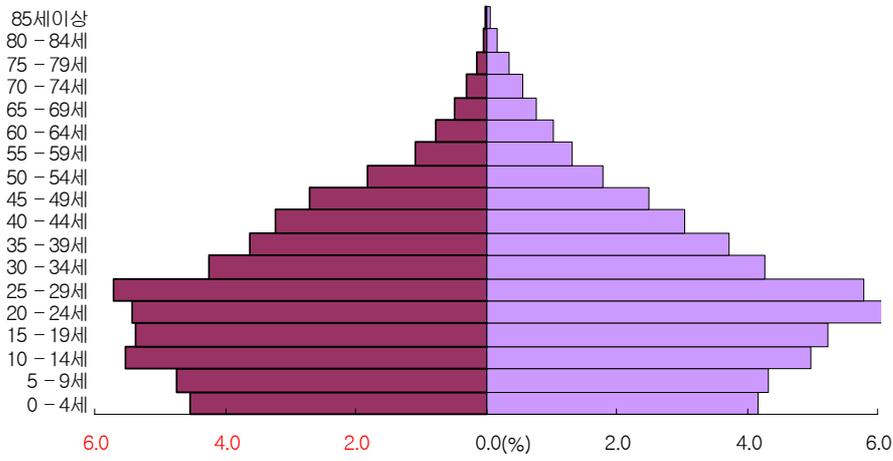
<그림 10>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198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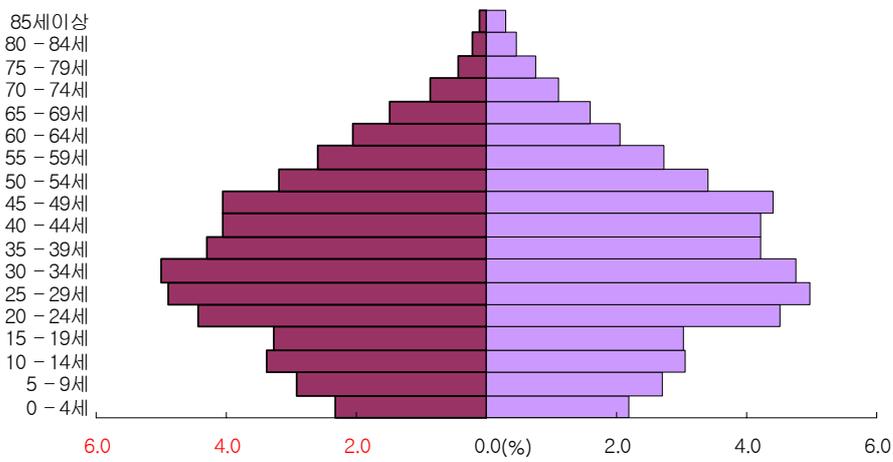
<그림 11>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2005년)

2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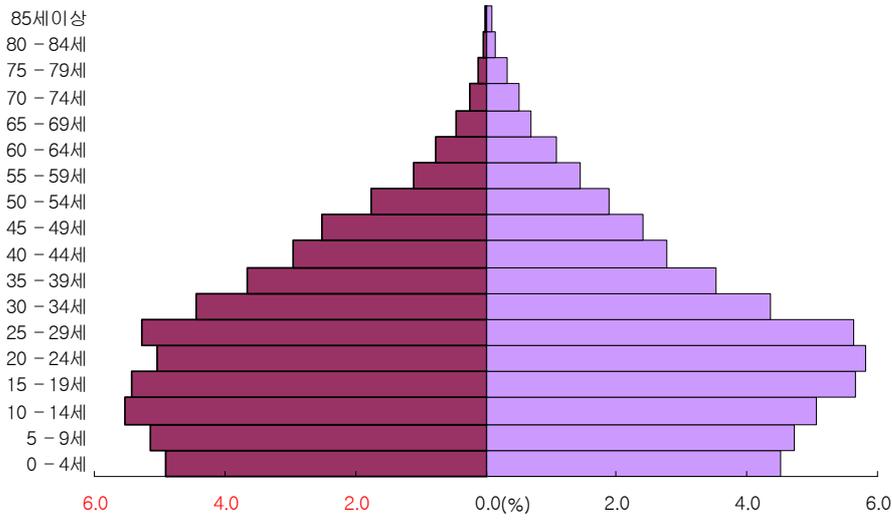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85년.

<그림 12>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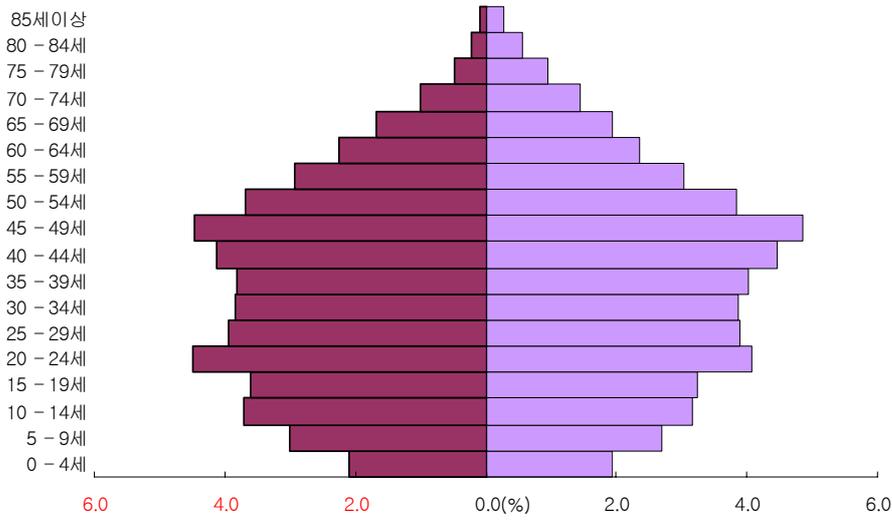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그림 13>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85년.

<그림 14> 부산의 인구 피라미드(198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그림 15> 부산의 인구 피라미드(2005년)

3. 가구수와 가구원수

부산 대도시권의 가구수는 1985년 169만 가구에서 2005년 258만 가구로 52.7% 증가하였다(표 5).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전국의 가구 증가율은 66.0%에 달해 전국에서 차지하는 부산 대도시권의 가구 비율은 17.7%에서 16.2%로 약간 감소하였다. 부산의 가구는 1985년 84만 가구에서 2005년 119만 가구로 41.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부산 대도시권의 가구당 가구원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그림 16, 그림 17). 1인 가구는 1995년 27만 가구에서 2005년 51만 가구로 85.2% 증가하였으며, 2인 가구는 61.0%, 3인 가구는 22.3% 증가하였다. 반면 4인 가구는 1995년 74만 가구에서 71만 가구로 4%가, 5인 이상 가구는 39만 가구에서 23만 가구로 41%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부산 대도시권의 가구당 가구원수의 변화 경향은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1인 가구는 1995년 12만 가구에서 2005년 22만 가구로 92.5%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21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47.9% 감소하였는데, 4인 가구의 비중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현재, 부산 가구의 가구원수는 4인 가구 비중이 27.6%로 가장 높지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5> 부산 대도시권의 가구수 변화(1985~2005년)

(단위: 가구, %)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감률		
						85~2005	95~2005	
부산광역시	가구수(A)	838,929	993,375	1,079,417	1,120,186	1,186,378	41.4	9.9
	구성비(A/D)	49.6	50.0	48.6	47.1	46.0		
울산광역시	가구수(B)	-	-	-	306,714	339,095	-	-
	구성비(B/D)	-	-	-	12.9	13.1		
경상남도	가구수(C)	851,128	991,695	1,141,523	951,393	1,056,007	-	-
	구성비(C/D)	50.4	50.0	51.4	40.0	40.9		
부산 대도시권	가구수(D)	1,690,057	1,985,070	2,220,940	2,378,293	2,581,480	52.7	16.2
	구성비(D/E)	17.7	17.5	17.1	16.6	16.2		
전국	가구수(E)	9,571,361	11,354,540	12,958,181	14,311,807	15,887,128	66.0	22.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주: 1997년에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가 분리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단순시계열 비교는 의미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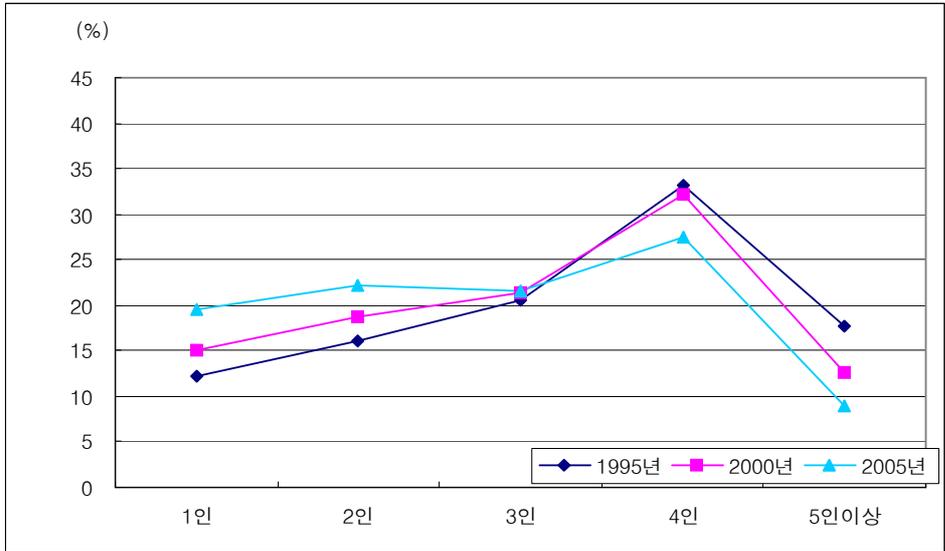
<표 6> 부산 대도시권 가구의 가구원수 변화(1995~2005년)

(단위: 가구,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감률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95~2000	00~2005	95~2005
부산 광역시	1인	115,574	10.7	154,237	13.8	222,515	18.8	33.5	44.3	92.5
	2인	152,782	14.2	196,474	17.5	256,616	21.6	28.6	30.6	68.0
	3인	229,726	21.3	253,737	22.7	273,074	23.0	10.5	7.6	18.9
	4인	375,797	34.8	370,376	33.1	327,089	27.6	-1.4	-11.7	-13.0
	5인이상	205,538	19.0	145,362	13.0	107,084	9.0	-29.3	-26.3	-47.9
	계	1,079,417	100.0	1,120,186	100.0	1,186,378	100.0	3.8	5.9	9.9
울산 광역시	1인	-	-	42,532	13.9	57,923	17.1	-	36.2	-
	2인	-	-	46,104	15.0	63,620	18.8	-	38.0	-
	3인	-	-	65,266	21.3	75,717	22.3	-	16.0	-
	4인	-	-	117,437	38.3	111,541	32.9	-	-5.0	-
	5인이상	-	-	35,375	11.5	30,294	8.9	-	-14.4	-
	계	-	-	306,714	100.0	339,095	100.0	-	10.6	-
경상 남도	1인	157,947	13.8	162,923	17.1	226,117	21.4	3.2	38.8	43.2
	2인	204,286	17.9	202,394	21.3	254,494	24.1	-0.9	25.7	24.6
	3인	226,599	19.9	188,647	19.8	209,444	19.8	-16.7	11.0	-7.6
	4인	363,348	31.8	279,706	29.4	270,996	25.7	-23.0	-3.1	-25.4
	5인이상	189,343	16.6	117,723	12.4	94,956	9.0	-37.8	-19.3	-49.8
	계	1,141,523	100.0	951,393	100.0	1,056,007	100.0	-16.7	11.0	-7.5
부산 대도시권	1인	273,521	12.3	359,692	15.1	506,555	19.6	31.5	40.8	85.2
	2인	357,068	16.1	444,972	18.7	574,730	22.3	24.6	29.2	61.0
	3인	456,325	20.5	507,650	21.3	558,235	21.6	11.2	10.0	22.3
	4인	739,145	33.3	767,519	32.3	709,626	27.5	3.8	-7.5	-4.0
	5인이상	394,881	17.8	298,460	12.5	232,334	9.0	-24.4	-22.2	-41.2
	계	2,220,940	100.0	2,378,293	100.0	2,581,480	100.0	7.1	8.5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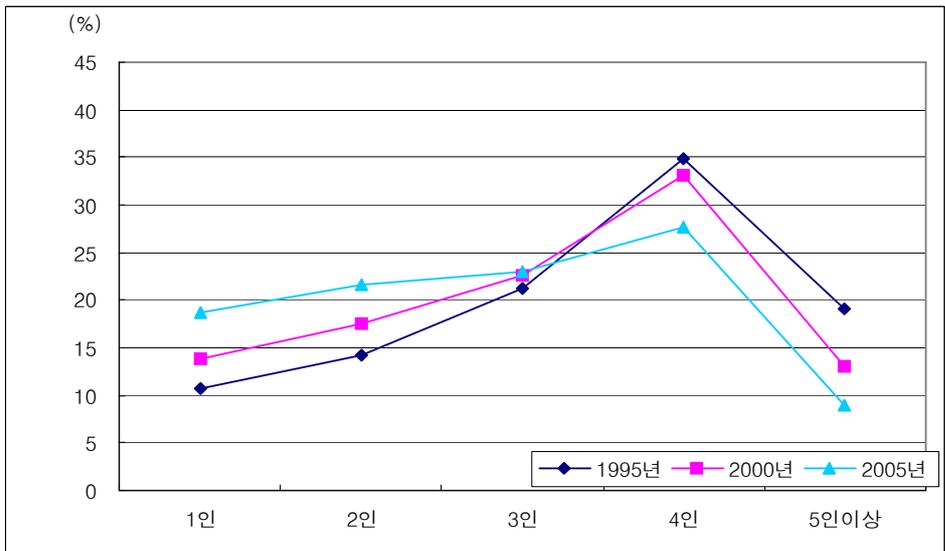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26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16> 부산 대도시권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율 변화(1995~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그림 17> 부산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율 변화(1995~2005년)

Ⅲ. 부산 대도시권의 내부 인구이동

1. 인구이동의 시계열 변화
2.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

Ⅲ. 부산 대도시권의 내부 인구이동

1. 인구이동의 시계열 변화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연도별 인구이동 현황을 광역시도내 이동과 광역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그림 18). 양재섭·김상일(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1996~2005년까지 10년간을 중심으로 보면, 부산 대도시권은 수도권에 비해 부산·울산·경남 각각의 광역시도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고 광역시도간 인구이동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인구이동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내 이동 36.6%, 서울→인천·경기 12.3%, 인천·경기→서울 8.4%인데 비해 부산내 이동은 42.9%이며 부산→울산·경남 7.7%, 울산·경남→부산 6.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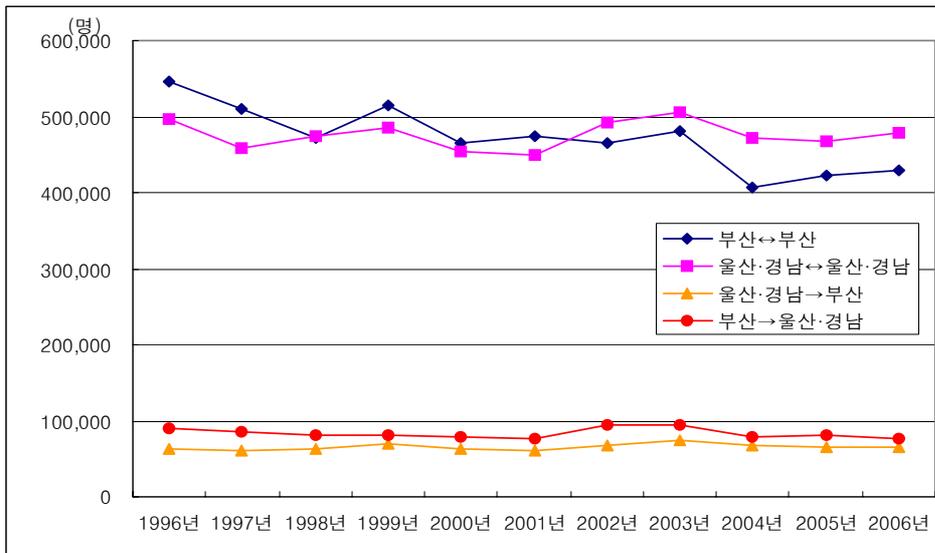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광역시도간 이동에서는 부산의 전출 인구가 1996~2005년까지 연평균 84,26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많게는 2003년에 94,752명이, 적게는 2001년에 77,180명이 이동하였다. 부산의 전입 인구는 연평균 65,389명으로 많게는 2003년에 74,341명이, 적게는 2001년에 61,317명이 이동하였다. 10년간 부산 대도시권 내에서 부산의 순이동은 평균 -18,911명인데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부산 대도시권의 연도별 인구이동(1996~2005년)

(단위: 명, %)

구분	광역시도내 이동		광역시도간 이동		부산 대도시권 이동 계	부산 순이동
	부산	울산경남	부산→울산경남	울산경남→부산		
1996년	545,172 (45.7)	495,923 (41.5)	90,375 (7.6)	62,358 (5.2)	1,193,828 (100.0)	-28,017
1997년	510,780 (45.8)	459,316 (41.1)	84,398 (7.6)	61,784 (5.5)	1,116,278 (100.0)	-22,614
1998년	471,201 (43.3)	473,063 (42.4)	81,869 (7.3)	62,657 (5.6)	1,088,790 (100.0)	-19,212
1999년	514,844 (44.8)	485,089 (43.5)	79,949 (7.2)	69,932 (6.3)	1,149,814 (100.0)	-10,017
2000년	466,071 (44.0)	453,067 (40.6)	79,287 (7.1)	62,019 (5.6)	1,060,444 (100.0)	-17,268
2001년	474,981 (44.7)	448,430 (40.2)	77,180 (6.9)	61,317 (5.5)	1,061,908 (100.0)	-15,863
2002년	464,122 (41.5)	492,809 (44.1)	93,967 (8.4)	67,754 (6.1)	1,118,652 (100.0)	-26,213
2003년	481,232 (41.7)	504,647 (45.2)	94,752 (8.5)	74,341 (6.7)	1,154,972 (100.0)	-20,411
2004년	407,434 (39.8)	471,545 (42.2)	79,217 (7.1)	66,597 (6.0)	1,024,793 (100.0)	-12,620
2005년	422,008 (40.7)	467,406 (41.9)	81,641 (7.3)	65,129 (5.8)	1,036,184 (100.0)	-16,512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주: 부산 대도시권 내에서의 인구이동만이 분석 대상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그림 18> 부산 대도시권의 연도별 인구이동 현황(1996~2006년)

2.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

1)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

부산 각 구·군별 순이동이 부산 내부에서의 전입·전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과의 전입·전출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전국 시군 구간 이동인 부산 외부 인구이동과 부산의 구·군간의 인구이동인 부산 내부 인구이동으로 구분하여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인구이동 유형의 지역별 차이를 1996년과 2006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두 시기 모두에서 부산 외부 지역과의 인구이동에서 전입 초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1996년 부산 외부로의 전출 초과 규모는 부산진구(-6,333명)·금정구(-4,752명)·사상구(-4,423명) 순으로 컸으며, 모든 구에서 전출 초과가 발생하였다(표 8). 부산의 구·군 사이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해운대구(38,917명), 북구(10,917명) 그 외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이 전입 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진구(-13,493명), 연제구(-7,260명) 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에서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부산 외부·내부를 합한 전체 순이동에서는 신시가지가 들어서고 있는 해운대구의 전입 초과 규모가 가장 큰데, 부산 외부지역과의 순이동은 (-)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이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며 부산 이외 지역으로의 전출 초과를 상쇄시킴으로써 인구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9).

2006년 역시 부산 외부 지역과의 인구이동에서는 모든 구에서 전출 초과가 나타났다(표 9). 부산 내부에서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해운대구(14,011명)와 동래구(5,058명)에서 전입 초과 규모가 크며, 사상구(-3,802)에서 전출 초과 규모가 가장 컸다. 전체 순이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해운대구는 12,852명으로 전입 초과 규모가 가장 크고 사상구는 -7,106명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가장 컸다(그림 20).

<표 8>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1996년)

(단위: 명)

구분	부산 외부			부산 내부			전체			비교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중구	2,110	2,736	-626	5,779	8,099	-2,320	7,889	10,835	-2,946	1,694
서구	5,024	7,411	-2,387	12,822	17,537	-4,715	17,846	24,948	-7,102	2,328
동구	4,199	6,224	-2,025	8,764	15,899	-7,135	12,963	22,123	-9,160	5,110
영도구	5,484	8,205	-2,721	8,232	11,801	-3,569	13,716	20,006	-6,290	848
부산진구	13,569	19,902	-6,333	28,496	41,989	-13,493	42,065	61,891	-19,826	7,160
동래구	10,759	14,361	-3,602	29,020	32,716	-3,696	39,779	47,077	-7,298	94
남구	9,159	13,212	-4,053	20,974	24,792	-3,818	30,133	38,004	-7,871	-235
북구	11,228	15,647	-4,419	30,102	19,185	10,917	41,330	34,832	6,498	-15,336
해운대구	14,274	15,118	-844	59,445	20,528	38,917	73,719	35,646	38,073	-39,761
사하구	14,994	17,396	-2,402	28,251	23,766	4,485	43,245	41,162	2,083	-6,887
금정구	12,051	16,803	-4,752	21,069	26,903	-5,834	33,120	43,706	-10,586	1,082
강서구	3,289	5,171	-1,882	3,915	4,796	-881	7,204	9,967	-2,763	-1,001
연제구	7,528	10,893	-3,365	21,801	29,061	-7,260	29,329	39,954	-10,625	3,895
수영구	7,077	9,819	-2,742	19,364	23,249	-3,885	26,441	33,068	-6,627	1,143
사상구	10,371	14,794	-4,423	25,783	25,349	434	36,154	40,143	-3,989	-4,857
기장군	3,566	4,235	-669	6,477	4,624	1,853	10,043	8,859	1,184	-2,522
계	134,682	181,927	-47,245	330,294	330,294	0	464,976	512,221	-47,245	-47,245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년.

주: 비교는 부산 외부와 부산 내부 순이동의 차를 비교한 수치임.

<표 9>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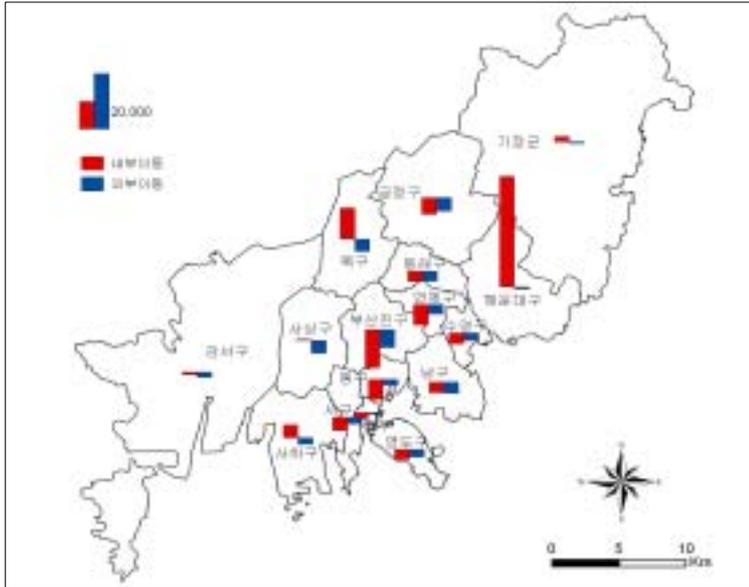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부산 외부			부산 내부			전체			비고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중구	1,714	2,332	-618	4,624	5,161	-537	6,338	7,493	-1,155	-81
서구	4,128	5,774	-1,646	8,733	10,527	-1,794	12,861	16,301	-3,440	148
동구	3,201	4,281	-1,080	6,994	8,773	-1,779	10,195	13,054	-2,859	699
영도구	4,662	6,336	-1,674	5,427	7,893	-2,466	10,089	14,229	-4,140	792
부산진구	14,468	18,447	-3,979	26,597	28,605	-2,008	41,065	47,052	-5,987	-1,971
동래구	9,987	12,249	-2,262	28,683	23,625	5,058	38,670	35,874	2,796	-7,320
남구	11,016	13,726	-2,710	16,649	18,947	-2,298	27,665	32,673	-5,008	-412
북구	11,787	16,470	-4,683	16,632	18,491	-1,859	28,419	34,961	-6,542	-2,824
해운대구	18,221	19,380	-1,159	36,997	22,986	14,011	55,218	42,366	12,852	-15,170
사하구	11,637	15,615	-3,978	16,121	18,264	-2,143	27,758	33,879	-6,121	-1,835
금정구	11,713	13,641	-1,928	18,091	17,963	128	29,804	31,604	-1,800	-2,056
강서구	3,008	3,829	-821	3,640	3,350	290	6,648	7,179	-531	-1,111
연제구	7,122	9,506	-2,384	20,301	21,421	-1,120	27,423	30,927	-3,504	-1,264
수영구	6,551	8,429	-1,878	16,468	15,919	549	23,019	24,348	-1,329	-2,427
사상구	8,695	11,999	-3,304	15,086	18,888	-3,802	23,781	30,887	-7,106	498
기장군	3,422	4,004	-582	4,939	5,169	-230	8,361	9,173	-812	-352
계	131,332	166,018	-34,686	245,982	245,982	0	377,314	412,000	-34,686	-34,686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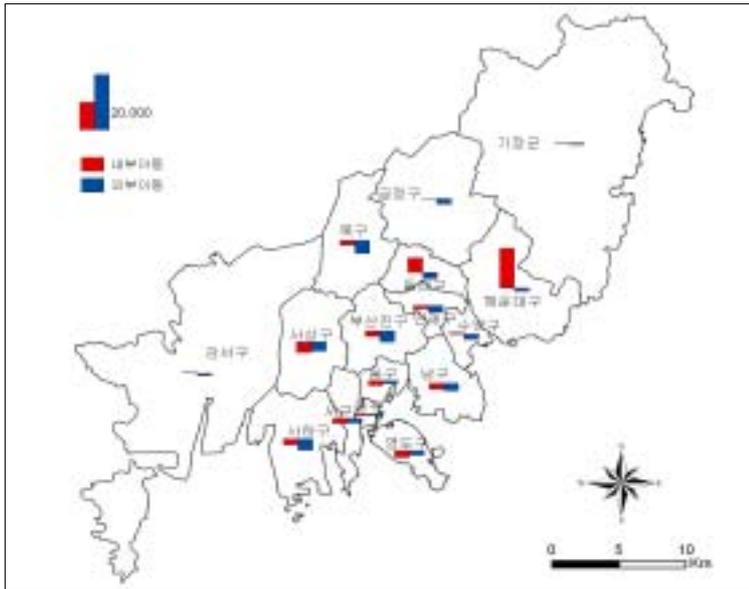
주: 비고는 부산 외부와 부산 내부의 순이동의 차를 비교한 수치임.

34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년.

<그림 19> 부산의 구·군별 순이동(1996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그림 20> 부산의 구·군별 순이동(2006년)

<표 10> 부산↔울산의 구·군별 이동(2001·2006년)

(단위: 명)

구분	2001년			2006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중구	100	182	-82	132	133	-1
서구	306	463	-157	317	445	-128
동구	244	458	-214	274	334	-60
영도구	382	568	-186	323	527	-204
부산진구	1,082	1,431	-349	1,071	1,430	-359
동래구	714	1,101	-387	957	1,010	-53
남구	759	1,024	-265	806	1,024	-218
북구	791	1,035	-244	731	923	-192
해운대구	1,470	1,842	-372	1,971	1,664	307
사하구	752	1,015	-263	793	930	-137
금정구	1,173	1,502	-329	1,265	1,245	20
강서구	94	142	-48	120	143	-23
연제구	599	777	-178	594	738	-144
수영구	432	642	-210	533	582	-49
사상구	579	850	-271	513	722	-209
기장군	771	926	-155	735	759	-24
계	10,248	13,958	-3,710	11,135	12,609	-1,474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1·2006년.

<표 10>은 2001년과 2006년 부산↔울산 인구이동의 구·군별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2001년 울산으로의 구별 순이동을 보면 모든 구에서 전출 초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동래구(-387명), 해운대구(-372명), 부산진구(-349명) 순으로 크다. 2006년에는 2001년에 비해 부산에서 울산으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부산진구(-359명), 남구(-218명), 사상구(-209명) 등에서 전출 초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경우는 울산으로부터 각각 307명과 20명의 전입 초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11> 부산↔경남의 구·군별 이동(1996·2006년)

(단위: 명)

구분	1996년			2006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중구	681	915	-234	552	768	-216
서구	1,800	2,649	-849	1,449	1,960	-511
동구	1,483	2,277	-794	1,171	1,479	-308
영도구	1,695	2,928	-1,233	1,480	2,099	-619
부산진구	5,169	7,832	-2,663	6,019	6,908	-889
동래구	4,526	5,861	-1,335	4,206	4,691	-485
남구	3,438	4,754	-1,316	4,228	4,716	-488
북구	5,456	7,947	-2,491	5,894	8,187	-2,293
해운대구	4,870	4,824	46	5,739	5,640	99
사하구	5,562	7,258	-1,696	4,746	6,550	-1,804
금정구	5,411	7,552	-2,141	5,712	5,866	-154
강서구	1,885	3,296	-1,411	1,872	2,443	-571
연제구	2,788	4,249	-1,461	2,824	3,432	-608
수영구	2,089	2,985	-896	2,136	2,603	-467
사상구	4,754	7,320	-2,566	4,130	5,612	-1,482
기장군	1,177	1,204	-27	1,065	1,458	-393
계	52,784	73,851	-21,067	53,223	64,412	-11,189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2006년.

1996년과 2006년 부산↔경남 인구이동의 구·군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1996년과 2006년의 해운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모두 경남으로 전출 초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울산에 비해 크다. 1996년 순이동은 부산진구(-2,663명), 사상구(-2,566명), 북구(-2,491명) 순으로, 2006년에는 북구(-2,293명), 사하구(-1,804명), 사상구(-1,482명) 순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2006년 부산↔울산·경남 즉, 부산 대도시권 내부 인구이동의 구·군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1). 부산 인구의 울산·경남

앞에서 살펴본 경남·울산→부산간 인구이동과 유사하게 가까운 지역에서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에는 북구에서 경남 김해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3,4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하구→경남 김해시(2,651명), 부산진구→경남 김해시(2,414명) 순으로 가까운 지역에서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2006년은 북구→경남 김해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2,9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금정구→경남 양산시(2,661명), 북구→경남 양산시(2,143명)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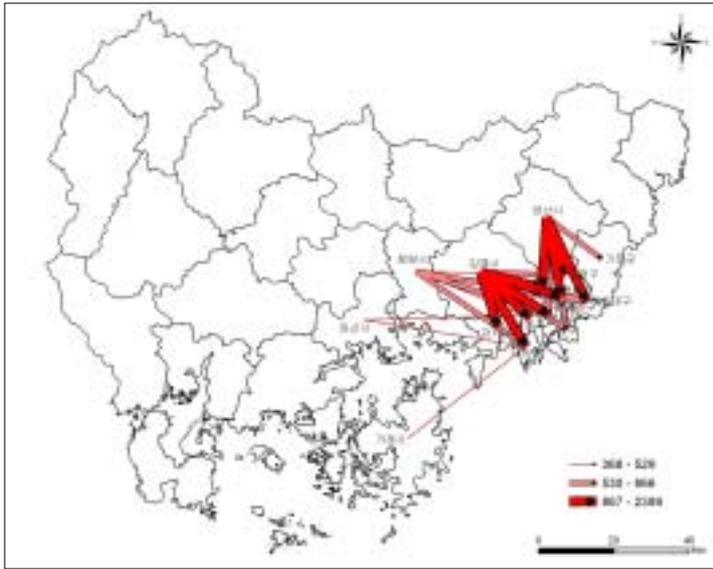
<표 12> 경남·울산→부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1996·2006년)

(단위: 명)

1996년			2006년		
기원지(O)	목적지(D)	이동자수	기원지(O)	목적지(D)	이동자수
경남 양산시	금정구	2,389	경남 양산시	금정구	2,904
경남 김해시	북구	1,531	경남 김해시	북구	2,012
경남 김해시	사상구	1,377	경남 김해시	부산진구	1,490
경남 양산시	해운대구	1,350	경남 김해시	해운대구	1,449
경남 양산시	북구	1,194	경남 양산시	해운대구	1,426
경남 양산시	동래구	1,141	경남 양산시	북구	1,286
경남 김해시	강서구	1,115	경남 김해시	사상구	1,268
경남 김해시	사하구	1,094	경남 양산시	동래구	1,147
경남 김해시	동래구	1,083	경남 김해시	사하구	1,124
경남 김해시	부산진구	1,053	경남 김해시	동래구	1,069
경남 김해시	해운대구	866	경남 김해시	강서구	1,045
경남 양산시	부산진구	771	경남 양산시	부산진구	897
경남 창원시	사하구	663	경남 김해시	남구	838
경남 김해시	금정구	650	경남 김해시	금정구	803
경남 양산시	기장군	619	경남 진해시	사하구	717
경남 김해시	남구	616	울산 남구	해운대구	694
경남 창원시	해운대구	579	경남 김해시	연제구	670
경남 창원시	부산진구	557	경남 양산시	연제구	625
경남 양산시	남구	551	울산 울주군	해운대구	607
경남 양산시	연제구	549	경남 양산시	남구	594
경남 양산시	사하구	529	경남 창원시	부산진구	584
경남 양산시	사상구	486	경남 창원시	해운대구	560
경남 창원시	사상구	479	경남 양산시	사하구	507
경남 창원시	북구	449	경남 양산시	기장군	490
경남 창원시	금정구	424	울산 남구	금정구	488
경남 마산시	사하구	416	경남 양산시	사상구	468
경남 창원시	동래구	404	경남 진해시	남구	463
경남 김해시	연제구	396	경남 김해시	수영구	441
경남 마산시	부산진구	374	경남 양산시	수영구	428
경남 거제시	사하구	368	경남 창원시	북구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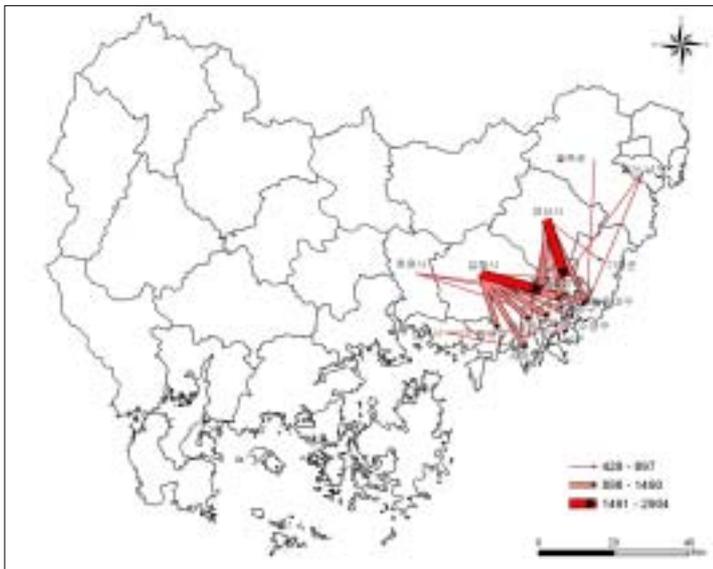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2006년.

4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년.

<그림 22> 경남·울산→부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1996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그림 23> 경남·울산→부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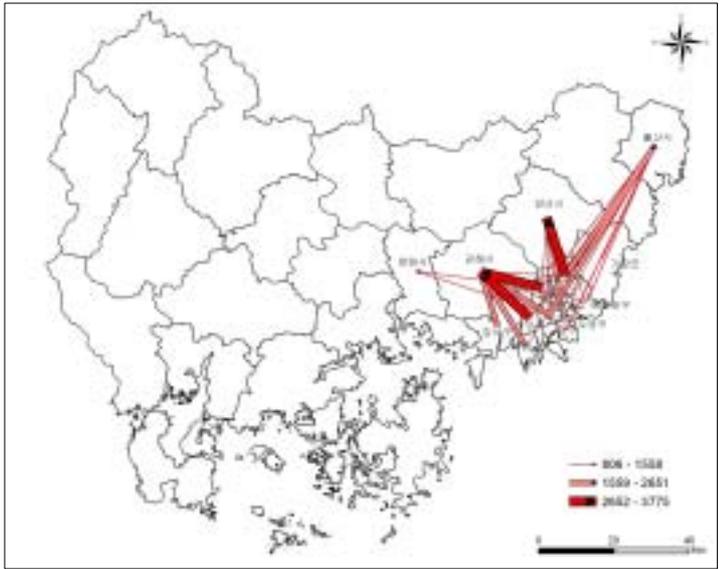
<표 13> 부산→경남·울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1996·2006년)

(단위: 명)

1996년			2006년		
기원지(O)	목적지(D)	이동자수	기원지(O)	목적지(D)	이동자수
부산진구	경남 창원시	1,114	북구	경남 김해시	2,971
북구	경남 창원시	818	금정구	경남 양산시	2,661
부산진구	경남 울산시	1,887	북구	경남 양산시	2,143
동래구	경남 울산시	1,487	사상구	경남 김해시	2,094
남구	경남 울산시	1,176	부산진구	경남 김해시	1,981
북구	경남 울산시	1,154	사하구	경남 김해시	1,775
해운대구	경남 울산시	1,558	강서구	경남 김해시	1,481
사하구	경남 울산시	1,295	해운대구	경남 양산시	1,387
금정구	경남 울산시	2,006	해운대구	경남 김해시	1,344
연제구	경남 울산시	1,115	동래구	경남 양산시	1,169
수영구	경남 울산시	806	동래구	경남 김해시	1,135
사상구	경남 울산시	1,030	부산진구	경남 양산시	1,132
기장군	경남 울산시	962	사하구	경남 진해시	1,118
부산진구	경남 김해시	2,414	남구	경남 김해시	1,033
동래구	경남 김해시	1,441	금정구	경남 김해시	981
남구	경남 김해시	1,339	연제구	경남 김해시	861
북구	경남 김해시	3,470	사상구	경남 양산시	774
해운대구	경남 김해시	1,215	남구	경남 양산시	768
사하구	경남 김해시	2,651	사하구	경남 양산시	764
금정구	경남 김해시	1,235	기장군	경남 양산시	757
강서구	경남 김해시	2,364	연제구	경남 양산시	712
연제구	경남 김해시	1,042	부산진구	경남 창원시	640
사상구	경남 김해시	3,535	부산진구	경남 거제시	623
부산진구	경남 양산시	1,323	수영구	경남 김해시	581
동래구	경남 양산시	1,745	사하구	경남 거제시	555
남구	경남 양산시	837	영도구	경남 김해시	554
북구	경남 양산시	1,445	해운대구	경남 창원시	550
해운대구	경남 양산시	1,083	북구	경남 창원시	515
금정구	경남 양산시	3,775	해운대구	울산 울주군	507
연제구	경남 양산시	1,082	남구	경남 창원시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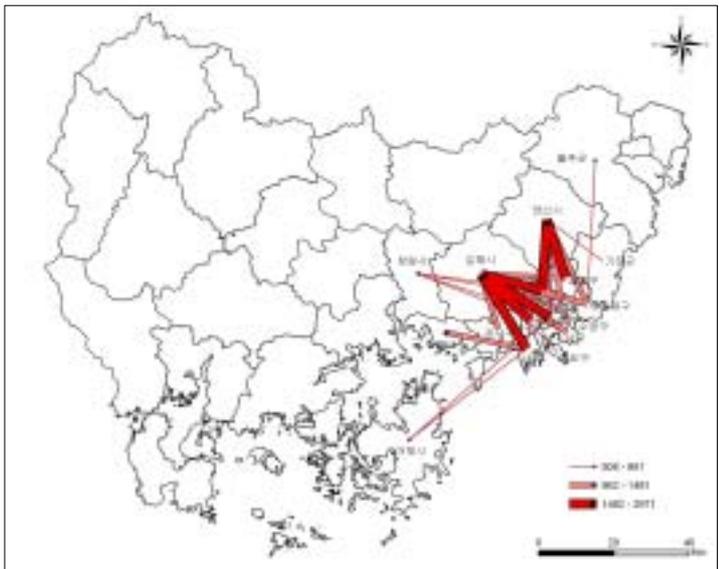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2006년.

4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년.

<그림 24> 부산→경남·울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1996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그림 25> 부산→경남·울산 시군구간 인구이동 상위 30개 흐름(2006년)

Ⅳ. 부산 대도시권과 수도권간 인구이동

1. 시도 및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
2. 부산-전국 시군구간 인구이동

Ⅳ. 부산 대도시권과 수도권간 인구이동

이 장에서는 부산 대도시권과 타 지역간의 인구이동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도 및 부산의 구·군 별 그리고 시군구간으로 구별해서 살펴보았다.

1. 시도 및 부산의 구·군별 인구이동

먼저, 시도별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 주요 대도시의 인구 감소와 대도시 주변 지역의 인구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표 14, 그림 26). 서울은 1996~2007년 간 지속적인 인구 유출 지역이었으며, 2007년 인천을 제외한 6개 광역시가 모두 순이동이 (-)로 전출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전출 초과 규모가 큰 반면 서울과 부산의 주변 지역인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전입 초과 규모가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의 경계를 초월하여 중심 대도시와 주변지역간이 기능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생활권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최은영 외, 2007).

시도별 순이동은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서울의 전출 초과와 경기도의 전입 초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5대 신도시를 비롯하여 용인, 화성, 동탄, 김포, 파주, 구리 등 서울에서 반경 30~40km권의 경기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이 공급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의 경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2000년 이후 전출 초과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연간 약 4만 명 정도의 전출 초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순이동 변화를 보다 장기 시계열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5). 서울은 1990년 이후 전출 초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유동적인데 비해 부산은 1989년 처음으로 전출 초과가 발생한 이후 1990년 이후 유사한 규모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의 전출 초과 규모는 1996년 -211,237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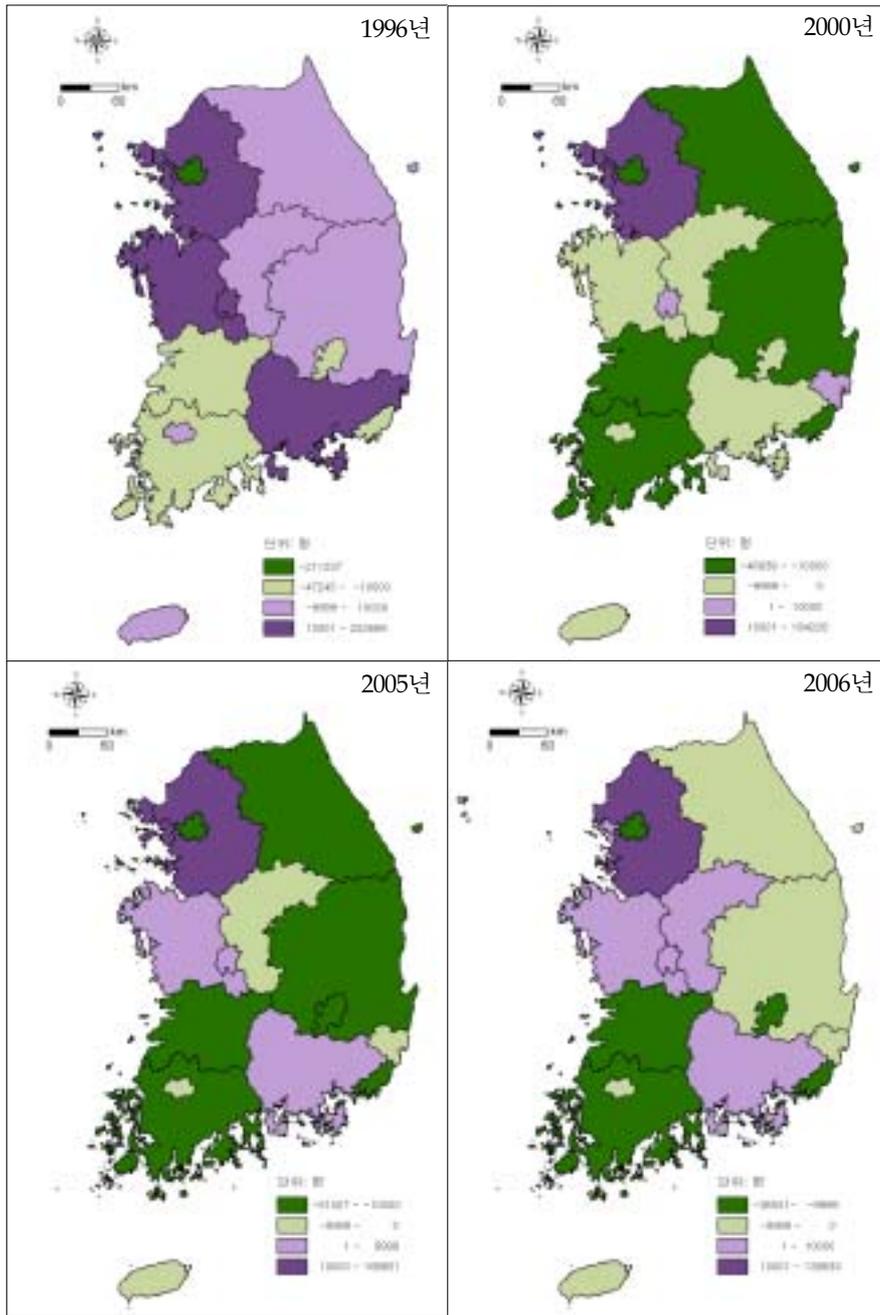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지만 2000년 이후 인구 유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서울과 부산이 비슷한 규모의 전출 초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인구 규모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유출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산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시도별 순이동의 변화(1996~2007년)

(단위: 명)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서울	-211,237	-178,319	-134,013	-81,122	-46,939	-113,949	-106,421	-68,968	-47,204	-51,007	-36,551	-52,883
부산	-47,245	-44,437	-40,921	-33,357	-43,694	-41,188	-49,442	-42,263	-33,229	-36,975	-34,686	-36,076
대구	-21,740	-14,527	-11,838	-6,867	-3,352	-14,233	-9,641	-3,056	-13,327	-24,950	-25,659	-16,545
인천	12,338	27,040	20,811	1,810	13,165	1,117	230	-16,171	-1,335	10,965	9,618	22,721
광주	90	7,425	2,513	2,853	-14	-121	4,355	-9,687	-3,148	-7,333	-2,730	-4,143
대전	14,918	9,594	12,093	9,609	8,576	6,840	8,555	5,826	2,616	3,210	2,315	-1,048
울산	-	3,838	-5,568	-1,900	3,216	5,988	2,625	1,872	1,764	-392	-2,411	-992
경기	252,669	213,748	122,488	174,134	184,026	248,947	315,782	222,043	188,875	168,851	138,633	113,100
강원	-7,870	-922	8,890	-3,798	-11,134	-8,113	-17,181	-13,063	-8,342	-11,473	-9,560	-6,146
충북	5,624	4,924	5,542	-1,446	-4,404	-8,528	-8,202	-6,081	-5,817	-4,708	1,750	5,692
충남	12,187	14,100	9,365	-2,915	-7,742	-11,628	-13,625	2,682	34,983	4,999	7,055	13,363
전북	-14,371	-14,597	-2,269	-10,449	-21,590	-1,911	-56,735	-3,039	-50,969	-24,477	-19,162	-10,874
전남	-19,522	-21,590	1,237	-24,153	-33,538	-36,424	-46,152	-36,103	-32,252	-20,007	-24,685	-16,573
경북	5,548	-6,215	573	-13,205	-25,706	-21,305	-31,278	-36,833	-26,921	-11,517	-3,319	-14,611
경남	19,704	532	8,567	-9,375	-8,512	-5,166	6,896	4,288	-5,611	5,619	1,294	7,943
제주	-1,093	-594	2,530	181	-2,358	-326	234	-1,447	-83	-805	-1,902	-2,928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자료: 최은영 외, 2007년.

<그림 26> 시도별 순이동(1996~2006년)

<표 15> 서울·부산 순이동의 변화(1985~2007년)

(단위: 명)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1985년	30,364	13,455
1986년	-5,823	31,965
1987년	84,399	31,129
1988년	188,556	23,225
1989년	109,644	-6,658
1990년	-90,992	-35,860
1991년	-36,879	-35,548
1992년	-104,884	-51,995
1993년	-182,632	-58,925
1994년	-236,497	-57,475
1995년	-321,898	-54,909
1996년	-211,237	-47,245
1997년	-178,319	-44,437
1998년	-134,013	-40,921
1999년	-81,122	-33,357
2000년	-46,939	-43,694
2001년	-113,949	-41,188
2002년	-106,421	-49,442
2003년	-68,968	-42,263
2004년	-47,204	-33,229
2005년	-51,007	-36,975
2006년	-36,551	-34,686
2007년	-52,883	-36,076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표 16> 부산↔시도간 · 서울↔시도간 순이동 및 전국 순이동 대비 비율
(1996 · 2001 · 2006년)

(단위: 명, %)

구분	부산			서울		
	1996년	2001년	2006년	1996년	2001년	2006년
서울특별시	-6,261(13.3)	-12,238(29.7)	-9,752(28.1)	-	-	-
부산광역시	-	-	-	6,261	12,238	9,752
대구광역시	-672 (1.4)	-76 (0.2)	-75 (0.2)	3,038	7,478	6,110
인천광역시	-674 (1.4)	-1,033 (2.5)	-690 (2.0)	-15,547	-6,652	-5,133
광주광역시	-391 (0.8)	-238 (0.6)	-25 (0.1)	2,310	5,898	4,834
대전광역시	-956 (2.0)	-707 (1.7)	-621 (1.8)	-3,213	2,526	2,941
울산광역시	-	-3,710 (9.0)	-1,474 (4.2)	0	2,164	2,066
경기도	-3,954 (8.4)	-8,050(19.5)	-6,698(19.3)	-229,906	-179,837	-91,814
강원도	-228 (0.5)	-273 (0.7)	-213 (0.6)	1,367	4,369	3,819
충청북도	-624 (1.3)	-308 (0.7)	-217 (0.6)	-1,331	3,088	1,295
충청남도	-1,935 (4.1)	-534 (1.3)	-1,042 (3.0)	-418	4,548	1,228
전라북도	-462 (1.0)	-624 (1.5)	99(-0.3)	7,534	3,120	7,518
전라남도	-769 (1.6)	-66 (0.2)	-17 (0.0)	9,730	10,605	7,205
경상북도	-2,112 (4.5)	-739 (1.8)	-2,803 (8.1)	4,594	8,239	6,828
경상남도	-28,017(59.3)	-12,153(29.5)	-11,189(32.3)	3,687	7,182	5,927
제주도	-190 (0.4)	-439 (1.1)	31(-0.1)	657	1,085	873
계	-47,245(100.0)	-41,188(100.0)	-34,686(100.0)	-211,237	-113,949	-36,551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부산의 인구가 어디로 유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과 각 시도의 순이동 및 부산의 전체 순이동 대비 시도별 순이동 인구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16> 과 같다. 부산과의 비교를 위해 서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부산의 경우 1996년 과 2001년에는 모든 시도로, 2006년에는 미미한 전입 초과를 보인 제주(31명)와 전북(99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로 전출 초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1996년에 비해

2001년과 2006년에는 경남으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감소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로의 전출 초과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순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남은 1996년 59.3%에서 2006년 32.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 서울은 13.3%에서 28.1%로 경기도는 8.4%에서 19.5%로 증가하였다. 이는 부산의 전출 초과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과는 달리 서울의 경우 대규모의 전출 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의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순전입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서울의 영향력과 서울-지방간의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 수도권과의 순이동 규모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표 17), 연도별로 다소 변화가 있지만 대체로 부산은 수도권으로의 최대 인구 유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 시도별 수도권과의 순이동(1996·2000·2005·2006년)

(단위: 명)

구분	1996년			2000년			2005년			2006년		
	전입	전출	순이동									
부산광역시	34,565	45,454	-10,889	30,936	53,204	-22,268	32,196	49,583	-17,387	35,009	52,149	-17,140
대구광역시	22,024	26,810	-4,786	20,387	32,250	-11,863	20,438	33,116	-12,678	21,214	33,662	-12,448
광주광역시	24,671	27,829	-3,158	22,764	33,150	-10,386	22,754	34,251	-11,497	25,403	34,819	-9,416
대전광역시	38,835	31,999	6,836	36,183	40,331	-4,148	33,655	38,843	-5,188	35,020	40,476	-5,456
울산광역시	-	-	-	8,757	12,417	-3,660	9,391	13,526	-4,135	10,121	14,008	-3,887
강원도	54,966	59,827	-4,861	54,858	64,843	-9,985	52,860	62,982	-10,122	56,533	65,275	-8,742
충청북도	43,372	39,725	3,647	38,908	44,265	-5,357	38,867	44,474	-5,607	44,830	44,894	-64
충청남도	67,793	64,858	2,935	63,457	70,850	-7,393	76,708	77,690	-982	78,836	76,379	2,457
전라북도	44,728	58,507	-13,779	45,902	64,924	-19,022	40,670	60,073	-19,403	44,392	60,191	-15,799
전라남도	46,965	63,179	-16,214	46,538	67,374	-20,836	39,382	53,305	-13,923	40,178	55,428	-15,250
경상북도	34,997	43,202	-8,205	31,775	49,314	-17,539	35,311	51,700	-16,389	37,298	51,592	-14,294
경상남도	40,194	44,780	-4,586	25,577	41,106	-15,529	32,043	42,423	-10,380	33,911	44,162	-10,251
제주도	9,764	10,474	-710	10,069	12,335	-2,266	11,437	12,555	-1,118	11,995	13,405	-1,410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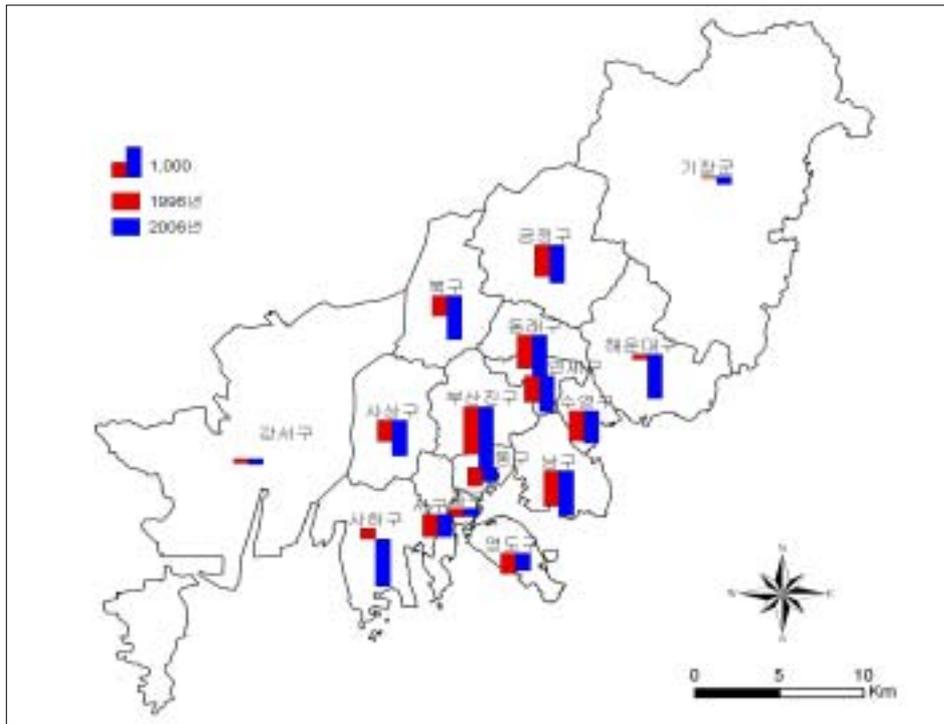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18>과 같다. 부산의 전체 전출 초과 규모는 앞의 <표 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년 -47,245명, 2001년 -41,188명, 2006년 -34,686명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이 중 수도권으로의 전출 초과 규모는 1996년 -10,889명, 2001년 -21,321명, 2006년 -17,140명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년과 2006년에는 전체 인구 유출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1996년에는 부산진구(-1,635명), 남구(-1,216명), 동래구(-1,146명) 순이었으나, 2001년에는 해운대구(-2,335명), 부산진구(-2,273명), 사하구(-2,237명), 2006년에는 부산진구(-2,079명) 사하구(-1,612명), 남구(-1,534명) 순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2006년 수도권으로의 구·군별 순이동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전 지역에서 대부분 인구 유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7).

<표 18> 부산의 구·군별 수도권으로의 이동(1996·2001·2006년)

(단위: 명)

구분	1996년			2001년			2006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중구	664	966	-302	553	946	-393	529	809	-280
서구	1,437	2,222	-785	1,400	2,366	-966	1,295	2,074	-779
동구	1,089	1,719	-630	959	1,623	-664	895	1,374	-479
영도구	1,531	2,237	-706	1,327	2,415	-1,088	1,348	1,946	-598
부산진구	3,510	5,145	-1,635	3,336	5,609	-2,273	3,691	5,770	-2,079
동래구	2,547	3,693	-1,146	2,449	4,404	-1,955	2,534	3,978	-1,444
남구	2,394	3,610	-1,216	2,543	4,022	-1,479	3,064	4,598	-1,534
북구	2,231	2,926	-695	2,296	3,558	-1,262	2,568	4,064	-1,496
해운대구	4,094	4,275	-181	4,851	7,186	-2,335	6,068	7,577	-1,509
사하구	4,756	4,394	362	2,930	5,167	-2,237	3,207	4,819	-1,612
금정구	2,503	3,588	-1,085	2,418	4,285	-1,867	2,522	3,819	-1,297
강서구	511	662	-151	407	664	-257	480	675	-195
연제구	1,969	2,872	-903	1,694	3,212	-1,518	2,037	3,270	-1,233
수영구	2,514	3,546	-1,032	2,142	3,509	-1,367	2,197	3,313	-1,116
사상구	2,020	2,753	-733	1,819	3,280	-1,461	1,839	3,063	-1,224
기장군	795	846	-51	645	844	-199	735	1,000	-265
계	34,565	45,454	-10,889	31,769	53,090	-21,321	35,009	52,149	-17,140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2006년.

<그림 27> 수도권으로의 구·군별 순이동(1996·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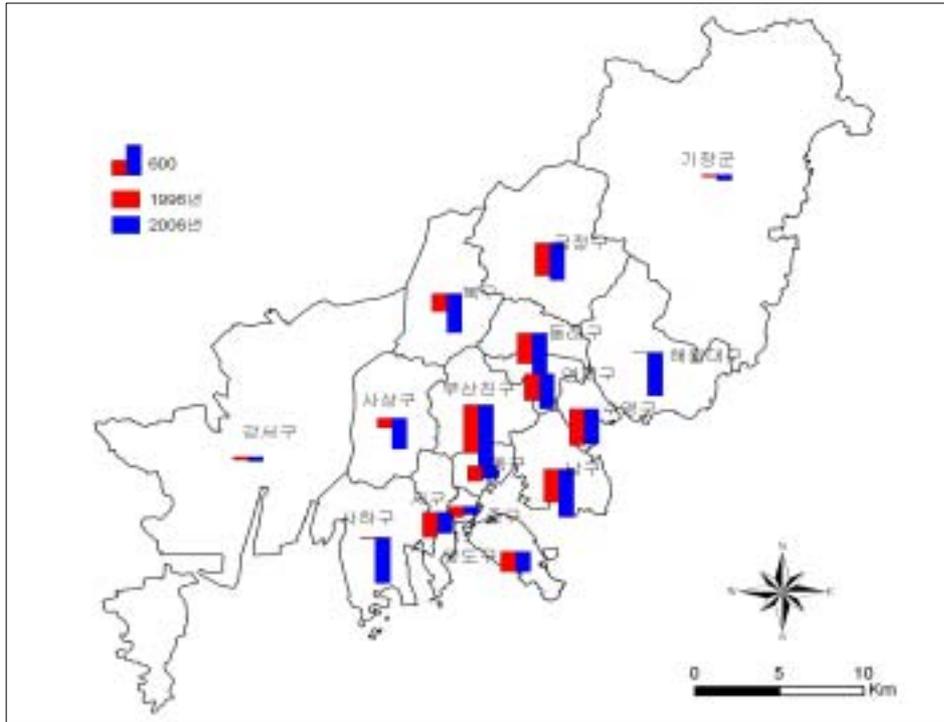
수도권으로의 이동 중 서울로의 유출 규모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표 19), 2006년 기준으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17,140명 중 서울로의 순이동이 -9,752명으로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6%가량 된다. 경기도와 서울의 인구규모에 비해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1996년에는 부산진구(-958명)가 서울로의 전출 초과가 가장 많았으며, 남구(-662명), 금정구(-653명) 순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크다. 2001년에는 해운대구(-1,284명), 부산진구(-1,275명), 동래구(-1,271명) 순으로, 2006년에는 부산진구(-1,202명), 남구(-948명), 해운대구(-905명) 순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6년과 2006년도 사이 서울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해운대구와 사하구의 경우 서울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그림 28).

<표 19> 부산에서 서울로의 구·군별 이동(1996·2001·2006년)

(단위: 명)

구분	1996년			2001년			2006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중구	359	577	-218	301	530	-229	287	447	-160
서구	804	1,304	-500	795	1,276	-481	702	1,116	-414
동구	576	884	-308	484	876	-392	436	693	-257
영도구	814	1,218	-404	654	1,289	-635	556	955	-399
부산진구	2,014	2,972	-958	1,767	3,042	-1,275	1,791	2,993	-1,202
동래구	1,467	2,073	-606	1,243	2,514	-1,271	1,252	2,138	-886
남구	1,311	1,973	-662	1,295	2,123	-828	1,554	2,502	-948
북구	1,089	1,444	-355	972	1,736	-764	1,084	1,860	-776
해운대구	2,152	2,162	-10	2,472	3,756	-1,284	3,046	3,909	-863
사하구	2,319	2,348	-29	1,443	2,630	-1,187	1,500	2,405	-905
금정구	1,331	1,984	-653	1,316	2,414	-1,098	1,288	2,031	-743
강서구	254	319	-65	180	292	-112	190	281	-91
연제구	1,092	1,618	-526	883	1,792	-909	1,059	1,745	-686
수영구	1,487	2,206	-719	1,180	2,086	-906	1,183	1,884	-701
사상구	1,037	1,233	-196	833	1,591	-758	800	1,409	-609
기장군	354	406	-52	310	419	-109	351	463	-112
계	18,460	24,721	-6,261	16,128	28,366	-12,238	17,079	26,831	-9,752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자료: 통계청, 인구가동통계, 1996·2006년

<그림 28> 서울로의 구·군별 순이동(1996·2006년)

2. 부산-전국 시군구간 인구가동

여기에서는 부산과 전국 시군구 사이의 인구가동 현황을 전입·전출 초과 30개 시군구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표 20~표 22, 그림 29~그림 32). 분석 대상 시군구 수는 1996년은 214개, 2001년은 216개, 2006년은 218개이며 이는 전국 시군구에서 부산의 16개 구·군을 제외한 수치이다.

부산으로 전입 초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부산과 가까운 경남에 위치한 중소도시들이며, 전출 초과를 보이는 김해시·울산시·양산시·창원시·거제시 등은 부산과 가까이 입지한 산업이 발달된 도시들이다. 한편 김경수(2000b)에 의하면 부산에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경남 김해시와 경남 양산시는 부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김해시와 양산시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²⁾ 3개 년도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1,000명 이상의 전출 초과를 보인 지역은 경남 양산시·거제시·진해시이며, 서울 강남구·서초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고양시·수원시 등도 지속적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크다. 부산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의 순이동 규모는 작은 반면 부산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지역으로의 순이동 규모는 매우 크다. 100명 이상이 부산으로 전입 초과를 보인 지역은 1996년 11개 시군, 2001년 7개 시군, 2006년 4개 시군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 김해시와 양산시는 경남 택지개발지구지정 면적(3,236ha)의 80.5%에 해당하는 2,606ha가 지정되어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의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김해시와 양산시 거주가구의 이주 동기는 '직장 및 사업상' '주택 마련'을 위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자연환경 양호', '자녀양육 및 교육'등도 포함된다(김경수, 2000b).

<표 20> 부산의 전입·전출 초과 30개 시군구(1996년)

(단위: 명)

전입 초과			전출 초과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경남 밀양시	2,733	2,335	398	경남 김해시	11,308	23,966	-12,658
경남 남해군	1,427	1,087	340	경남 울산시	9,792	16,712	-6,920
경남 통영시	1,993	1,680	313	경남 양산시	10,750	15,433	-4,683
경남 고성군	989	772	217	경남 창원시	5,175	8,767	-3,592
경남 창녕군	1,143	933	210	경남 거제시	2,343	4,229	-1,886
경남 산청군	729	523	206	경북 경주시	1,916	2,711	-795
전남 고흥군	566	364	202	서울 강남구	1,163	1,951	-788
경남 하동군	1,170	1,021	149	서울 서초구	881	1,468	-587
경남 의령군	623	488	135	경기 성남시	1,644	2,203	-559
경남 함천군	808	685	123	경남 진해시	1,634	2,190	-556
경남 함양군	632	512	120	서울 관악구	1,081	1,632	-551
강원 태백시	255	157	98	서울 마포구	729	1,271	-542
경남 진주시	2,778	2,682	96	경북 구미시	1,071	1,555	-484
강원 정선군	168	89	79	경기 고양시	1,157	1,611	-454
전남 해남군	234	163	71	서울 서대문구	698	1,149	-451
경북 예천군	182	112	70	경기도 안산시	986	1,410	-424
경북 봉화군	201	134	67	경북 포항시	2,499	2,908	-409
경남 거창군	742	684	58	대전 유성구	309	705	-396
전남 신안군	141	98	43	충남 천안시	411	768	-357
전북 부안군	106	65	41	전남 광양시	582	933	-351
전남 완도군	288	247	41	전남 순천시	645	987	-342
전남 보성군	223	184	39	충남 논산시	246	580	-334
전북 진안군	82	43	39	경북 경산시	525	852	-327
강원 동해시	305	269	36	경기 수원시	1,638	1,948	-310
경남 사천시	1,504	1,469	35	대전 서구	624	922	-298
전북 무주군	108	75	33	충남 아산시	208	503	-295
경북 문경시	237	204	33	경기 용인시	470	765	-295
경북 울릉군	91	60	31	서울 종로구	382	668	-286
전남 여천군	218	188	30	서울 송파구	1,491	1,776	-285
대구 서구	815	787	28	서울 양천구	812	1,095	-283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년.

<표 21> 부산의 전입·전출 초과 30개 시군구(2001년)

(단위: 명)

전입 초과				전출 초과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경남 남해군	1,220	735	485	경남 김해시	12,445	18,253	-5,808
경남 진주시	2,796	2,396	400	경남 양산시	11,097	16,690	-5,593
경남 마산시	3,403	3,138	265	서울 관악구	1,145	2,469	-1,324
경남 통영시	1,677	1,412	265	울산 남구	3,324	4,530	-1,206
경남 창원군	861	679	182	경기 수원시	1,366	2,566	-1,200
경남 고성군	826	702	124	경남 진해시	1,635	2,779	-1,144
경북 포항시	2,241	2,138	103	서울 강남구	1,254	2,306	-1,052
경남 합천군	619	525	94	경기 고양시	1,368	2,322	-954
경남 거창군	621	532	89	경기 성남시	1,330	2,269	-939
경남 사천시	1,289	1,210	79	경남 거제시	2,579	3,509	-930
전남 고흥군	440	362	78	울산 울주군	3,180	4,105	-925
경남 산청군	532	469	63	서울 마포구	706	1,457	-751
대구 달서구	1,357	1,302	55	서울 송파구	1,122	1,798	-676
경남 함양군	482	428	54	서울 강서구	755	1,412	-657
경남 의령군	445	391	54	경기 안산시	868	1,510	-642
전남 영광군	147	102	45	서울 영등포구	598	1,215	-617
경북 영주시	287	244	43	경남 창원시	4,777	5,382	-605
경북 예천군	168	128	40	울산 중구	1,710	2,313	-603
경북 청도군	428	390	38	경기 용인시	785	1,388	-603
대구 서구	600	562	38	서울 서대문구	687	1,288	-601
경북 의성군	195	158	37	서울 서초구	832	1,431	-599
충남 당진군	139	102	37	서울 동작구	699	1,263	-564
충북 제천시	195	160	35	경북 구미시	1,081	1,622	-541
경북 울릉군	91	57	34	울산 동구	1,195	1,721	-526
전남 보성군	182	149	33	서울 광진구	656	1,172	-516
전남 장흥군	143	115	28	서울 성동구	475	964	-489
경북 봉화군	150	125	25	서울 동대문구	529	1,011	-482
충북 옥천군	85	62	23	서울 노원구	875	1,341	-466
충남 금산군	97	74	23	울산 북구	839	1,289	-450
경북 고령군	118	96	22	경기 부천시	933	1,381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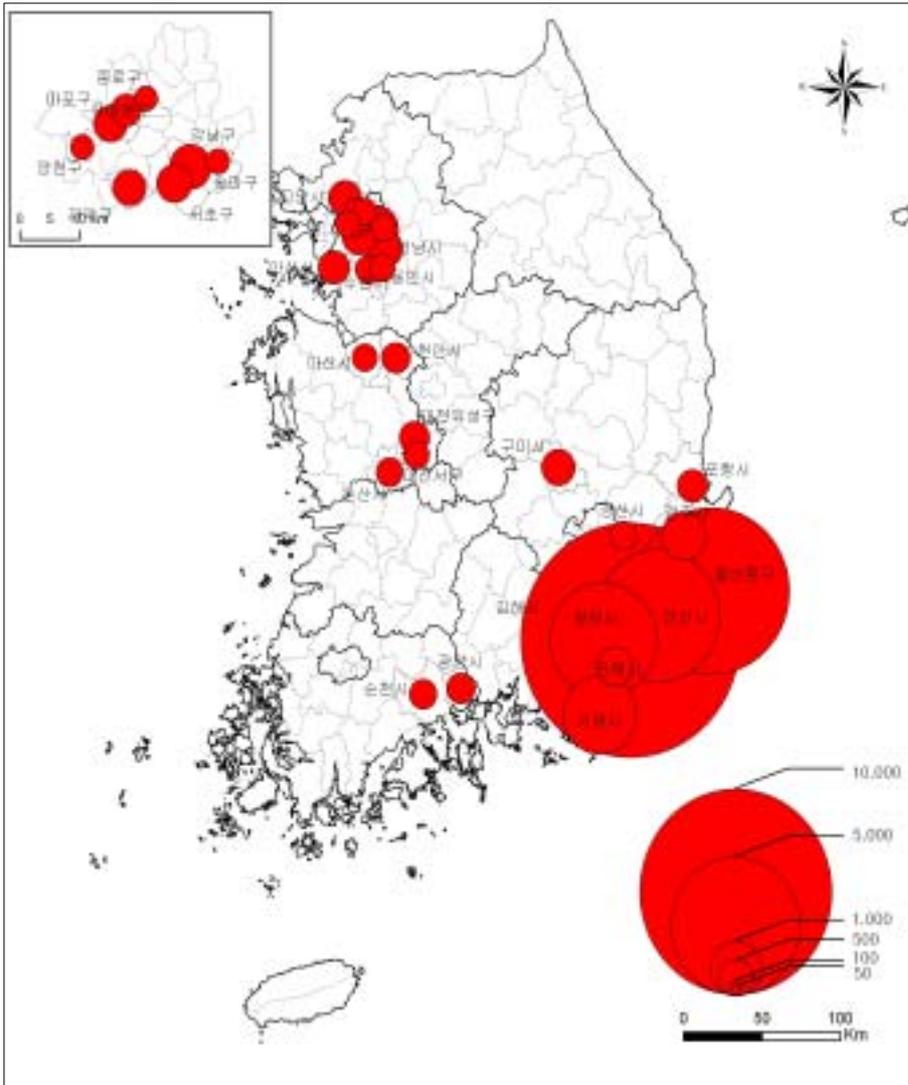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1년.

<표 22> 부산의 전입·전출 초과 30개 시군구(2006년)

(단위: 명)

전입 초과				전출 초과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경남 합천군	1,285	865	420	경남 김해시	13,543	18,070	-4,527
경남 진주시	2,644	2,321	323	경남 양산시	11,511	13,798	-2,287
경남 남해군	901	777	124	경남 거제시	2,926	4,725	-1,799
경북 울진군	428	307	121	경북 구미시	1,354	2,791	-1,437
대구 동구	839	759	80	경남 진해시	3,385	4,691	-1,306
광주 남구	199	129	70	서울 관악구	1,472	2,756	-1,284
전남 순천시	514	462	52	경기 수원시	1,643	2,714	-1,071
전북 전주시	413	373	40	경기 용인시	1,347	2,327	-980
전남 목포시	412	373	39	서울 강남구	1,542	2,504	-962
경북 영주시	231	194	37	경남 창원시	4,486	5,232	-746
전남 영광군	117	84	33	울산 동구	1,405	2,054	-649
대구 서구	428	396	32	서울 마포구	901	1,495	-594
제주 서귀포시	470	440	30	경북 칠곡군	414	955	-541
제주 제주시	1,344	1,314	30	경기 성남시	1,526	2,046	-520
전북 군산시	258	230	28	경기 고양시	1,525	2,043	-518
강원 삼척시	131	105	26	서울 동작구	766	1,278	-512
경북 안동시	330	307	23	경기 안산시	998	1,477	-479
경북 청송군	98	78	20	서울 강서구	795	1,260	-465
충북 옥천군	79	59	20	서울 서대문구	655	1,115	-460
경북 영천시	368	348	20	서울 영등포구	708	1,156	-448
전남 함평군	42	25	17	서울 동대문구	624	1,058	-434
강원 정선군	86	69	17	서울 성북구	696	1,115	-419
강원 태백시	119	103	16	서울 서초구	958	1,372	-414
전북 익산시	269	255	14	서울 양천구	675	1,074	-399
충북 영동군	101	87	14	경기 평택시	623	1,015	-392
전북 고창군	47	34	13	서울 송파구	1,041	1,433	-392
전북 완주군	108	96	12	서울 용산구	519	905	-386
강원 평창군	70	59	11	경기 화성시	389	751	-362
전북 장수군	74	63	11	서울 노원구	716	1,053	-337
전북 임실군	50	40	10	서울 광진구	708	1,044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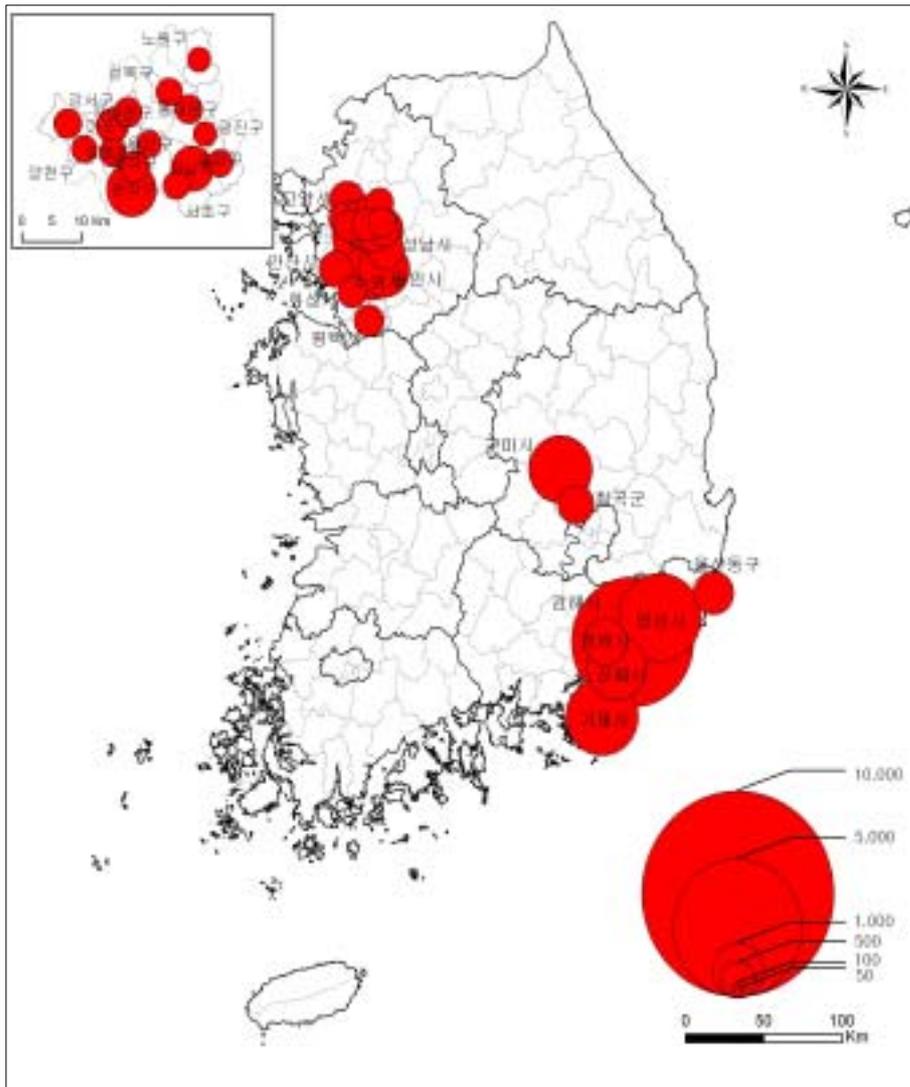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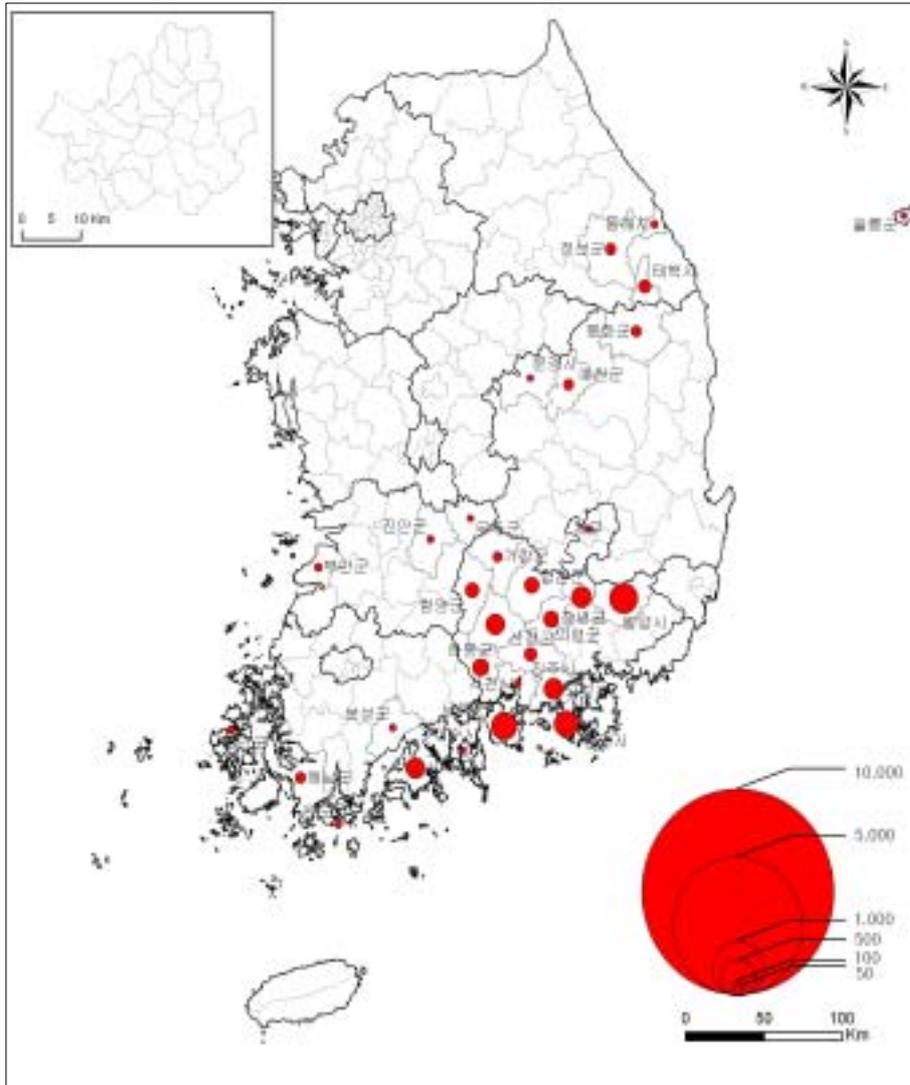
<그림 29> 부산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1996년)

6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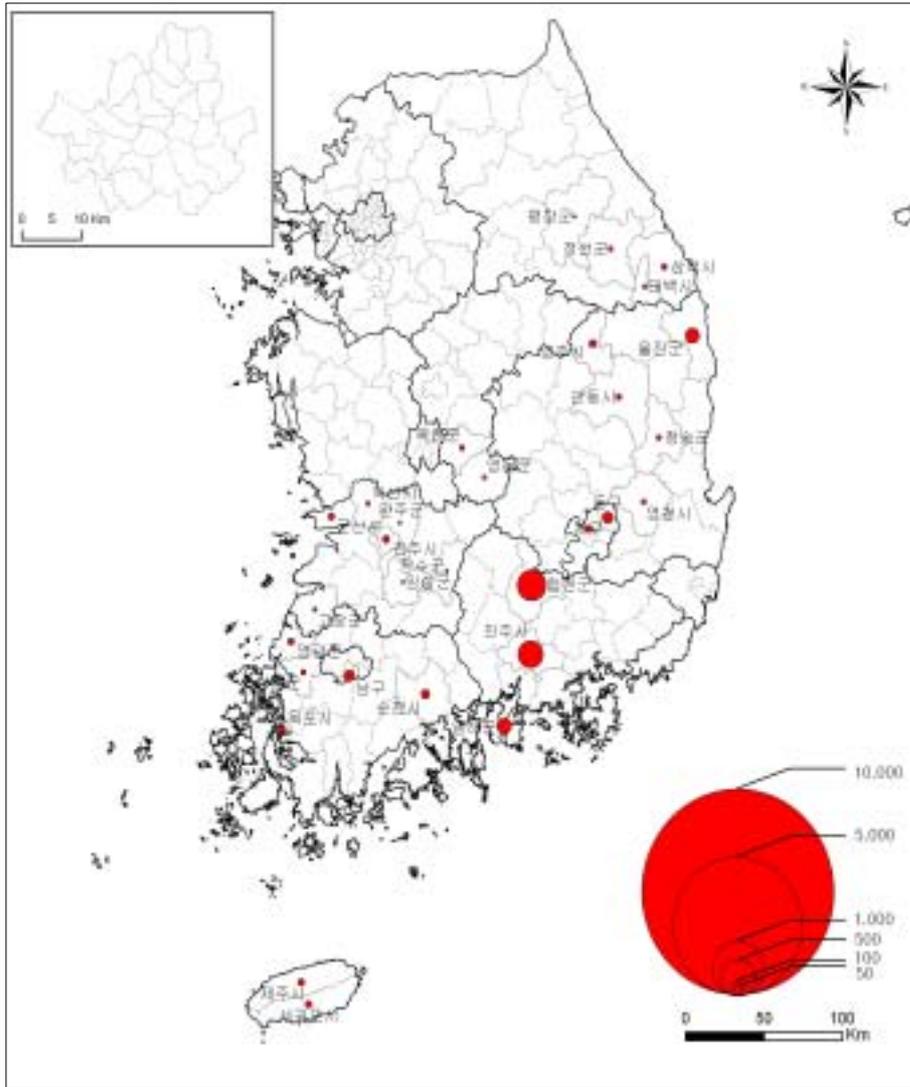
<그림 30> 부산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2006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년.

<그림 31> 부산의 전입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1996년)

6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그림 32> 부산의 전입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2006년)

V.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원인

1. 연령별 특성
2. 학령인구의 이동 특성
3. 가임여성의 이동 특성

V.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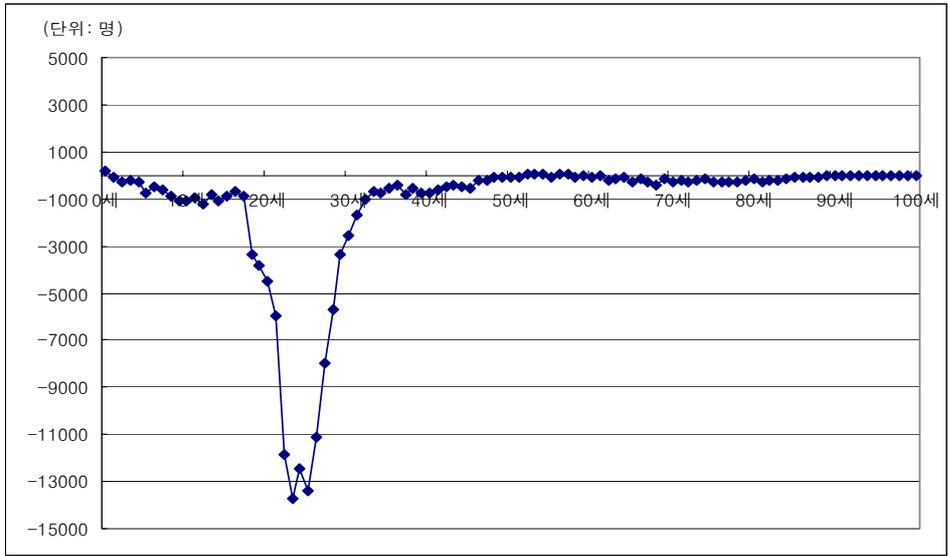
1. 연령별 특성

우선 2005년과 2007년 부산을 포함하는 비수도권의 각 세별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그림 33, 그림 34),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 비해 2007년의 경우 전출 초과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는 7세 이상에서 인구 유출이 시작되어 학령인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진다. 학령인구부터 시작된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은 대학진학과 맞물리는 10대 후반부터 20대에서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진학, 취업기회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순이동이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도권인구 유입과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은 전연령대의 문제라기보다는 10대와 20대의 인구 유출로 좁혀 볼 수 있다.

인구 유출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연령별 인구이동 패턴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5~그림 38). 서울은 순이동이 2005년 -51,007명, 2007년 -52,883명으로 전국 시도 중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데, 연령대별 특성이 뚜렷하다. 대부분의 연령에서 대규모의 인구 유출이 관찰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인 10~12세와 중학생인 13~15세, 그리고 20대에서 인구 유입이 뚜렷이 관찰된다. 반면 부산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출 초과가 관찰되는 가운데 10대 학령 인구와 20대 인구의 전출 초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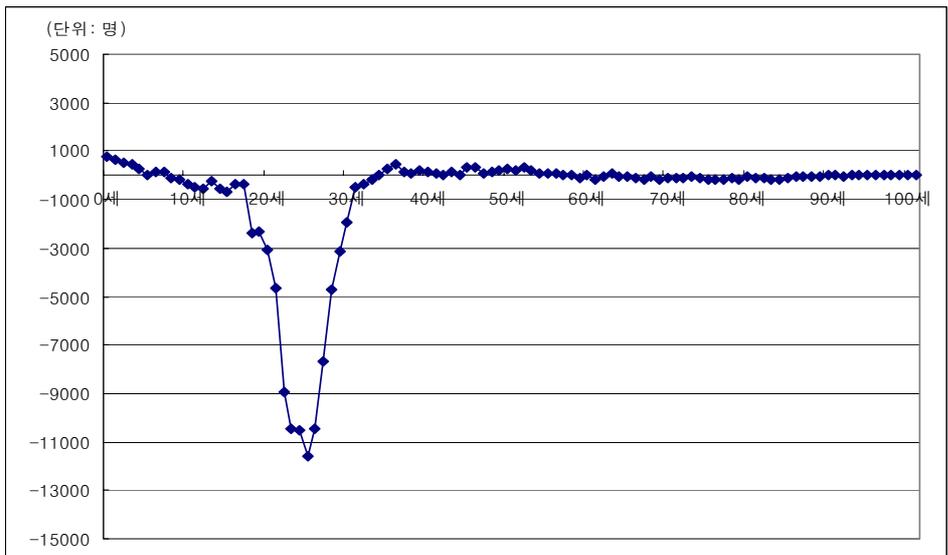
울산은 18세 전후로 진학에 따른 전출 초과가 나타나며,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전입 초과가 관찰된다(그림 39, 그림 40). 경남에서는 20대 이상 연령의 전출 초과와 30대 이상 인구의 전입 초과가 관찰된다(그림 41, 그림 42).

66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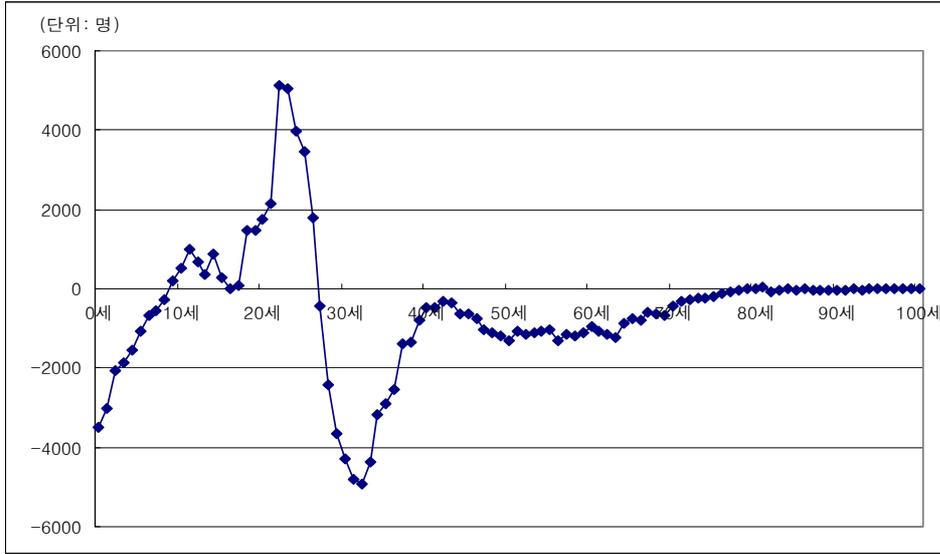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그림 33> 비수도권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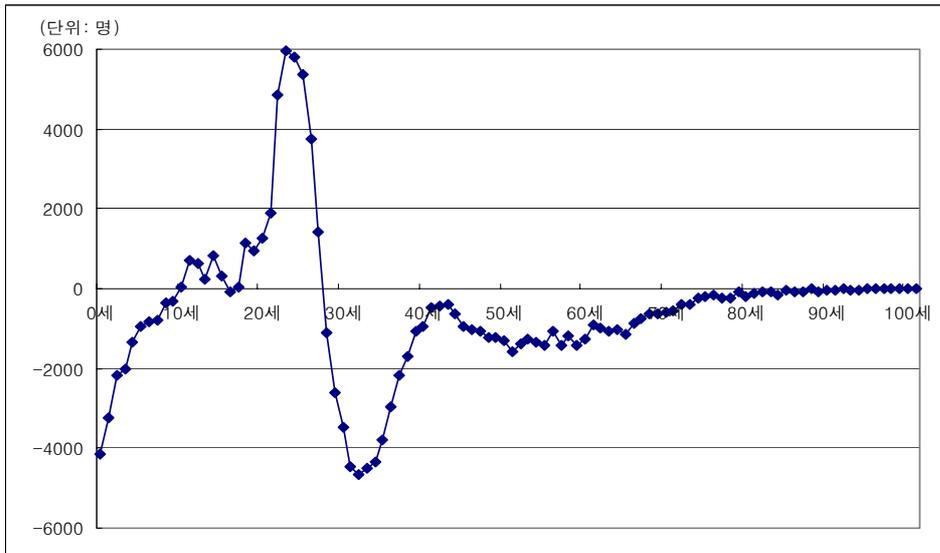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그림 34> 비수도권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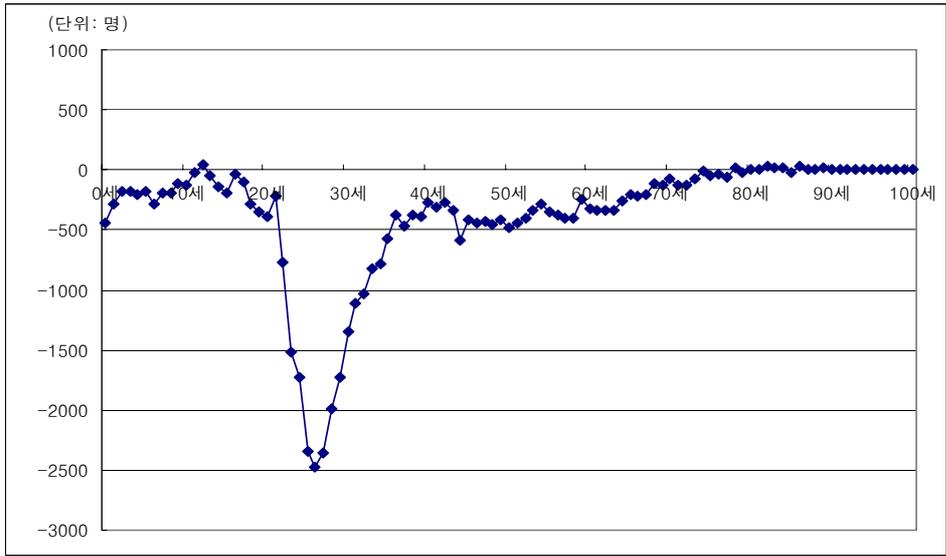
<그림 35> 서울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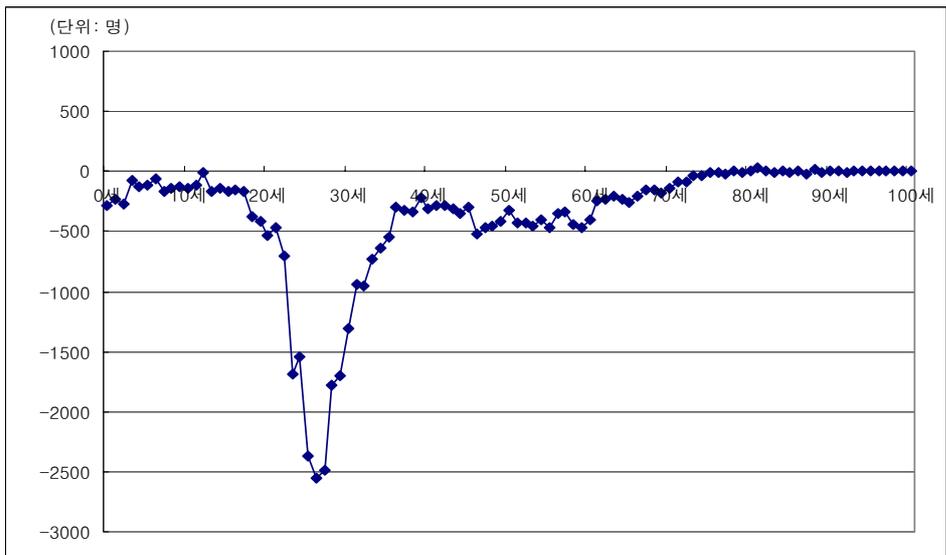
<그림 36> 서울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68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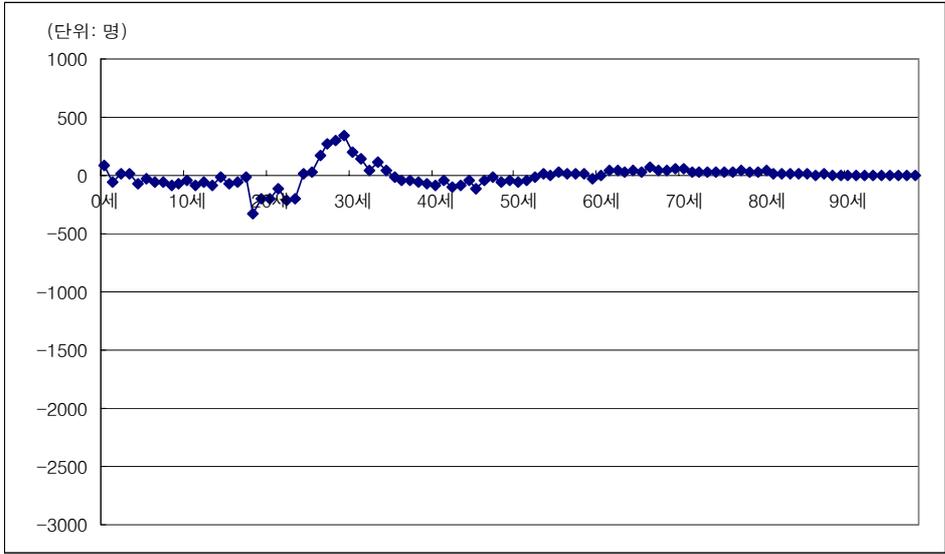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그림 37> 부산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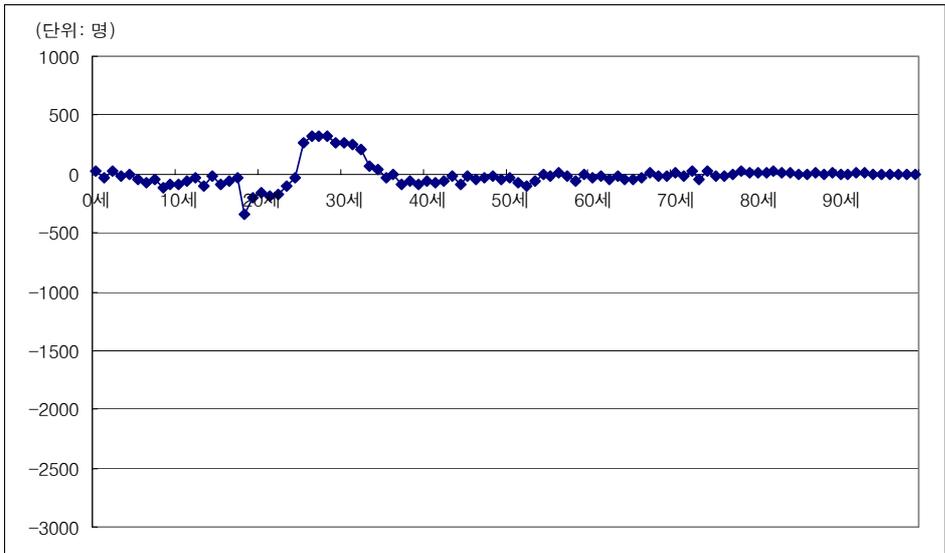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그림 38> 부산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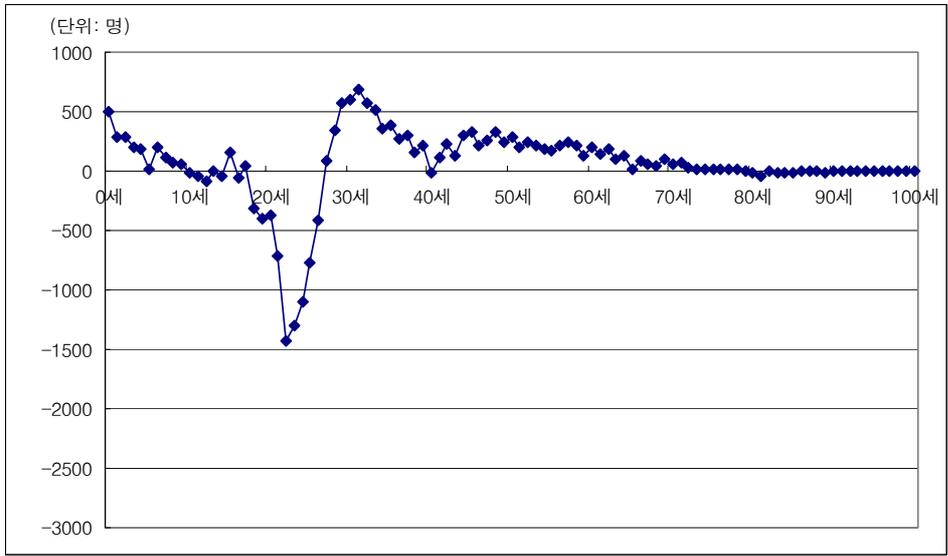
<그림 39> 울산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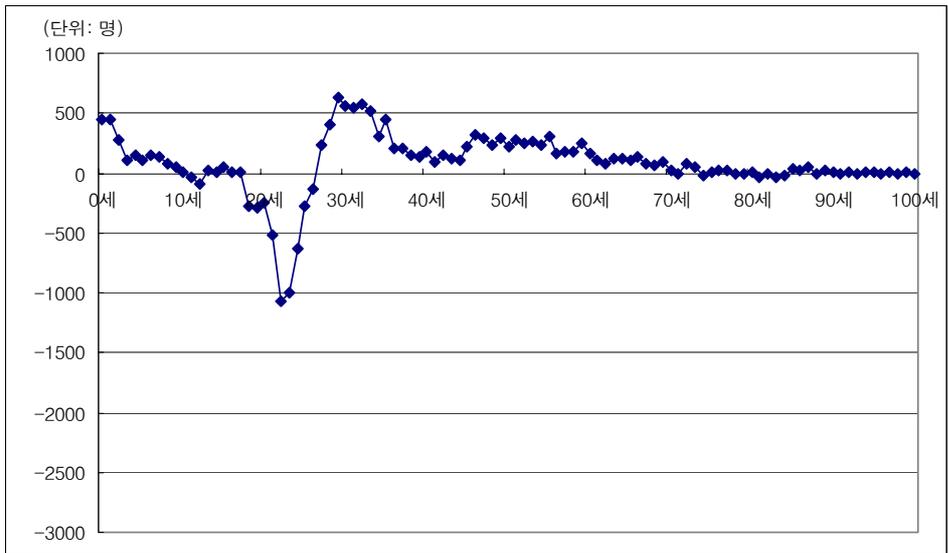
<그림 40> 울산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7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그림 41> 경남의 각 세별 순이동(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그림 42> 경남의 각 세별 순이동(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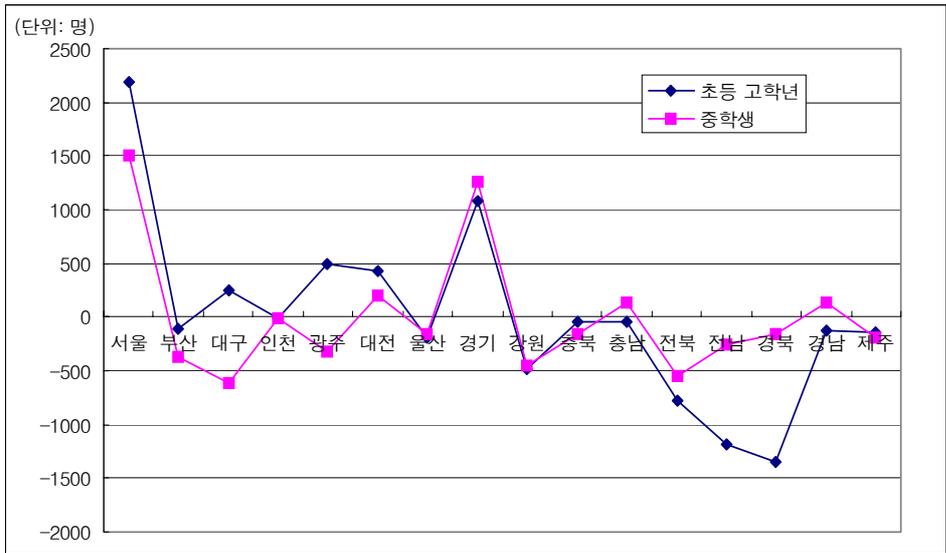
2. 학령인구의 이동 특성

1)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나 중학생 연령 인구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인구이동은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학령인구 이동의 시도별 특성을 2005년과 2007년의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과 중학교(13~15세) 연령대의 순이동을 통해 살펴보았다(그림 43, 그림 44). 2005년과 2007년 공통적으로 두 연령대에서 모두 서울로 학령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전남·경북과 함께 두 연령대 모두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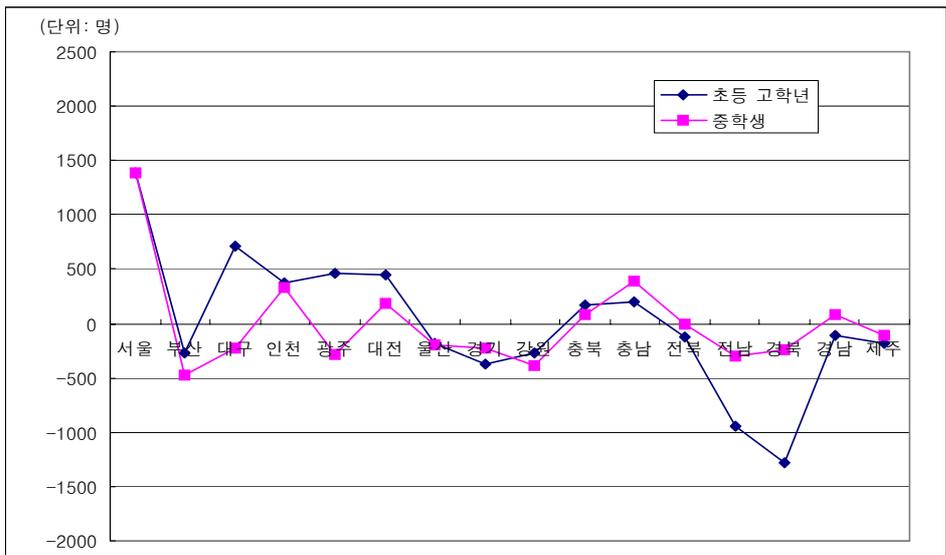
2003·2005·2007년 시군구별로 10~12세 인구의 순이동 상·하위 1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3). 3개 년도에서 모두 인구의 최대 유입지역은, 서울의 강남구·양천구·서초구, 대구 수성구 등인데, 이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들이다

7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그림 43> 10~12세 · 13~15세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그림 44> 10~12세 · 13~15세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7년)

<표 23> 10~12세 인구의 순이동 상·하위 10개 시군구(2003·2005·2007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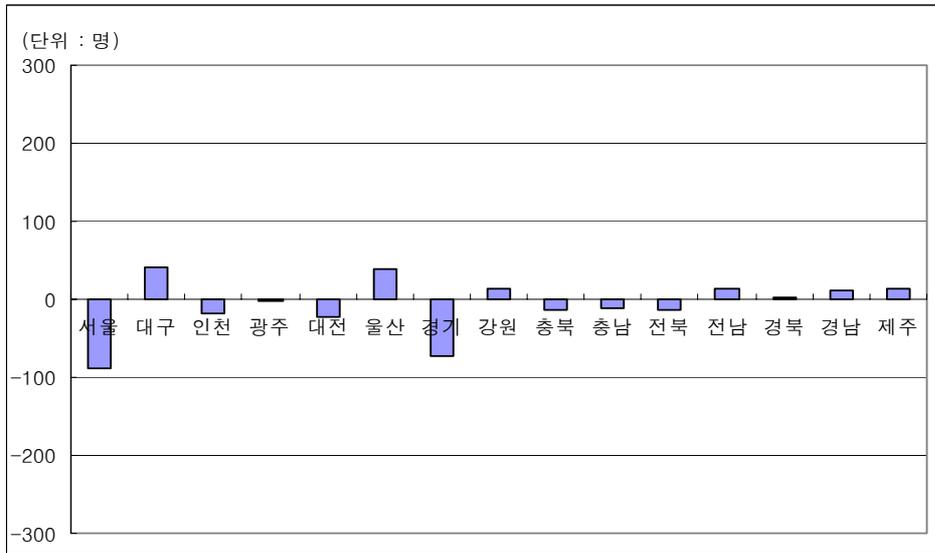
구분	2003년		2005년		2007년	
	시군구	순이동자수	시군구	순이동자수	시군구	순이동자수
상위 10개	서울 강남구	1,993	서울 강남구	1,598	경기 화성시	2,358
	대구 수성구	1,912	경기 용인시	1,300	대구 수성구	1,781
	서울 서초구	1,398	서울 양천구	1,075	서울 강남구	1,518
	전북 정읍시	1,267	대구 수성구	973	인천 남동구	1,291
	서울 양천구	1,245	서울 서초구	833	서울 송파구	1,003
	경기 용인시	1,176	경기 남양주시	812	서울 양천구	822
	경기 부천시	685	인천 연수구	622	부산 동래구	706
	경기 고양시	590	대전 유성구	560	서울 서초구	631
	경기 성남시	573	광주 남구	533	서울 노원구	480
	경기 안양시	524	전북 전주시	469	대구 달서구	389
하위 10개	경기 광명시	-653	경기 시흥시	-522	경기 수원시	-816
	경북 경산시	-577	경기 광명시	-458	경기 시흥시	-670
	인천 남동구	-552	서울 중랑구	-409	대구 북구	-492
	서울 중랑구	-519	인천 남구	-394	대구 동구	-409
	인천 부평구	-470	인천 계양구	-375	인천 부평구	-408
	서울 성동구	-436	제주 북제주군	-353	부산 사상구	-392
	인천 계양구	-436	경기 부천시	-319	서울 관악구	-386
	경기 시흥시	-417	서울 영등포구	-318	대전 대덕구	-385
	서울 영등포	-414	서울 금천구	-305	경기 부천시	-382
	부산 사상구	-390	서울 구로구	-295	서울 성동구	-377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부산의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나 중학생 연령 인구의 이동 지역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45 ~그림 48>과 같다(울산과 경남 학령인구의 이동은 부록 1 참조). 우선 2005년 부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교육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경기로의 유출 경향이 관찰된다(그림 45). 울산과 대구 순으로 전입 초과가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그 인구 규모가 전출 초과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다. 2007년에는 경기·대전·서울 지역으로 전출 초과가 발생하였다(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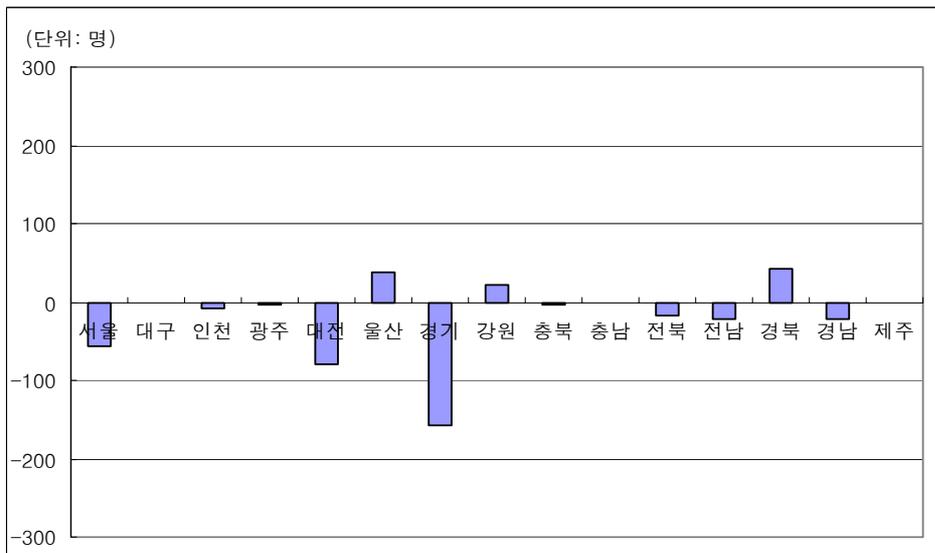
2005·2007년 중학생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서울·경기·경남으로의 유출 경향이 나타난다(그림 47, 그림 48). 경남으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서울, 경기 순이다.

74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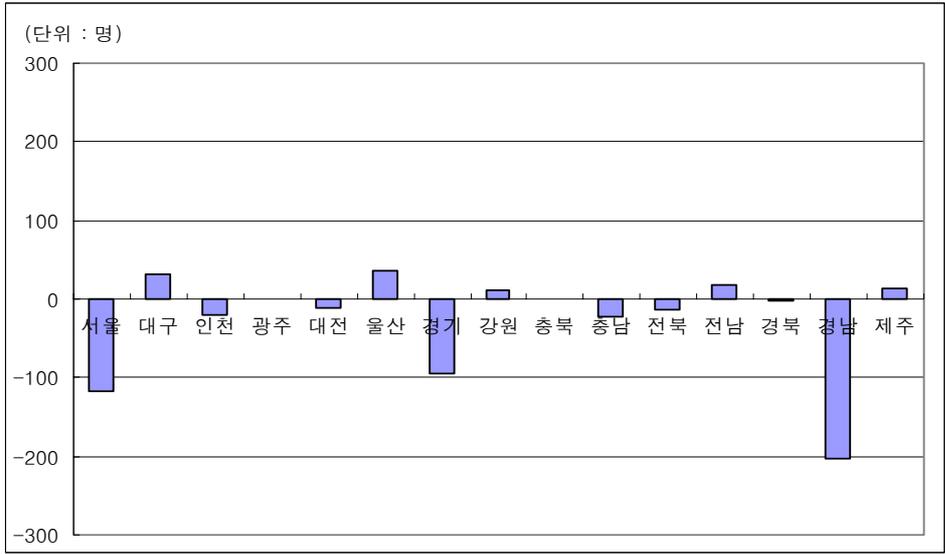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그림 45> 부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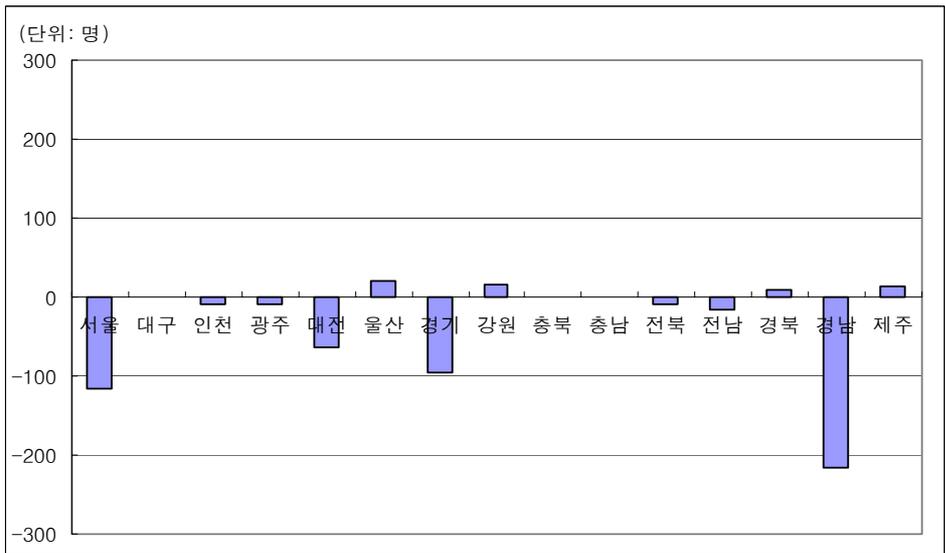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그림 46> 부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7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그림 47> 부산 중학생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그림 48> 부산 중학생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7년)

2) 대학진학 인구

부산 4개 사례 고등학교의 2008년 지역별 진학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4). 여기에서 A사례 고등학교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 서울로의 진학자수가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A고등학교의 성적-지역별 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교 10등까지 의대 진학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로 진학하고 있어, 인구이동의 선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25).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사례고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표 24> 부산 4개 사례 고등학교의 지역별 진학 현황(2008년)

(단위: 명)

구분	A고 10개 학급	B고 8개 학급	C고 12개 학급	D고 10개 학급
서울	35	8	14	10
인천	4	0	0	0
대구	2	2	1	1
대전	1	2	0	0
광주	3	2	0	0
울산	11	0	1	0
경기	1	4	1	4
강원	4	0	0	0
충남	1	3	0	3
충북	1	0	0	4
전북	1	2	0	1
전남	1	1	0	0
경북	2	8	7	5
경남	39	28	11	25
제주	1	2	0	0
부산	212	181	337	230
합계	319	243	372	283

자료: 사례 고등학교 입시 자료, 2008년.

<표 25> 부산 A 사례 고등학교의 성적-지역별 대학 진학 현황(2008년)

(단위: 명)

구분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1~10등	7	-	-	-	-	-	-	1 (의대)	-	-	-	-	-	-	-	2 (의대)
11~20등	7	-	-	-	-	-	-	-	-	-	-	-	1 (포항 공대)	-	-	2
21~30등	7	1	-	-	-	-	-	-	-	-	-	-	-	-	-	2
31~40등	5	-	-	-	-	-	-	-	-	-	-	-	-	-	-	5
41~50등	3	1	-	-	-	-	-	-	-	-	-	-	-	2	-	4
51~60등	3	-	-	-	-	-	-	1	-	-	-	-	-	2	-	4
61~70등	-	1	-	-	-	-	-	-	1	-	-	-	-	1	-	7
71~80등	-	1	-	1	-	-	1	-	-	-	-	-	-	-	-	7
81~90등	-	-	-	-	-	-	-	-	-	-	-	-	-	3	-	7
91~100등	1	-	-	-	-	-	-	1	-	-	-	-	-	2	-	6
101~110등	1	-	1	-	-	-	-	-	-	-	-	-	-	3	-	5
111~120등	-	-	-	-	-	2	-	-	-	1	-	-	-	-	-	7
121~130등	1	-	-	-	-	-	-	1	-	-	-	-	-	2	-	6
131~140등	-	-	1	-	-	1	-	-	-	-	-	-	-	-	-	8
141~150등	-	-	-	-	-	4	-	-	-	-	-	-	-	-	-	6
151~160등	-	-	-	-	1	1	-	-	-	-	-	-	-	2	-	6
161~170등	-	-	-	-	-	-	-	-	-	-	-	-	-	1	-	9
171~180등	-	-	-	-	-	1	-	-	-	-	-	-	-	2	1	6
181~190등	-	-	-	-	-	1	-	-	-	-	-	-	1	2	-	6
191~200등	-	-	-	-	-	1	-	-	-	-	-	-	-	1	-	8
201~210등	-	-	-	-	1	-	-	-	-	-	-	-	-	-	-	9
211~220등	-	-	-	-	-	-	-	-	-	-	-	-	-	2	-	8
221~230등	-	-	-	-	-	-	-	-	-	-	-	-	-	3	-	7
231~240등	-	-	-	-	-	-	-	-	-	-	-	-	-	2	-	8
241~250등	-	-	-	-	-	-	-	-	-	-	-	-	-	-	-	10
251~260등	-	-	-	-	1	-	-	-	-	-	-	-	-	1	-	8
261~270등	-	-	-	-	-	-	-	-	-	-	1	-	-	-	-	9
271~280등	-	-	-	-	-	-	-	-	-	-	-	-	-	1	-	9
281~290등	-	-	-	-	-	-	-	-	-	-	-	-	-	2	-	8
291~300등	-	-	-	-	-	-	-	-	-	-	-	1	-	1	-	8
301~310등	-	-	-	-	-	-	-	-	-	-	-	-	-	2	-	8
311~320등	-	-	-	-	-	-	-	-	-	-	-	-	-	2	-	7
합계	35	4	2	1	3	11	1	4	1	1	1	1	2	39	1	212

자료: 사례 고등학교 입시 자료, 2008년.

3. 가임여성의 이동 특성

1996년과 2006년 부산의 구·군별 가임여성의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6>.³⁾ 두 시기 모두 순이동이 각각 -14,202명, -12,153명으로 나타나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부산의 모든 지역에서 가임여성의 전출 초과가 나타났는데 1996년의 경우, 부산진구(-1,822), 금정구(-1,314), 남구(-1,279) 순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크며, 2006년에는 북구(-1,465), 부산진구(-1,342), 사하구(-1,308) 순으로 크다.

<표 26> 부산의 구·군별 가임여성의 순이동(1996·2006년)

(단위: 명)

구분	1996년				2006년			
	전입	전출	총이동	순이동	전입	전출	총이동	순이동
중구	530	743	1,273	-213	395	577	972	-182
서구	1,374	2,114	3,488	-740	931	1,476	2,407	-545
동구	1,124	1,733	2,857	-609	682	1,066	1,748	-384
영도구	1,419	2,254	3,673	-835	1,043	1,628	2,671	-585
부산진구	3,715	5,537	9,252	-1,822	3,884	5,226	9,110	-1,342
동래구	2,771	3,862	6,633	-1,091	2,312	3,220	5,532	-908
남구	2,495	3,774	6,269	-1,279	2,659	3,712	6,371	-1,053
북구	3,150	4,282	7,432	-1,132	2,759	4,224	6,983	-1,465
해운대구	3,866	4,173	8,039	-307	4,328	4,950	9,278	-622
사하구	4,029	4,814	8,843	-785	2,747	4,055	6,802	-1,308
금정구	3,234	4,548	7,782	-1,314	2,699	3,565	6,264	-866
강서구	771	1,382	2,153	-611	571	830	1,401	-259
연제구	1,981	3,057	5,038	-1,076	1,822	2,530	4,352	-708
수영구	1,763	2,729	4,492	-966	1,560	2,172	3,732	-612
사상구	2,897	4,027	6,924	-1,130	2,138	3,250	5,388	-1,112
기장군	871	1,163	2,034	-292	678	880	1,558	-202
계	35,990	50,192	86,182	-14,202	31,208	43,361	74,569	-12,153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2006년.

3) 본 연구에서 가임여성은 주 출산 연령층인 20~39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7> 부산에서 전출한 인구의 시도별 분포(1996·2006년)

(단위: 명, %)

전입시도	1996년		2006년			
	이동자수	비율	이동자수	비율	단독이동	단독이동 비율
서울	24,721	13.6	26,831	16.2	18,268	68.1
대구	7,256	4.0	5,307	3.2	3,203	60.4
인천	3,836	2.1	3,504	2.1	2,143	61.2
광주	1,844	1.0	1,203	0.7	730	60.7
대전	3,074	1.7	2,590	1.6	1,474	56.9
울산	-	-	12,609	7.6	7,757	61.5
경기	16,897	9.3	21,814	13.1	13,295	60.9
강원	3,223	1.8	2,364	1.4	1,394	59.0
충북	2,386	1.3	1,844	1.1	1,132	61.4
충남	3,850	2.1	3,635	2.2	2,307	63.5
전북	2,562	1.4	1,627	1.0	1,046	64.3
전남	6,192	3.4	3,710	2.2	2,266	61.1
경북	13,235	7.3	12,482	7.5	8,586	68.8
경남	90,375	49.7	64,412	38.8	33,869	52.6
제주	2,476	1.4	2,086	1.3	1,355	65.0
계	181,927	100.0	166,018	100.0	98,825	59.5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2006년.

주: 1996년 자료는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단독이동자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음, 단독이동 비율은 이동자 수 대비 단독이동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그렇다면 부산에서 빠져나간 가임여성들은 어느 지역으로 움직였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표 27>을 통해서 부산에서 전출한 인구의 시도별 분포를 파악해 보았다. 2006년 부산의 전출 인구는 166,018명으로 이 중 38.8%에 해당하는 64,412명이 경남으로 이동하였으며, 다음으로 16.2%가 서울로, 13.1%가 경기도로, 그리고 7.6%가 울산으로 이동하여 전출 인구의 절반 가량인 46.4%가 부산 인접지역인 울산과 경남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1996년과

비교해 보면, 경남으로 이동한 비율은 10.9%가량 줄어들었지만 이 중 7.6%가 광역시로 승격하여 경남에서 분리된 울산으로 이동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울산과 경남으로 이동한 비율은 약 3%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한 비율은 약 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에서 전출한 인구를 흡수하는 수도권 지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서 전출한 가임여성이 이동한 지역은 <표 28>에서 볼 수 있다. 2006년 부산에서 전출한 가임여성은 43,361명으로 이는 전체 전출 인구 중 26.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는 1996년의 27.6%보다는 약간 감소한 것이다. 이들이 이동한 지역을 보면 경남이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18.8%), 경기도(13.5%), 울산(7.8%) 순이다. 1996년과 비교해보면 경남으로 이동한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한 비율은 증가한 것이 <표 27>에서 살펴본 전체 인구의 이동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전체 인구에 비해서 가임여성이 경남으로 이동한 비율은 1.9% 낮은 반면에 서울로 이동한 비율은 2.6% 높았다. 반면에 경기도와 울산으로 이동한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동자 중 60~70% 가량이 단독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지역을 보면 경남이 61.2%로 가장 낮으며 서울이 77.5%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전체인구 뿐 아니라 가임여성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경남 지역에서 단독이동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 지역으로 가구 전체의 이동이 높음을 역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부산에서 전출한 가임여성의 이동지역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그림 49, 그림 50), 전출 초과 상위 30개 지역이 경남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의 경우에는 밀양시와 마산시, 창원시, 고성군, 양산시 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2006년에는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서울 관악구, 경북 구미시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아져 이동지역이 다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림 51>과 <그림 52>는 1996년과 2006년의 부산의 가임여성 전입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 지역인데, 그 양상이 전출 초과 지역과 명확히 대비됨을 알 수 있다. 전입 인구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그 지역 또한 분산되어 있으며 대부분 군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표 28> 부산에서 전출한 가임여성의 시도별 분포(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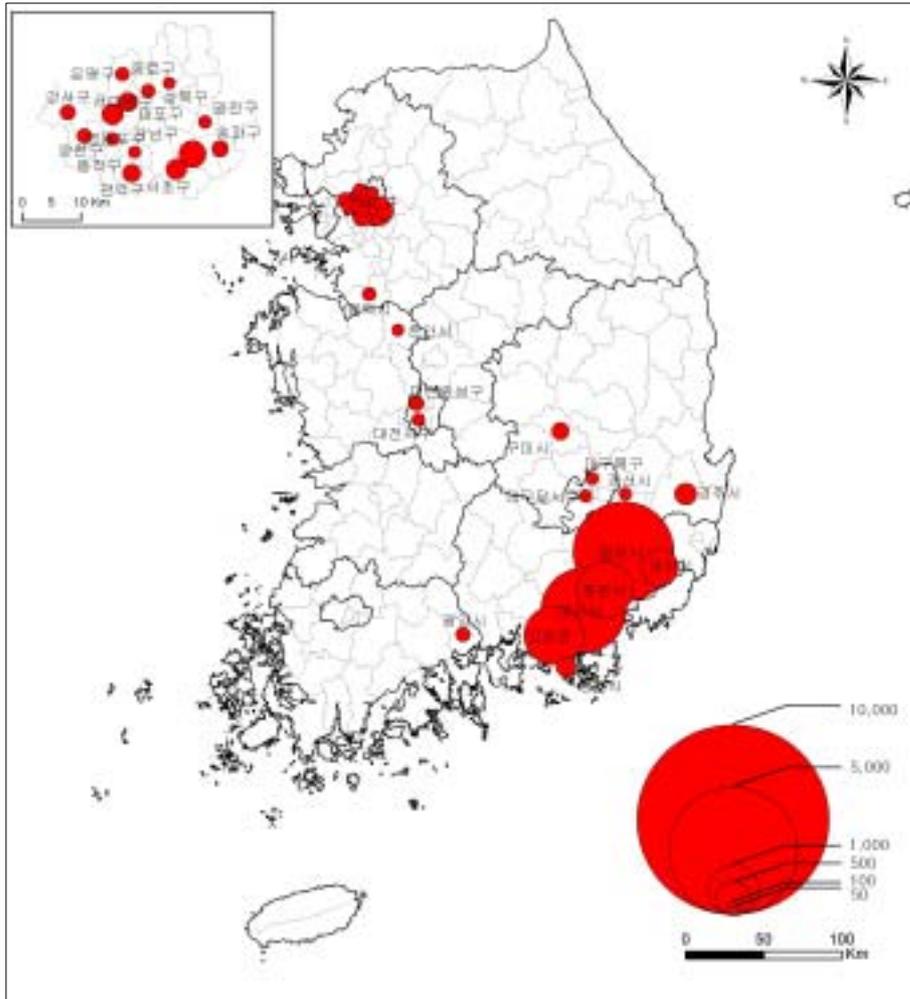
(단위: 명, %)

전입시도	1996년		2006년			
	이동자수	비율	이동자수	비율	단독이동자	단독이동 비율
서울	7,464	14.9	8,143	18.8	6,309	77.5
대구	2,167	4.3	1,487	3.4	1,055	70.9
인천	1,061	2.1	905	2.1	611	67.5
광주	533	1.1	320	0.7	225	70.3
대전	829	1.7	676	1.6	448	66.3
울산	-	-	3,398	7.8	2,377	70.0
경기	4,918	9.8	5,852	13.5	4,037	69.0
강원	829	1.7	526	1.2	341	64.8
충북	598	1.2	480	1.1	345	71.9
충남	989	2.0	810	1.9	549	67.8
전북	650	1.3	362	0.8	243	67.1
전남	1,647	3.3	736	1.7	459	62.4
경북	3,536	7.0	3,150	7.3	2,377	75.5
경남	24,266	48.3	16,019	36.9	9,808	61.2
제주	705	1.4	497	1.1	352	70.8
계	50,192	100.0	43,361	100.0	29,536	68.1

주: 1996년 자료는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단독이동자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음, 단독이동 비율은 이동자 수 대비 단독이동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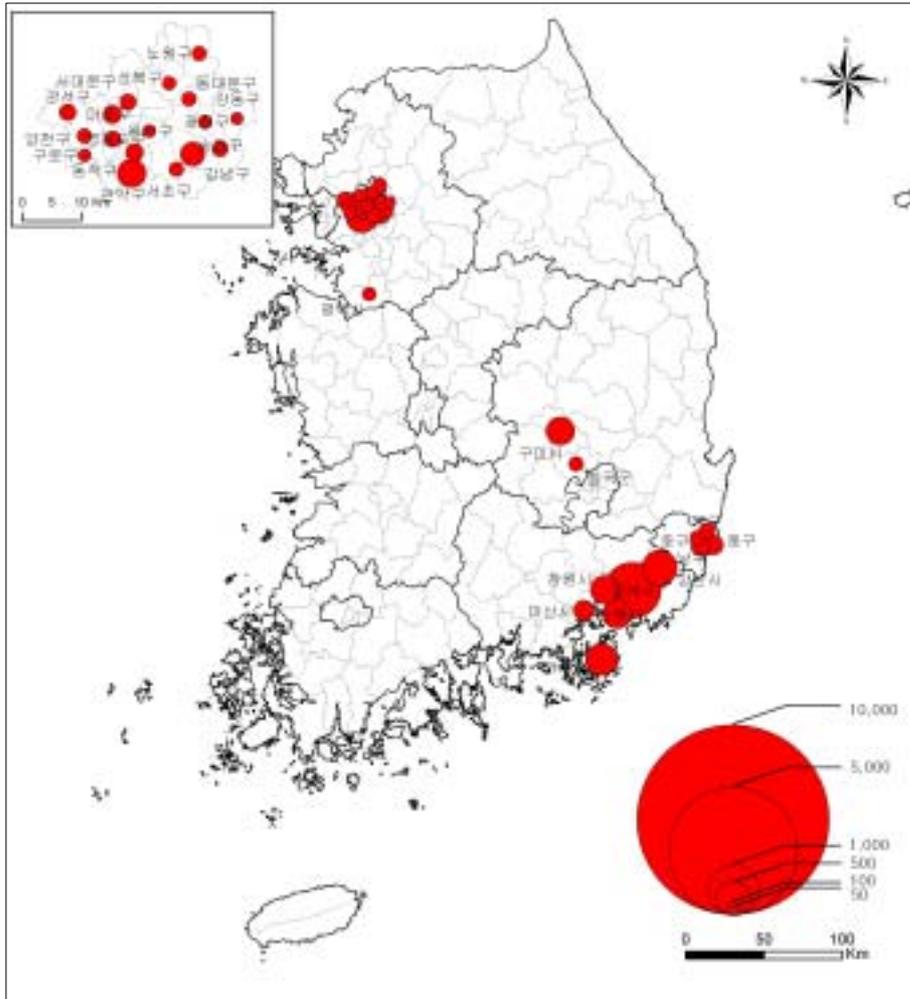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8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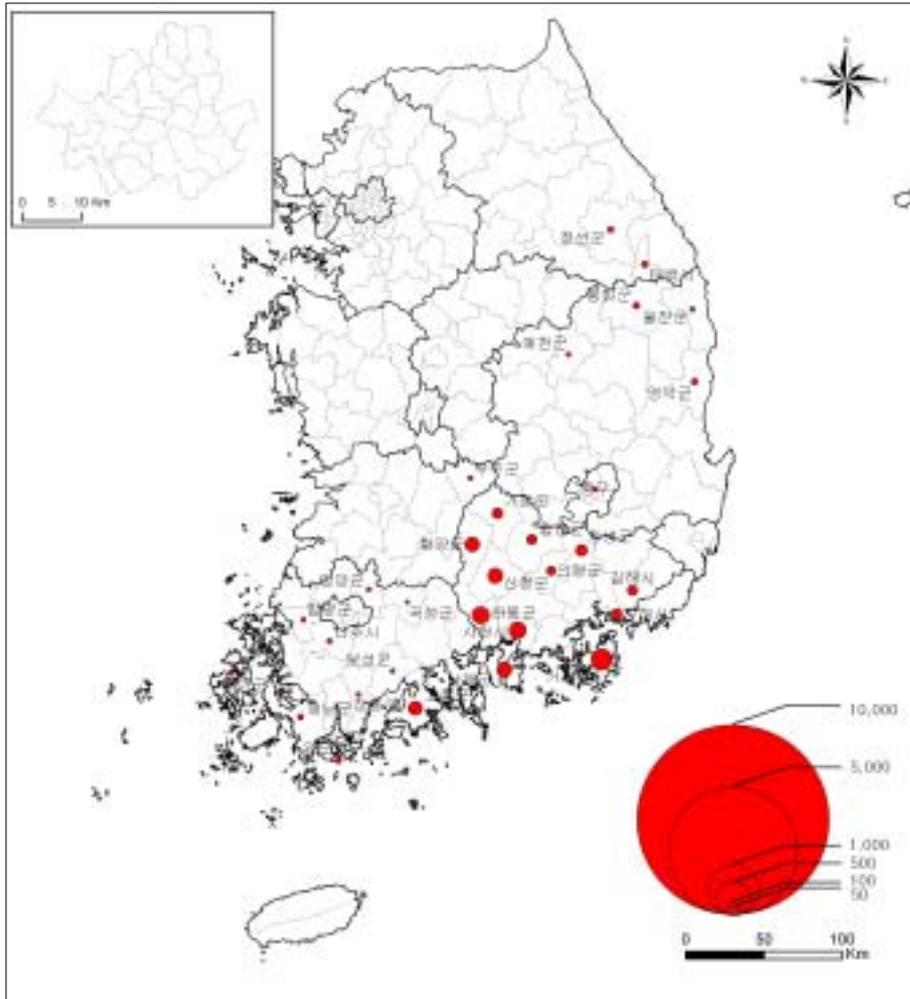
<그림 49> 부산 가임여성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1996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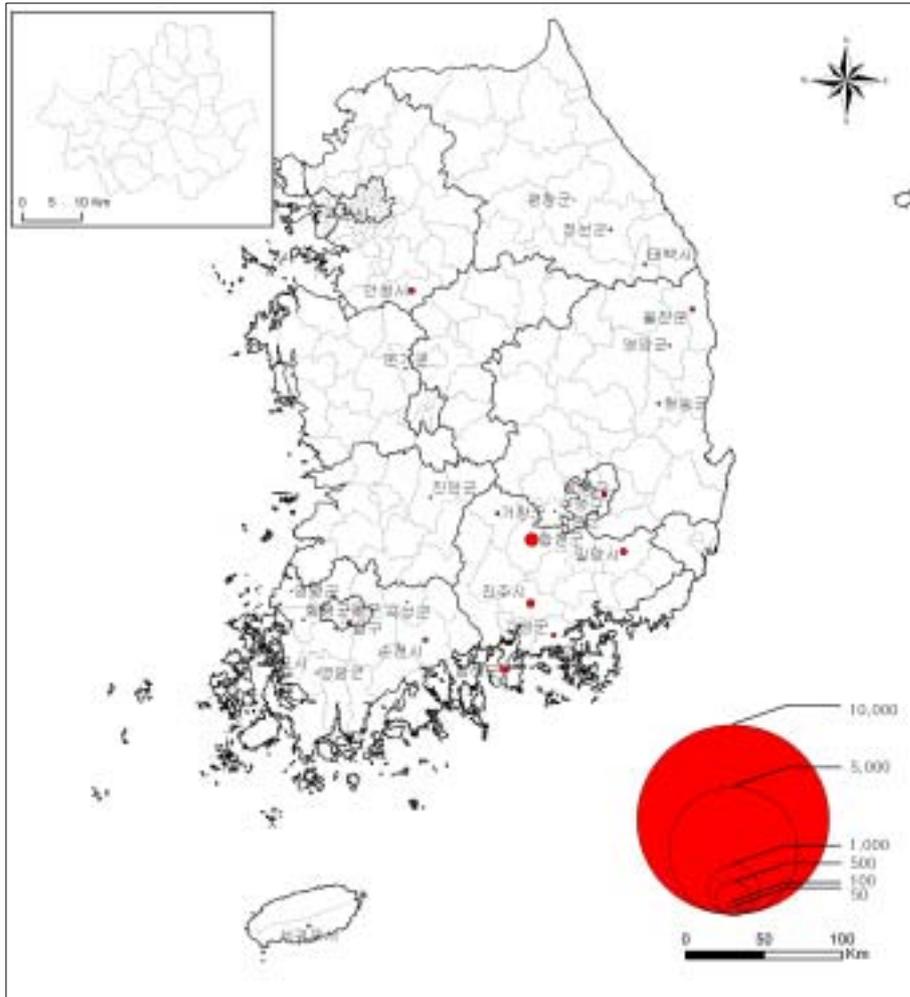
<그림 50> 부산 가임여성의 전출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2006년)

84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1996년.

<그림 51> 부산 가임여성의 전입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1996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6년.

<그림 52> 부산 가임여성의 전입 초과 상위 30개 시군구(2006년)

Ⅵ. 이동 가구의 특성과 원인

1. 이동 가구의 특성
2. 인구이동 원인 분석

Ⅵ. 이동 가구의 특성과 원인

1. 이동 가구의 특성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⁴⁾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의 5년전 거주지와 조사시점의 거주지를 이용하여 부산 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이동자와 이동 가구를 <표 29>와 같은 7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와 경남·울산과의 이동 가구, 수도권과의 이동 가구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을 통해 이동자의 연령, 학력,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00년과 2005년의 표본자료를 통해 가구주(연령, 학력, 직업)와 가구(가구원수, 세대구성), 주거(주택 점유 형태)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29> 부산 대도시권 이동 가구의 구분

구분	5년전 거주지	조사시점 거주지
부산 계속 거주	부산	부산
부산으로 전입	경남	부산
	울산	부산
	수도권	부산
부산에서 전출	부산	경남
	부산	울산
	부산	수도권

4)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2% 표본자료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10% 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

1) 이동자 특성

(1) 연령

전체 가구원의 연령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경남·울산·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5~19세이다(표 30). 이 연령대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4,849명)는 전출한 인구(3,555명)보다 많아 부산으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전입·전출을 비교해 보면 전출 인구가 1,826명으로 전입 인구 804명에 비해 1,02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전출 초과는 10대이하의 저연령층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는 모든 연령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주로 30대의 전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20대에서 특히 많은데, 20대의 전출 인구는 7,168명으로 전입 인구 1,164명에 비해 6,004명이 지난 5년간 순유출되어 20대의 학업·취업을 위한 순유출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산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전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20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남·울산과의 전출·입 인구를 보면, 부산은 20대 초반까지는 경남·울산에서 인구를 흡수하지만, 20대 후반부터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유출이 발생한다. 이와같은 전출 초과는 30대 초반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며, 지역별로 울산으로의 전출 초과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크고, 경남으로의 전출 초과는 30대 초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30> 부산 대도시권 이동자의 연령별 분포(2005년)

(단위: 명, %)

구분	부산 계속거주	전입			전출		
		경남→부산	울산→부산	수도권→부산	부산→경남	부산→울산	부산→수도권
5~9세	17,618 (5.8)	674 (5.5)	141 (4.8)	469 (8.0)	1,234 (6.8)	208 (4.9)	904 (5.5)
10~14세	21,779 (7.2)	683 (5.6)	113 (3.9)	564 (9.7)	875 (4.8)	136 (3.2)	714 (4.3)
15~19세	23,175 (7.7)	3,048 (24.8)	997 (34.0)	804 (13.8)	1,454 (8.0)	275 (6.5)	1,826 (11.0)
20~24세	22,754 (7.5)	2,799 (22.8)	679 (23.2)	496 (8.5)	1,954 (10.8)	621 (14.7)	3,762 (22.7)
25~29세	24,041 (7.9)	1,175 (9.6)	249 (8.5)	668 (11.5)	2,718 (15.0)	1,093 (25.9)	3,406 (20.6)
30~34세	22,694 (7.5)	898 (7.3)	182 (6.2)	783 (13.4)	2,729 (15.1)	720 (17.0)	2,290 (13.8)
35~39세	23,342 (7.7)	881 (7.2)	170 (5.8)	720 (12.4)	1,852 (10.2)	386 (9.1)	1,139 (6.9)
40~44세	26,659 (8.8)	713 (5.8)	137 (4.7)	458 (7.9)	1,229 (6.8)	189 (4.5)	757 (4.6)
45~49세	30,258 (10.0)	489 (4.0)	93 (3.2)	313 (5.4)	1,048 (5.8)	146 (3.5)	571 (3.4)
50~54세	25,073 (8.3)	263 (2.1)	47 (1.6)	183 (3.1)	773 (4.3)	111 (2.6)	339 (2.0)
55~59세	19,969 (6.6)	147 (1.2)	36 (1.2)	101 (1.7)	667 (3.7)	80 (1.9)	230 (1.4)
60~64세	15,434 (5.1)	115 (0.9)	28 (1.0)	67 (1.1)	515 (2.8)	71 (1.7)	215 (1.3)
65~69세	12,217 (4.0)	119 (1.0)	14 (0.5)	49 (0.8)	444 (2.5)	68 (1.6)	172 (1.0)
70세이상	17,923 (5.9)	297 (2.4)	46 (1.6)	153 (2.6)	610 (3.4)	119 (2.8)	249 (1.5)
계	302,936 (100.0)	12,301 (100.0)	2,932 (100.0)	5,828 (100.0)	18,102 (100.0)	4,223 (100.0)	16,574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2) 학력

부산 대도시권 이동자의 학력별 특성을 재학자와 졸업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 먼저 학교에 재학 중인 인구를 보면, 대학교 이상 재학생의 이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즉 대학 재학생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데, 대학 재학생 중 경남에서 부산으로 순유입한 인구는 1,729명이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순유입한 인구는 645명이다. 그러나 수도권으로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출 규모도 3,060명으로 경남과 울산에서의 순유입 규모보다도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단계에서는 초등학생의 순유출이 경남·울산·수도권 등 모든 지역으로 나타나고, 고등학생의 경우 경남과 울산에서 많이 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생이 아닌 졸업 인구의 인구이동 경향을 보면, 고졸(초대졸 포함)인구는 상대적으로 경남과 울산으로 전출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대졸이상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전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생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뿐만 아니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도 수도권으로 더 많이 전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1> 부산 대도시권 이동자의 학력별 분포(2005년)

(단위: 명, %)

구분	학력	부산 계속거주	전입			전출		
			경남→부산	울산→부산	수도권→부산	부산→경남	부산→울산	부산→수도권
재학 (휴학)	초등	23,130 (7.6)	794 (6.5)	152 (5.2)	493 (8.5)	1,300 (7.2)	205 (4.9)	1,154 (7.0)
	중등	13,229 (4.4)	376 (3.1)	62 (2.1)	460 (7.9)	407 (2.2)	61 (1.4)	300 (1.8)
	고등	18,845 (6.2)	1,684 (13.7)	470 (16.0)	558 (9.6)	1,006 (5.6)	173 (4.1)	787 (4.7)
	대학교 이상	16,026 (5.3)	3,513 (28.6)	1,059 (36.1)	593 (10.2)	1,784 (9.9)	414 (9.8)	3,653 (22.0)
졸업	초등	27,541 (9.1)	270 (2.2)	52 (1.8)	134 (2.3)	976 (5.4)	141 (3.3)	325 (2.0)
	중등	32,038 (10.6)	336 (2.7)	66 (2.3)	172 (3.0)	1,204 (6.7)	128 (3.0)	388 (2.3)
	고등	109,381 (36.1)	3,328 (27.1)	663 (22.6)	1,599 (27.4)	7,490 (41.4)	1,942 (46.0)	4,992 (30.1)
	대학교 이상	43,744 (14.4)	1,517 (12.3)	323 (11.0)	1,552 (26.6)	2,971 (16.4)	899 (21.3)	4,609 (27.8)
	초졸 미만	19,002 (6.3)	483 (3.9)	85 (2.9)	267 (4.6)	964 (5.3)	260 (6.2)	366 (2.2)
계	302,936 (100.0)	12,301 (100.0)	2,932 (100.0)	5,828 (100.0)	18,102 (100.0)	4,223 (100.0)	16,574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주: 중되는 하위 학력의 졸업에 포함하였으며, 4년제 미만 대학은 고졸에 포함시킴.

(3) 직업

전출입 인구를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표 32), 직업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 양상을 보인다. 먼저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과 같은 직군의 종사자는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과의 전입·전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규모가 크다. 이들 직종의 종사자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를 비교해 보면, 1,268명이 전입하고 4,249명이 전출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은 3천여명에 달한다.

다음으로 서비스 및 판매직과 단순노무 등 기타 직군의 종사자를 보면,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산에 계속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원의 경우에는 부산으로 전입보다는 전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는 경남지역으로, 기능원 및 장치·기계 조작원은 울산으로 전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32> 부산 대도시권 이동자의 직업별 분포(2005년)

(단위: %)

구분	부산 계속거주	전입			전출		
		경남→부산	울산→부산	수도권→부산	부산→경남	부산→울산	부산→수도권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16,200 (13.9)	533 (15.0)	93 (13.7)	445 (20.2)	1,014 (12.1)	215 (8.7)	1,379 (18.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392 (8.9)	505 (14.2)	89 (13.1)	382 (17.3)	937 (11.2)	325 (13.2)	1,224 (16.1)
사무직	18,596 (16.0)	623 (17.5)	110 (16.2)	441 (20.0)	1,300 (15.6)	333 (13.5)	1,646 (21.7)
서비스 및 판매직	28,134 (24.1)	726 (20.5)	141 (20.7)	387 (17.6)	1,300 (15.6)	292 (11.8)	1,239 (16.3)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원	31,382 (26.9)	898 (25.3)	201 (29.6)	398 (18.0)	3,291 (39.4)	1,217 (49.4)	1,726 (22.7)
단순노무 등 기타	11,853 (10.2)	265 (7.5)	46 (6.8)	152 (6.9)	513 (6.1)	83 (3.4)	375 (4.9)
계	116,557 (100.0)	3,550 (100.0)	680 (100.0)	2,205 (100.0)	8,355 (100.0)	2,465 (100.0)	7,58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2) 이동 가구의 특성

(1) 가구주의 특성

이동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3). 먼저 부산으로 전입한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보면, 경남과 울산, 수도권 모두에서 35~44세의 가구주가 가장 많다. 반면 부산에서 전출한 가구주의 연령은 세 지역 모두 25~34세 비율이 높으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전출 가구주는 34세 이하의 가구주가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입 가구주와 전출 가구주의 연령간 차이는 최근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2000년과 2005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입·전출 가구주의 연령 차이는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가 2000년에는 35~44세 가구주가 29.5%로 가장 많았는데, 2005년에는 45~55세 미만 가구주가 29.3%로 가장 많아지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산의 전입·전출 가구주의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학력별 전체 이동자의 특성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전체 이동자의 경우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전입보다는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고학력 인구의 유출이 대두되었으나, 이동 가구주의 학력분포 비율에서는 전입과 전출의 경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표 34). 하지만 전입·전출 가구주의 학력 분포 비율이 유사하더라도, 고학력 가구주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이 865명, 전출이 2,389명으로 절대 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고학력자의 유출 문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부산 계속 거주 가구의 가구주와 이동 가구주의 학력을 비교해 보면, 부산 계속 거주 가구주의 대졸이상 학력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가구주의 학력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가구주의 경우는 대졸이상 가구주 비율이 50%에 가깝다.

부산의 전입·전출 가구주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부산 계속거주 가구주에 비해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의 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35). 특히 이들 직업군의 경우 수도권과의 전출·입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1995~2000년에는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직군에서 수도권으로

의 전출이 가장 높았고, 2000~2005년에는 사무직군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원의 경우는 부산 계속거주 가구주의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직군은 경남과 울산에서 주로 전입하면서, 또한 동일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군에서의 가구주 이동은 1995~2000년에 비해 2000~2005년에 전입보다는 전출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경남으로의 전출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33> 부산 대도시권 이동 가구주의 연령 분포(2000·2005년)

(단위: %)

구분	부산 계속거주	전입			전출			
		경남→부산	울산→부산	수도권→ 부산	부산→경남	부산→울산	부산→ 수도권	
2000년	0~24세	291 (1.4)	71 (11.7)	19 (14.7)	16 (3.6)	50 (4.3)	13 (4.9)	129 (16.1)
	25~34세	2,932 (14.1)	206 (33.8)	38 (29.5)	166 (37.6)	458 (39.8)	137 (52.1)	384 (48.0)
	35~44세	6,158 (29.5)	219 (36.0)	43 (33.3)	185 (42.0)	375 (32.6)	71 (27.0)	169 (21.1)
	45~54세	5,578 (26.8)	64 (10.5)	20 (15.5)	45 (10.2)	118 (10.2)	22 (8.4)	75 (9.4)
	55~64세	3,692 (17.7)	28 (4.6)	4 (3.1)	19 (4.3)	90 (7.8)	15 (5.7)	27 (3.4)
	65세이상	2,189 (10.5)	21 (3.4)	5 (3.9)	10 (2.3)	61 (5.3)	5 (1.9)	16 (2.0)
	계	20,840 (100.0)	609 (100.0)	129 (100.0)	441 (100.0)	1,152 (100.0)	263 (100.0)	800 (100.0)
2005년	0~24세	1,464 (1.4)	671 (21.6)	134 (21.6)	98 (5.4)	254 (4.6)	45 (4.2)	894 (17.7)
	25~34세	10,597 (10.2)	757 (24.3)	151 (24.3)	586 (32.4)	1,780 (32.2)	488 (45.2)	2,288 (45.4)
	35~44세	23,785 (22.9)	896 (28.8)	175 (28.2)	639 (35.4)	1,636 (29.6)	282 (26.1)	983 (19.5)
	45~54세	30,471 (29.3)	485 (15.6)	94 (15.1)	304 (16.8)	886 (16.0)	127 (11.8)	518 (10.3)
	55~64세	21,258 (20.5)	146 (4.7)	41 (6.6)	100 (5.5)	546 (9.9)	63 (5.8)	200 (4.0)
	65세이상	16,364 (15.7)	154 (5.0)	26 (4.2)	80 (4.4)	433 (7.8)	74 (6.9)	156 (3.1)
	계	103,939 (100.0)	3,109 (100.0)	621 (100.0)	1,807 (100.0)	5,535 (100.0)	1,079 (100.0)	5,03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표 34> 부산 대도시권 이동 가구주의 학력 분포(2000·2005년)

(단위: %)

구분	부산 계속거주	전입			전출			
		경남→부산	울산→부산	수도권→부산	부산→경남	부산→울산	부산→수도권	
2000년	초졸이하	3,981 (19.1)	43 (7.1)	11 (8.5)	23 (5.2)	112 (9.7)	17 (6.5)	33 (4.1)
	중졸	3,521 (16.9)	47 (7.7)	3 (2.3)	17 (3.9)	107 (9.3)	20 (7.6)	43 (5.4)
	고졸	10,059 (48.3)	355 (58.3)	86 (66.7)	199 (45.1)	684 (59.4)	154 (58.6)	388 (48.5)
	대졸이상	3,279 (15.7)	164 (26.9)	29 (22.5)	202 (45.8)	249 (21.6)	72 (27.4)	336 (42.0)
	계	20,840 (100.0)	609 (100.0)	129 (100.0)	441 (100.0)	1,152 (100.0)	263 (100.0)	800 (100.0)
2005년	초졸이하	18,836 (18.1)	198 (6.4)	40 (6.4)	93 (5.1)	500 (9.0)	86 (8.0)	162 (3.2)
	중졸	15,961 (15.4)	203 (6.5)	34 (5.5)	81 (4.5)	507 (9.2)	66 (6.1)	174 (3.5)
	고졸	48,488 (46.7)	1,848 (59.4)	370 (59.6)	768 (42.5)	3,110 (56.2)	577 (53.5)	2,314 (45.9)
	대졸이상	20,654 (19.9)	860 (27.7)	177 (28.5)	865 (47.9)	1,418 (25.6)	350 (32.4)	2,389 (47.4)
	계	103,939 (100.0)	3,109 (100.0)	621 (100.0)	1,807 (100.0)	5,535 (100.0)	1,079 (100.0)	5,03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주: 졸업에는 수료를 포함하고 재학·휴학·중퇴는 하위 학력에 포함하였으며, 4년제 미만 대학은 고졸에 포함시킴.

<표 35> 부산 대도시권 이동 가구주의 직업 분포(2000·2005년)

(단위: %)

구분	부산 계속거주	전입			전출			
		경남 →부산	울산 →부산	수도권 →부산	부산 →경남	부산 →울산	부산 →수도권	
2000년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2,040 (14.0)	73 (16.1)	10 (10.6)	81 (22.6)	167 (17.6)	32 (14.0)	155 (25.5)
	기술공 및 준전문가	993 (6.8)	43 (9.5)	13 (13.8)	44 (12.3)	71 (7.5)	33 (14.5)	90 (14.8)
	사무직	1,811 (12.4)	80 (17.7)	13 (13.8)	73 (20.4)	146 (15.4)	24 (10.5)	138 (22.7)
	서비스 및 판매직	3,199 (21.9)	111 (24.5)	21 (22.3)	69 (19.3)	158 (16.6)	45 (19.7)	92 (15.2)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직원	5,052 (34.6)	120 (26.5)	30 (31.9)	68 (19.0)	334 (35.1)	85 (37.3)	95 (15.7)
	단순노무 등 기타	1,517 (10.4)	26 (5.7)	7 (7.4)	23 (6.4)	75 (7.9)	9 (3.9)	37 (6.1)
	계	14,612 (100.0)	453 (100.0)	94 (100.0)	358 (100.0)	951 (100.0)	228 (100.0)	607 (100.0)
2005년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9,481 (14.1)	356 (17.4)	59 (15.7)	298 (22.4)	557 (12.8)	124 (14.1)	794 (21.5)
	기술공 및 준전문가	6,037 (9.0)	303 (14.8)	51 (13.6)	211 (15.9)	430 (9.9)	92 (10.5)	580 (15.7)
	사무직	8,458 (12.6)	352 (17.2)	67 (17.9)	276 (20.7)	656 (15.1)	132 (15.0)	948 (25.6)
	서비스 및 판매직	13,883 (20.6)	400 (19.5)	78 (20.8)	248 (18.6)	712 (16.4)	152 (17.3)	618 (16.7)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직원	21,714 (32.3)	455 (22.2)	92 (24.5)	206 (15.5)	1,694 (39.0)	330 (37.5)	559 (15.1)
	단순노무 등 기타	7,720 (11.5)	182 (8.9)	28 (7.5)	92 (6.9)	297 (6.8)	49 (5.6)	202 (5.5)
	계	67,293 (100.0)	2,048 (100.0)	375 (100.0)	1,331 (100.0)	4,346 (100.0)	879 (100.0)	3,701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2) 가구 구성

이동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규모별 특성을 보면(표 36), 부산 계속거주 가구는 4인 가구 비율이 2000년 32.7%에서 2005년 27.2%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전입 가구를 보면, 2000년에는 경남과 울산, 수도권 모두 4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1인 가구의 전입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3개 지역 모두에서 1인 가구가 전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부산에서 전출하는 가구도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서 3개 지역 모두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가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44.8%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동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와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가 비교적 이동 성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⁵⁾

가구의 세대구성별 이동 가구의 특성을 보면(표 37), 가구의 규모별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부산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의 세대구성을 보면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2000년에 51.4%에서 2005년 44.5%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산으로 전입한 가구를 보면 2000년에는 과반수에 가까운 가구가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였으나, 2005년에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30% 내외로 줄어들고 1인 가구가 3개 지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부산에서 전출한 가구를 보면, 경남으로 전출한 가구는 2000년에 비해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울산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가구는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2명에서 2005년 2.88명으로 줄어들었다.

<표 36> 이동 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2000·2005년)

(단위: %)

구분	부산 계속거주	전입			전출			
		경남 →부산	울산 →부산	수도권 →부산	부산 →경남	부산 →울산	부산 →수도권	
2000년	1인	2,678 (12.9)	160 (26.3)	28 (21.7)	101 (22.9)	225 (19.5)	73 (27.8)	290 (36.3)
	2인	3,793 (18.2)	94 (15.4)	25 (19.4)	80 (18.1)	230 (20.0)	53 (20.2)	168 (21.0)
	3인	4,868 (23.4)	126 (20.7)	23 (17.8)	90 (20.4)	270 (23.4)	67 (25.5)	146 (18.3)
	4인	6,807 (32.7)	188 (30.9)	50 (38.8)	142 (32.2)	337 (29.3)	56 (21.3)	156 (19.5)
	5인 이상	2,694 (12.9)	41 (6.7)	3 (2.3)	28 (6.3)	90 (7.8)	14 (5.3)	40 (5.0)
	계	20,840 (100.0)	609 (100.0)	129 (100.0)	441 (100.0)	1,152 (100.0)	263 (100.0)	800 (100.0)
2005년	1인	17,780 (17.1)	1,121 (36.1)	246 (39.6)	624 (34.5)	1,418 (25.6)	360 (33.4)	2,255 (44.8)
	2인	23,247 (22.4)	633 (20.4)	134 (21.6)	365 (20.2)	1,363 (24.6)	256 (23.7)	1,127 (22.4)
	3인	25,040 (24.1)	511 (16.4)	78 (12.6)	346 (19.1)	1,187 (21.4)	231 (21.4)	695 (13.8)
	4인	28,288 (27.2)	635 (20.4)	124 (20.0)	365 (20.2)	1,182 (21.4)	176 (16.3)	670 (13.3)
	5인 이상	9,584 (9.2)	209 (6.7)	39 (6.3)	107 (5.9)	385 (7.0)	56 (5.2)	292 (5.8)
	계	103,939 (100.0)	3,109 (100.0)	621 (100.0)	1,807 (100.0)	5,535 (100.0)	1,079 (100.0)	5,03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표 37> 이동 가구의 세대구성별 분포(2000·2005년)

(단위: %)

구분	부산 계속거주	전입			전출			
		경남 →부산	울산 →부산	수도권 →부산	부산 →경남	부산 →울산	부산 →수도권	
2000년	1인 가구	2,678 (12.9)	160 (26.3)	28 (21.7)	101 (22.9)	225 (19.5)	73 (27.8)	290 (36.3)
	부부	2,213 (10.6)	41 (6.7)	11 (8.5)	45 (10.2)	153 (13.3)	39 (14.8)	74 (9.3)
	편부모+ 자녀	10,707 (51.4)	285 (46.8)	61 (47.3)	209 (47.4)	571 (49.6)	111 (42.2)	259 (32.4)
	부부+ 자녀	2,286 (11.0)	43 (7.1)	13 (10.1)	28 (6.3)	72 (6.3)	14 (5.3)	47 (5.9)
	3세대 이상	1,804 (8.7)	16 (2.6)	4 (3.1)	25 (5.7)	60 (5.2)	7 (2.7)	17 (2.1)
	기타	1,152 (5.5)	64 (10.5)	12 (9.3)	33 (7.5)	71 (6.2)	19 (7.2)	113 (14.1)
	계	20,840 (100.0)	609 (100.0)	129 (100.0)	441 (100.0)	1,152 (100.0)	263 (100.0)	800 (100.0)
2005년	1인 가구	17,780 (17.1)	1,121 (36.1)	246 (39.6)	624 (34.5)	1,418 (25.6)	360 (33.4)	2,255 (44.8)
	부부	14,061 (13.5)	260 (8.4)	45 (7.2)	190 (10.5)	886 (16.0)	165 (15.3)	464 (9.2)
	편부모+ 자녀	46,201 (44.5)	965 (31.0)	174 (28.0)	588 (32.5)	2,040 (36.9)	353 (32.7)	1,083 (21.5)
	부부+ 자녀	11,887 (11.4)	243 (7.8)	51 (8.2)	163 (9.0)	385 (7.0)	44 (4.1)	255 (5.1)
	3세대 이상	7,800 (7.5)	111 (3.6)	24 (3.9)	60 (3.3)	242 (4.4)	31 (2.9)	98 (1.9)
	기타	6,210 (6.0)	409 (13.2)	81 (13.0)	182 (10.1)	564 (10.2)	126 (11.7)	884 (17.5)
	계	103,939 (100.0)	3,109 (100.0)	621 (100.0)	1,807 (100.0)	5,535 (100.0)	1,079 (100.0)	5,03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3) 주택 점유형태별 특성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서도 부산 계속거주 가구와 이동 가구간 특성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표 38). 부산 계속거주 가구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2000년 54.2%에서 2005년 59.7%로 높아졌으며, 이동 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동 가구를 주택 점유형태별로 보면, 2000년에는 부산과 전출입한 3개 지역 모두 전세 거주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5년에는 전반적으로 자가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주택의 점유형태가 다양해졌다. 즉 경남과 울산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가구는 보증금+월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수도권으로 전입한 가구는 전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부산에서 이들 지역으로 전출한 가구를 보면, 경남으로 전출한 가구는 자가 비율이 높고, 울산으로 전출한 가구는 보증금+월세가, 수도권으로 전출한 가구는 전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인구이동 원인 분석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는 일자리수, 주택수, 아파트수, 그리고 순이동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그림 53~그림 60, 부록 2참조). 분석 시기는 1995~2005년이며,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다음 부산 대도시권의 3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별도로 분석하였다.⁶⁾

1) 전국 시군구

먼저 <표 39>에서는 1995~2000년 기간동안의 일자리수 및 증감, 주택수 및 증감, 아파트수 및 증감과 순이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순이동은 일자리수 증감, 주택수 증감, 아파트수 증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6) 시계열 분석을 위해 1995년 230개, 2000년 232개, 2005년 234개 시군구를 1995년의 230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통합하였으며, 1995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됨에 따라 총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8> 이동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별 분포(2000·2005년)

(단위: %)

구분	부산 계속거주	전입			전출			
		경남→부산	울산→부산	수도권→부산	부산→경남	부산→울산	부산→수도권	
2000년	자기집	11,288 (54.2)	147 (24.1)	15 (11.6)	92 (20.9)	354 (30.7)	39 (14.8)	92 (11.5)
	전세	5,509 (26.4)	256 (42.0)	61 (47.3)	206 (46.7)	468 (40.6)	127 (48.3)	453 (56.6)
	보증금+ 월세	3,034 (14.6)	156 (25.6)	41 (31.8)	96 (21.8)	210 (18.2)	58 (22.1)	193 (24.1)
	월세 또는 사글세	571 (2.7)	32 (5.3)	8 (6.2)	19 (4.3)	59 (5.1)	24 (9.1)	28 (3.5)
	무상 등 기타	438 (2.1)	18 (3.0)	4 (3.1)	28 (6.3)	61 (5.3)	15 (5.7)	34 (4.3)
	계	440 (100.0)	21 (100.0)	7 (100.0)	34 (100.0)	66 (100.0)	21 (100.0)	38 (100.0)
	2005년	자기집	62,101 (59.7)	823 (26.5)	153 (24.6)	418 (23.1)	1,858 (33.6)	306 (28.4)
전세		18,670 (18.0)	839 (27.0)	150 (24.2)	608 (33.6)	1,184 (21.4)	274 (25.4)	2,049 (40.7)
보증금+ 월세		17,010 (16.4)	1,114 (35.8)	236 (38.0)	522 (28.9)	1,754 (31.7)	351 (32.5)	1,702 (33.8)
월세 또는 사글세		2,765 (2.7)	135 (4.3)	44 (7.1)	88 (4.9)	282 (5.1)	60 (5.6)	271 (5.4)
무상 등 기타		3,393 (3.3)	198 (6.4)	38 (6.1)	171 (9.5)	457 (8.3)	88 (8.2)	363 (7.2)
계		3,396 (100.0)	204 (100.0)	44 (100.0)	180 (100.0)	465 (100.0)	96 (100.0)	37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확인되었으며 특히 주택수 및 아파트수 증감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0~2005년도 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표 40). 그러나, 이 시기에는 순이동이 일자리수·주택수·아파트수 증감 뿐 아니라 해당년도의 일자리수, 주택수, 아파트수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상관계수 또한 약간씩 증가하였다. 다만, 1995~2000년과 달리 2000~2005년에는 일자리수

증감과 주택수 및 아파트수 증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특이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7) 2000~2005년 기간의 분석에서는 일자리수 및 아파트수 증감이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1995~2000년 기간의 분석에서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표 41>에는 2000~2005년 기간의 회귀분석 결과만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아파트 수가 증가할수록 순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약 76%로 높게 나왔다. 두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아파트수 증감이 일자리수 증감에 비해 순이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일자리수 및 주택수와 순이동의 상관관계(1995~2000년)

구분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 증감9500	주택95	주택00	주택증감 9500	아파트95	아파트00	아파트 증감9500	순이동 96~00
일자리수 95	1.000	-	-	-	-	-	-	-	-	-
일자리수 00	.897(**)	1.000	-	-	-	-	-	-	-	-
일자리 증감9500	.350(**)	.462(**)	1.000	-	-	-	-	-	-	-
주택95	.740(**)	.737(**)	.328(**)	1.000	-	-	-	-	-	-
주택00	.647(**)	.805(**)	.409(**)	.891(**)	1.000	-	-	-	-	-
주택증감 9500	.436(**)	.506(**)	.340(**)	.633(**)	.741(**)	1.000	-	-	-	-
아파트95	.660(**)	.698(**)	.323(**)	.922(**)	.842(**)	.614(**)	1.000	-	-	-
아파트00	.605(**)	.769(**)	.401(**)	.844(**)	.960(**)	.769(**)	.898(**)	1.000	-	-
아파트 증감9500	.478(**)	.529(**)	.338(**)	.655(**)	.756(**)	.969(**)	.624(**)	.788(**)	1.000	-
순이동 96~00	-0.033	0.104	.257(**)	0.087	.286(**)	.701(**)	.179(**)	.391(**)	.687(**)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1995·2000년;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주: N=228개 시군구, ** p<0.01.

7) 주택수 증감과 아파트 증감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 수에는 아파트수가 포함되어 계산되었으므로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어서 주택수 변수는 제외하였다. 아파트수 증감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주택수 증감 변수에 비해 모델의 설명력이 높았다.

<표 40> 일자리수 및 주택수와 순이동의 상관관계(2000~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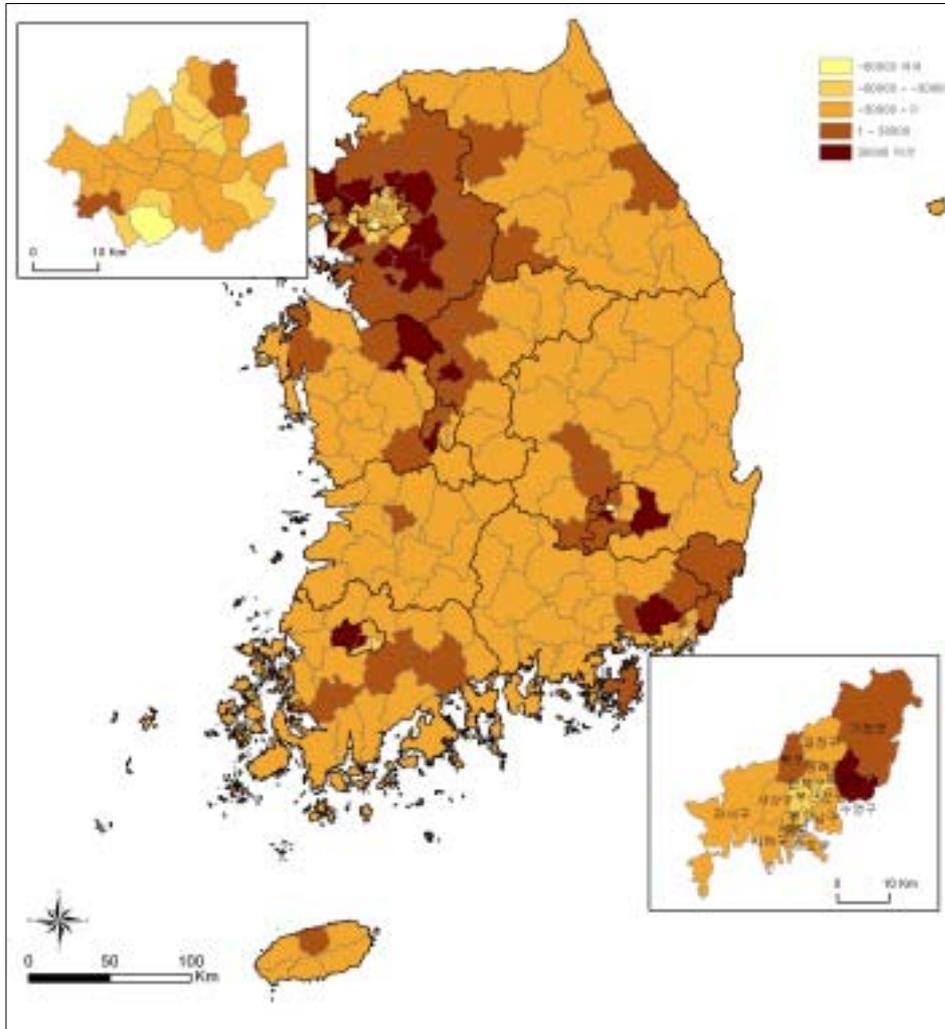
구분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 증감000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000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 증감0005	순이동 01~05
일자리수 00	1.000	-	-	-	-	-	-	-	-	-
일자리수 05	.977(**)	1.000	-	-	-	-	-	-	-	-
일자리증감 0005	-0.064	.152(*)	1.000	-	-	-	-	-	-	-
주택00	.805(**)	.763(**)	-.163(*)	1.000	-	-	-	-	-	-
주택05	.800(**)	.764(**)	-0.129	.984(**)	1.000	-	-	-	-	-
주택증감 0005	.559(**)	.560(**)	0.031	.658(**)	.780(**)	1.000	-	-	-	-
아파트00	.769(**)	.736(**)	-0.117	.960(**)	.941(**)	.611(**)	1.000	-	-	-
아파트05	.760(**)	.737(**)	-0.075	.950(**)	.969(**)	.768(**)	.973(**)	1.000	-	-
아파트증감 0005	.454(**)	.467(**)	0.079	.570(**)	.696(**)	.956(**)	.532(**)	.715(**)	1.000	-
순이동 01~05	0.129	.211(**)	.384(**)	.193(**)	.339(**)	.768(**)	.198(**)	.387(**)	.813(**)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2005년;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주: N=228개 시군구, ** p<0.01.

<표 41>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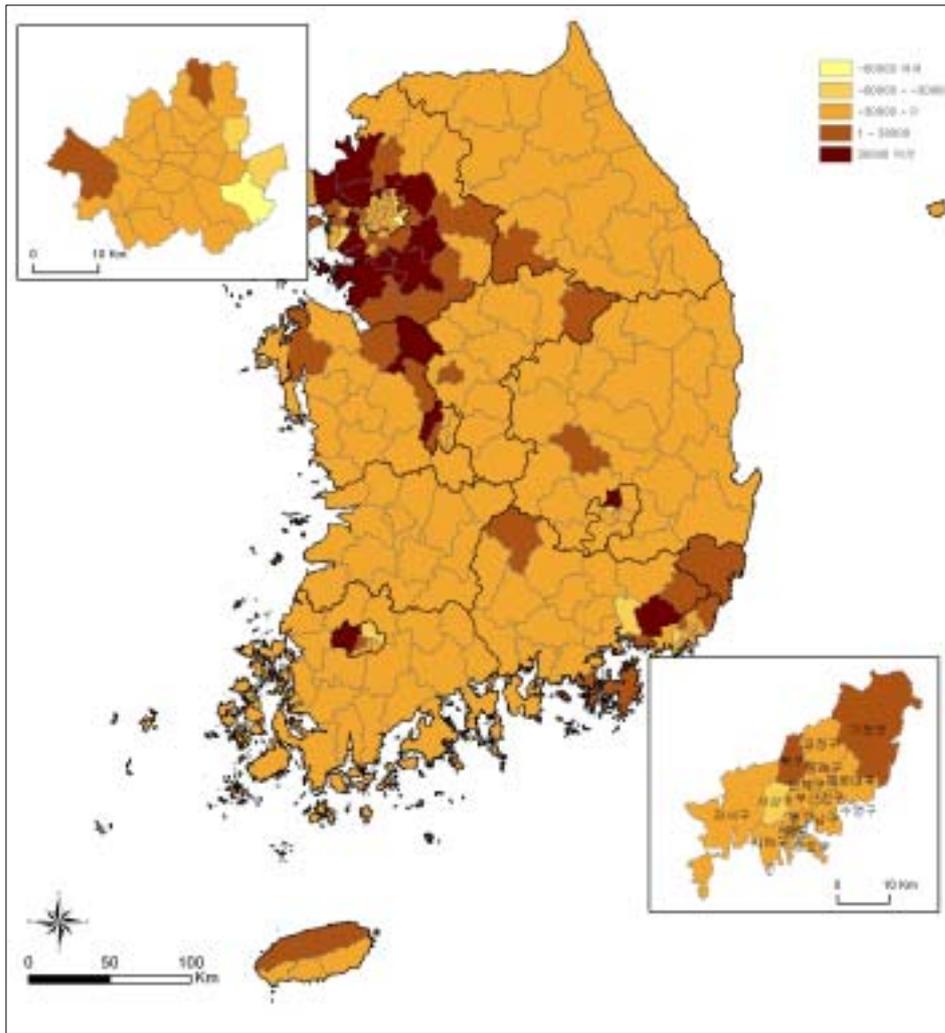
독립변수	상관계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상수)	-	-17038.758(1122.871)	-
일자리증감0005	0.384	31.635 (3.191)	0.322***
아파트증감0005	0.813	2.287 (0.094)	0.788***
<i>F</i>		364.576	
<i>R</i> ²		0.764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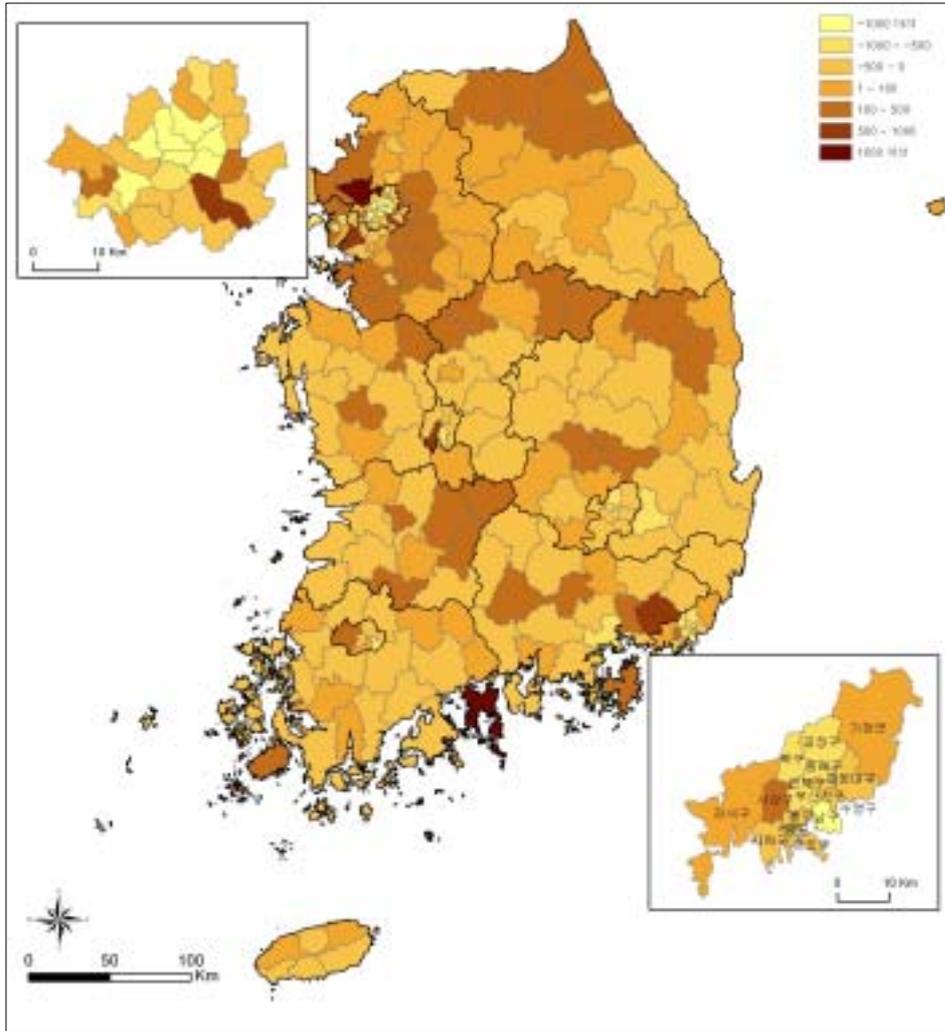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그림 53> 시군구별 순이동(1996~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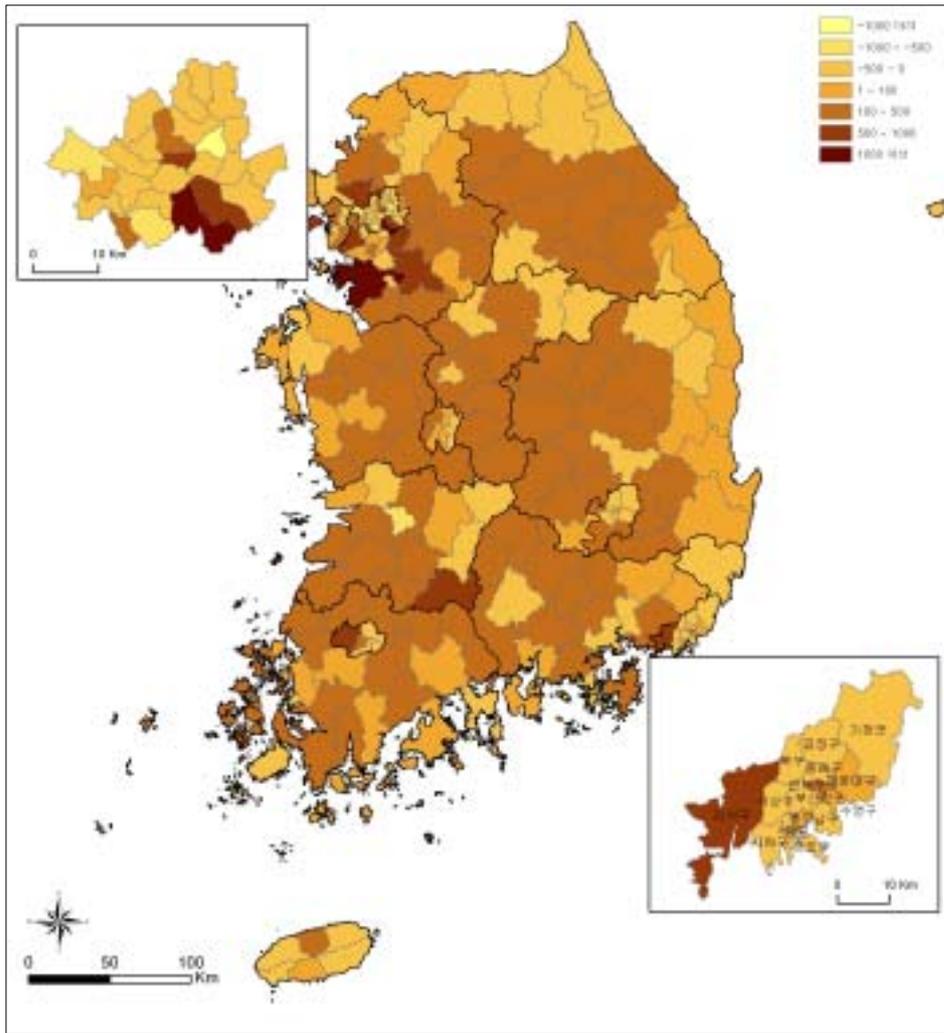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그림 54> 시군구별 순이동(2001~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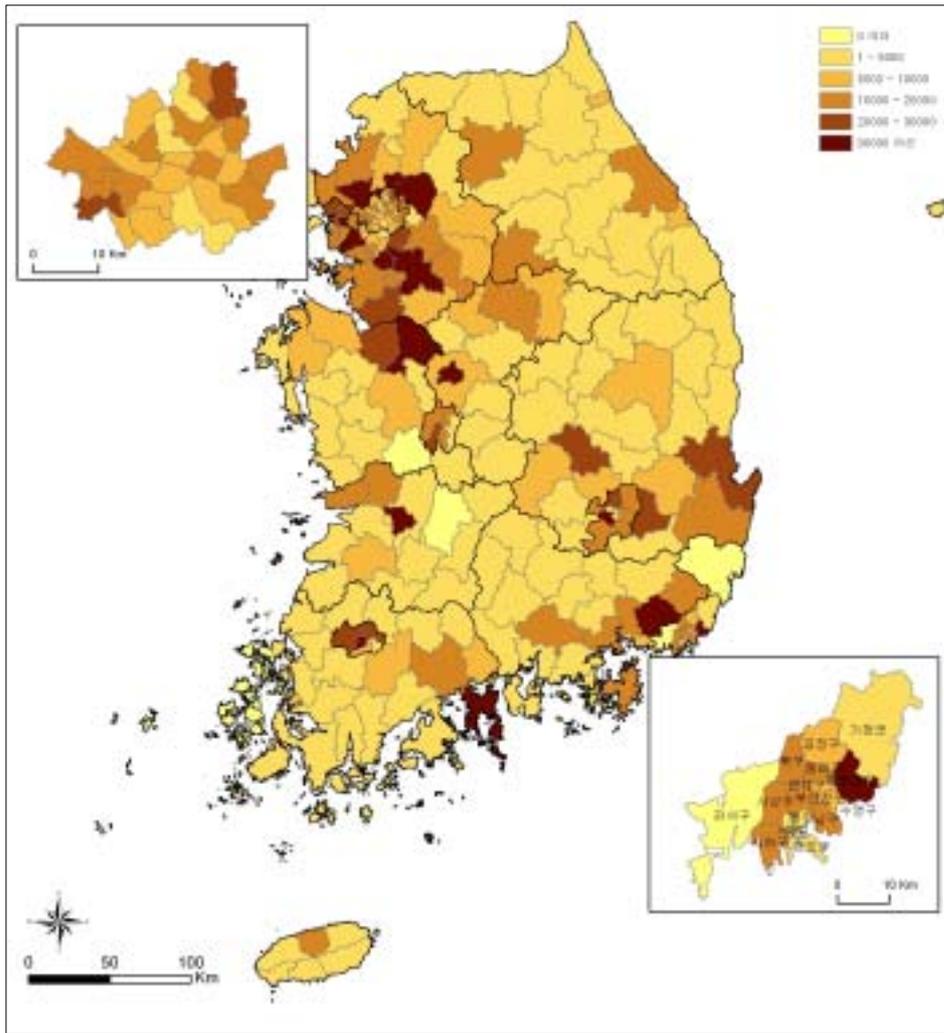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2000년

<그림 55> 시군구별 일자리 증감(1995~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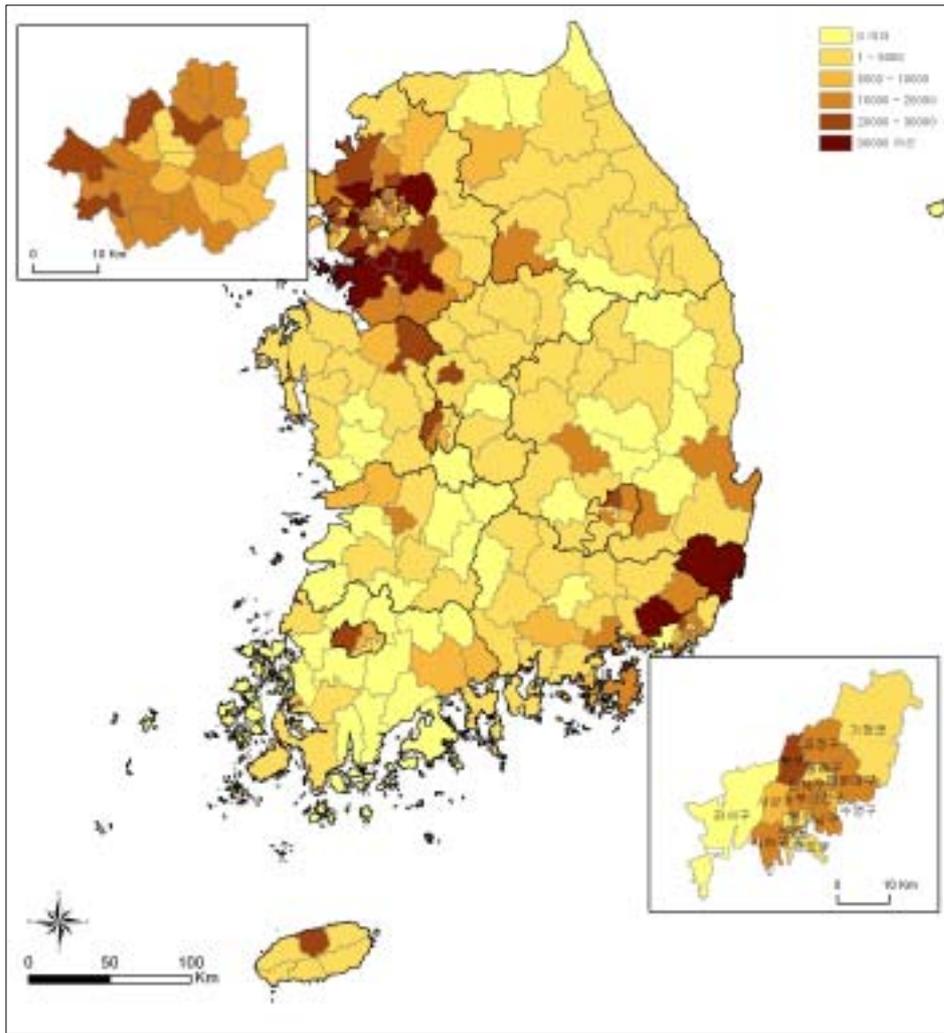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05년.

<그림 56> 시군구별 일자리 증감(2000~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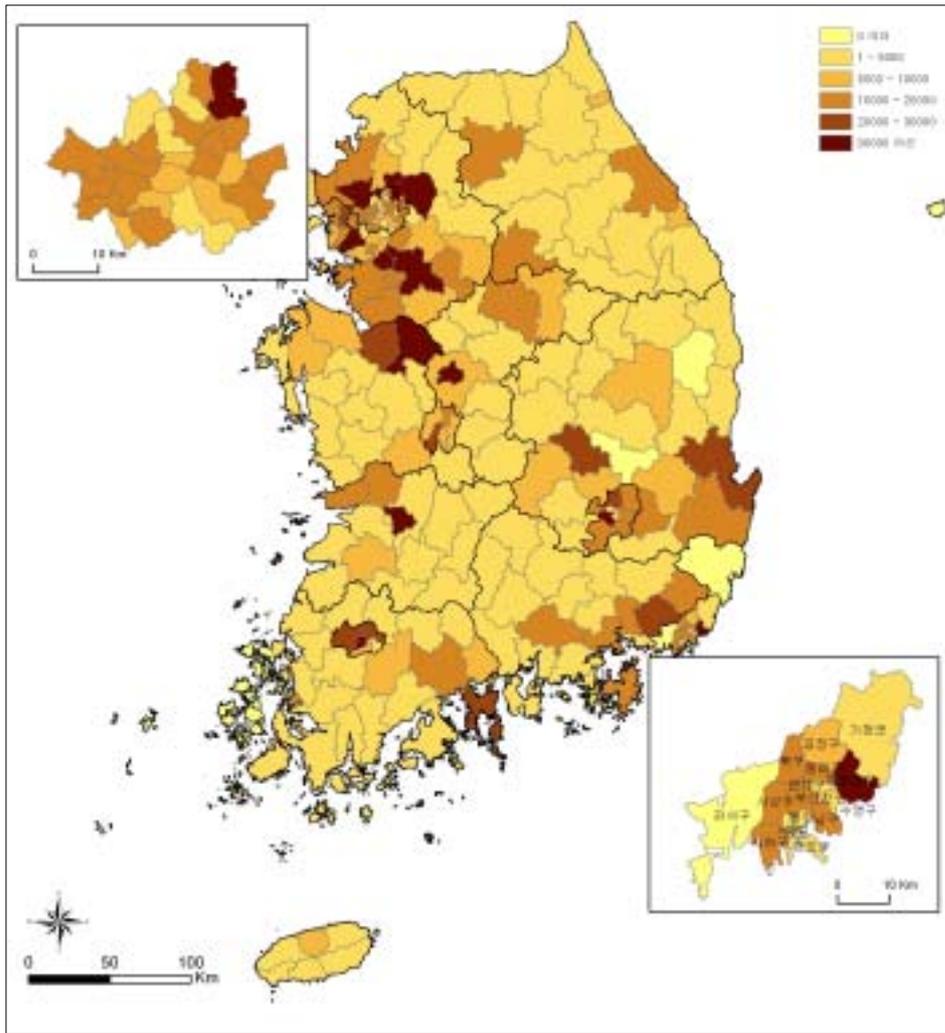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2000년

<그림 57> 시군구별 주택 증감(1995~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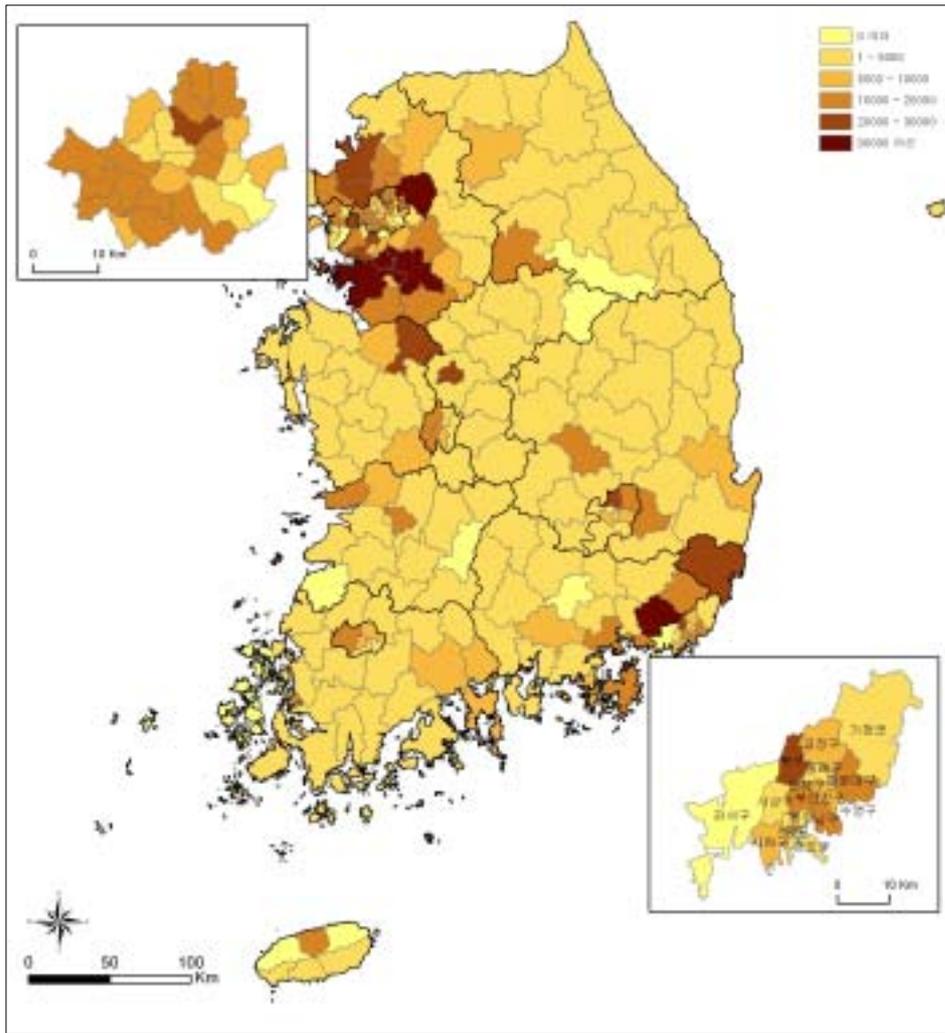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05년

<그림 58> 시군구별 주택 증감(2000~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2000년

<그림 59> 시군구별 아파트 증감(1995~200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05년.

<그림 60> 시군구별 아파트 증감(2000~2005년)

2) 부산 대도시권의 시군구

먼저 <표 42>에서는 1995~2000년 기간동안의 일자리수 및 증감, 주택수 및 증감, 아파트수 및 증감과 순이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순이동은 주택수 증감, 아파트수 증감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전국 시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는 달리 부산 대도시권 시군구의 일자리수 증감은 순이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0~2005년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표 43).

전국 시군구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변수를 투입한 후,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그 결과, 일자리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아파트 수가 증가할수록 순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약 66%로 나왔다. 두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아파트수 증감이 일자리수 증감에 비해 순이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부산 대도시권의 일자리수 및 주택수와 순이동의 상관관계(1995~2000년)

구분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 증감9500	주택95	주택00	주택증감 9500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증감9500	순이동 96~00
일자리수 95	1.000	-	-	-	-	-	-	-	-	-
일자리수 00	.415(*)	1.000	-	-	-	-	-	-	-	-
일자리 증감9500	.153	.653(**)	1.000	-	-	-	-	-	-	-
주택95	.904(**)	.365(*)	.061	1.000	-	-	-	-	-	-
주택00	.388(*)	.947(**)	.519(**)	.430(**)	1.000	-	-	-	-	-
주택증감 9500	.614(**)	.320	.092	.710(**)	.463(**)	1.000	-	-	-	-
아파트95	.834(**)	.448(**)	.116	.914(**)	.493(**)	.708(**)	1.000	-	-	-
아파트00	.413(*)	.927(**)	.497(**)	.452(**)	.977(**)	.527(**)	.588(**)	1.000	-	-
아파트 증감9500	.661(**)	.356(*)	.100	.744(**)	.489(**)	.994(**)	.742(**)	.554(**)	1.000	-
순이동 96~00	-.092	0.141	.181	.023	.249	.644(**)	.138	.325(*)	.59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1995·2000년; 통계청, 인구가동통계, 해당년도

주: N=37개 부산 대도시권 시군구 ** p<0.01.

<표 43> 부산 대도시권의 일자리수 및 주택수와 순이동의 상관관계(2000~2005년)

구분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 증감000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000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 증감0005	순이동 01~05
일자리수 00	1.000	-	-	-	-	-	-	-	-	-
일자리수 05	.986(**)	1.000	-	-	-	-	-	-	-	-
일자리 증감0005	-.398(*)	-0.239	1.000	-	-	-	-	-	-	-
주택00	.947(**)	.927(**)	-.417(*)	1.000	-	-	-	-	-	-
주택05	.933(**)	.913(**)	-.408(*)	.992(**)	1.000	-	-	-	-	-
주택증감 0005	.675(**)	.663(**)	-.284	.747(**)	.827(**)	1.000	-	-	-	-
아파트00	.927(**)	.906(**)	-.412(*)	.977(**)	.968(**)	.727(**)	1.000	-	-	-
아파트05	.910(**)	.889(**)	-.403(*)	.970(**)	.984(**)	.838(**)	.983(**)	1.000	-	-
아파트 증감0005	.597(**)	.585(**)	-0.262	.677(**)	.766(**)	.989(**)	.655(**)	.781(**)	1.000	-
순이동 01~05	.019	.077	.311	.054	.157	.574(**)	0.037	.184	.64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2000·2005년;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해당년도
 주: N=37개 부산 대도시권 시군구 ** p<0.01.

<표 44> 부산 대도시권의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상관계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상수)	-	-17243.9(2458.387)	
일자리증감0005	0.311	42.338(8.610)	0.513***
아파트증감0005	0.640	1.627(0.220)	0.774***
<i>F</i>		32.234	
<i>R</i> ²		0.655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 p<0.001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Ⅷ.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지난 20년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와 가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여 전국 대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산 대도시권 인구의 연령 구조를 살펴보면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층 인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45세 이상의 장년 및 고령층 인구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주 생산 연령층인 25~39세 인구의 공동화가 부산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도시의 미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에 비해 시도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고, 시도간 인구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능적 연계에 의한 대도시권의 통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 외부 지역과의 인구이동에서는 부산의 모든 구·군에서 전출 초과가 나타나며, 그 규모가 크다. 부산 내의 이동에서는 해운대구의 전입 초과 규모가 크다. 부산 외부와 부산 내부 지역의 구분 없이 보면, 해운대구의 전입 초과 규모가 큰데, 이는 이 지역이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끌어들이어서 부산 이외 지역으로의 전출 초과를 상쇄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부산 대도시권과 수도권과의 인구이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도별 순이동을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바로 주요 대도시의 인구감소와 대도시 주변지역의 인구증가이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와 경남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도시와 주변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시도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도로의 전출 초과가 1996년에 비해 2001년과 2006년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부산의 전출 초과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출 현황은 부산

의 특정 구·군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닌 전지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의 전체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남 양산시와 거제시·진해시 등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부산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부산과 인접 지역인 이 지역으로 이동이 많은 이유는 주로 일자리나 주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울 강남구·서초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고양시·수원시 등도 지속적으로 전출 초과 규모가 큰 지역에 속하였다.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 특성, 학령 인구의 이동 특성, 가임연령의 이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 패턴을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출 인구는 학령인구부터 시작하여 대학 진학에 이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가 정점을 이루고 있다. 부산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출 초과가 관찰되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전출 초과 규모가 크다. 학령인구의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에서 2005·2007년 공통적으로 10대와 20대의 두 연령대에서 모두 서울로 순유입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전남·경북과 함께 10대와 20대의 두 연령대 모두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학령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여건이 좋다고 알려진 도시들이다. 특히 부산 4개 사례 고등학교를 상대로 진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교 10등까지의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로 진학하고 있어, 인구이동의 선별성이 뚜렷함을 볼 수 있다. 가임여성의 이동을 살펴보면 1996·2006년의 경우 연간 약 12,000~14,000명 수준의 가임여성이 순유출되고 있어 부산의 전출 초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이동 시도는 경남, 경기, 서울, 울산 순으로 나타나는데, 전출 초과 시군구를 보면 주로 경남과 수도권의 시군구에 밀집되어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울산과 함께 수도권의 이동자와 이동 가구를 7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여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특성과 원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과 경남·울산·수도권과의 이동인구의 연령을 보면, 10대 후반의 인구가 경남과 울산에서 순유입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전출인구가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전출 초과는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며, 20대 인구는 전출 초과 규모가 가장 커 20대의 학업·취업을 위한 순유출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동자를 학력별로 구분할 때

대학 재학생은 경남과 울산에서 순유입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수도권으로 순유출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직업별 특성을 보면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과 같은 직군의 종사자는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과의 전입·전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규모도 크다. 서비스 및 판매직과 단순노무 등 기타 직군의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부산에 계속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원의 경우에는 부산으로 전입보다는 전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는 경남지역으로, 기능원 및 장치·기계 조작원은 울산으로 전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으로 전입하는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보면, 경남과 울산, 수도권 모두에서 35~44세의 가구주가 가장 많다. 반면 전출하는 가구주는 세 지역 모두 25~34세 가구주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전출 가구주는 34세 이하의 가구주가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동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규모별 특성을 보면, 부산 계속거주 가구는 4인 가구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전출입 가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모든 지역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가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44.8%에 달하고 있다.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별로 부산 계속거주 가구와 이동 가구간의 특성을 보면, 이동 가구에 비해 부산 계속거주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일자리수, 주택수, 아파트수와 인구이동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일자리수 및 증감, 주택수 및 증감, 아파트수 및 증감과 순이동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순이동은 주택수 및 아파트수 증감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일자리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아파트수가 증가할수록 순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아파트수 증감이 일자리수 증감에 비해 순이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대도시권의 3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순이동과 주택수 증감 및 아파트수 증감은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는 반면 일자리수 증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시사점

부산의 인구 감소는 대도시의 광역화라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인구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절대 인구 감소라는 표면적인 현상은 같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인구 유출 규모와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부산의 인구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시기별로 유동적인 서울과 달리 부산은 연간 4만명 내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둘째 부산의 인구 유출은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대 인구의 유출이 뚜렷한데 비해, 서울의 인구 유출은 제한된 연령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령 인구와 20대 인구에서 뚜렷한 전입 초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산은 대부분의 지역으로 인구 유출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은 대규모의 전출 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의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순전입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서울의 영향력과 서울-지방간의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넷째, 서울에서 유출된 인구가 주로 동일 권역의 경기도와 인천으로 나가는 반면 부산 유출 인구의 절반 정도가 타 권역인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으며, 경남으로의 인구 유출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부산의 인구 유출에 있어 수도권의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대도시들에서의 전출 인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각 중심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부산에서의 전출 인구도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부산의 주변지역으로 이동한다. 부산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지역이며, 부산의 전출 초과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서울은 전국으로부터 인구와 기능을 흡인하여 다시 중심도시 주변의 수도권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미 인구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은 더욱 더 과밀해져 가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국토개발 방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방향과 배치되며, 결국에는 수도권외의 과밀화, 비수도권의 과소화라는 이중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은 양과 질의 인구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양적으로 부산의 인구가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의 질적 문제이다. 즉, 젊은 고학력 인구들이 선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부산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부산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출 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10대 학력 인구와 20대 인구의 전출 초과 규모가 매우 크다. 부산 인구 가운데 젊은층의 인구가 교육 기회 및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별적 이동은 고령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켜 부산을 늙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젊은 인구 및 고학력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젊은 인구와 고학력 인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귀이주(return migration)해 올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수도권과 부산 사이의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부산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동희, 2007, “부산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2(6), 930-939.
- 권기철, 2006, “부산광역권의 제조업 고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구이동의 균형화 효과,” 경제연구, 24(3), 97-123.
- 권상철, 2003,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 유입 인구의 속성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2), 59-73.
- 김경수, 2000a, 부산시 내부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_____, 2000b, 부산인접도시 택지개발지 가구이동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김경희, 2007, 최근 부산경제 진단과 전망, 부산발전연구원.
- 김성주 · 이선영, 2006, 부산경제의 광역화 관련 통계지표 발굴 및 분석, 부산발전연구원.
- 김홍관, 2006, “GIS를 활용한 부산시공간구조변천에 관한 연구 - 인구, 고용, 지가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9(4), 204-214.
- 남광우 · 이성호 · 최철웅, 2001, “부산시 인구성장의 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57-270.
- 서의택 · 김성일, 1998, “부산시 인구분포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9-49.
- 양재섭 · 김상일, 2007, 서울 대도시권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 가구 특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육양련 · 류영달, 1994, “부산시민의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1, 201-220.
- 윤철현 · 박봉진, 2003, “부산시 인구분포패턴의 재편성 과정,” 도시행정학보, 16(2), 한국도시행정학회, 169-189.
-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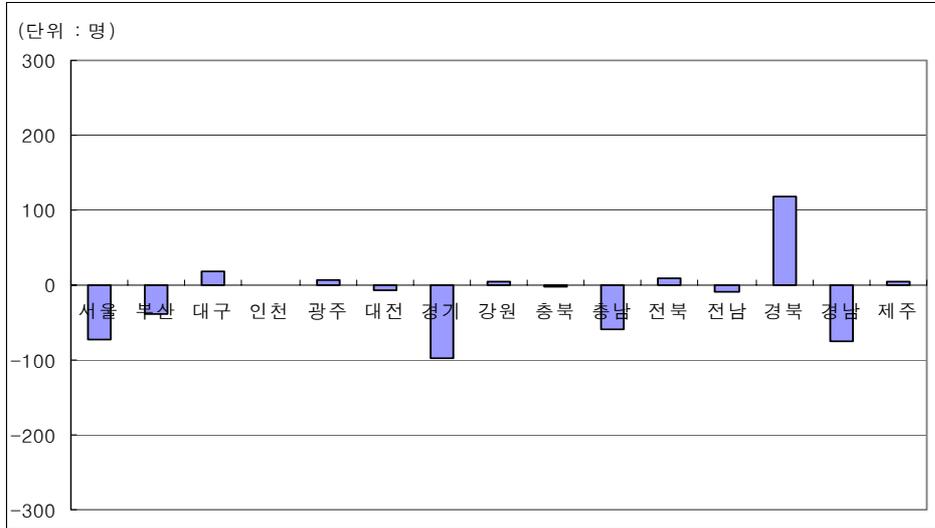
- 임호 · 김경수 · 주수현 · 오재환 · 주경미, 2006,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부산시 정책방향, 부산발전연구원.
- 최은영 · 조대헌, 2005, “서울 내부 인구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2), 169-186.
- 최은영 · 조순기 · 박영실, 2007, 인구이동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연구 및 통계를 이용한 현황분석연구, 통계개발원, 101-177.
- Champion, A. G., 1992, Urban and regional demographic trends in the developed world, *Urban Studies*, 29(3), 461-482.
- Findlay, A., Stockdale, A., Short D., Findlay, A., 2001, Mobility as a driver of change in rural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7, 1-16.
- Knox, P. L., 1994,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3rd ed.),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Peters, G. L. and Larkin, R. P., 2002, *Population Geography: Problems, Concepts and Prospects*(7th), Dubuque.
- Schnell, G. and M. S. Monmonier, 1983, *The Study of Population; Elements · Patterns · Proces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 Sjaastad, L.,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80-93.
- Stockdale, A., 2006, The role of a retirement transition in the reproduction of rural area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2, 1-13.

부 록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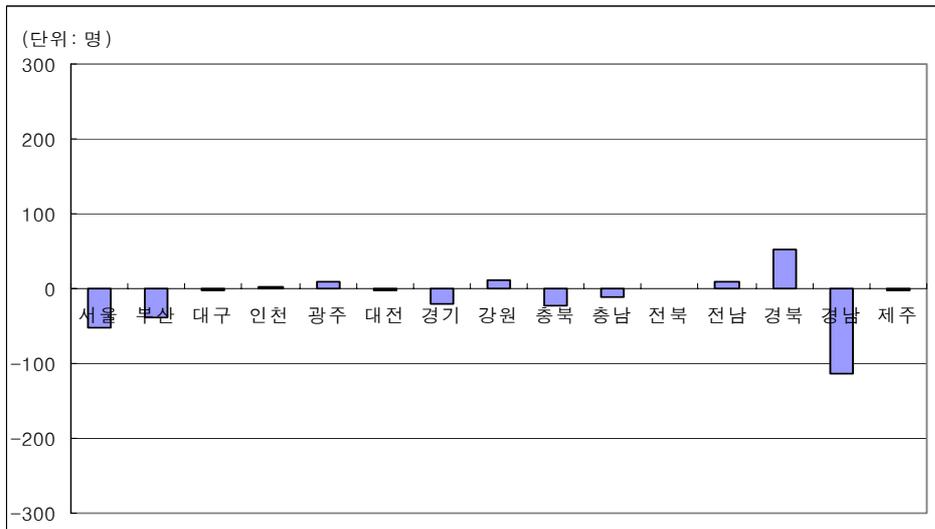
부록 2

부록 1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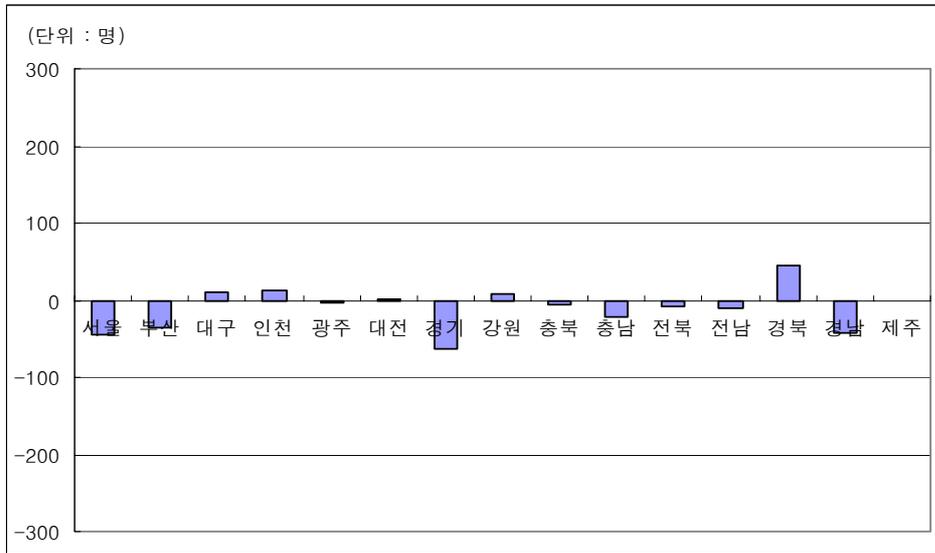
<그림 61> 울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 순이동(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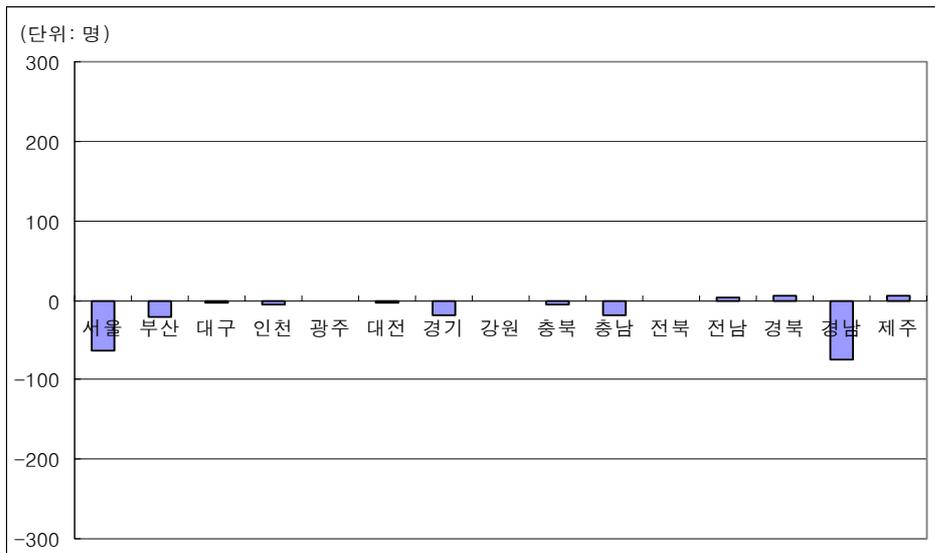
<그림 62> 울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 순이동(2007년)

13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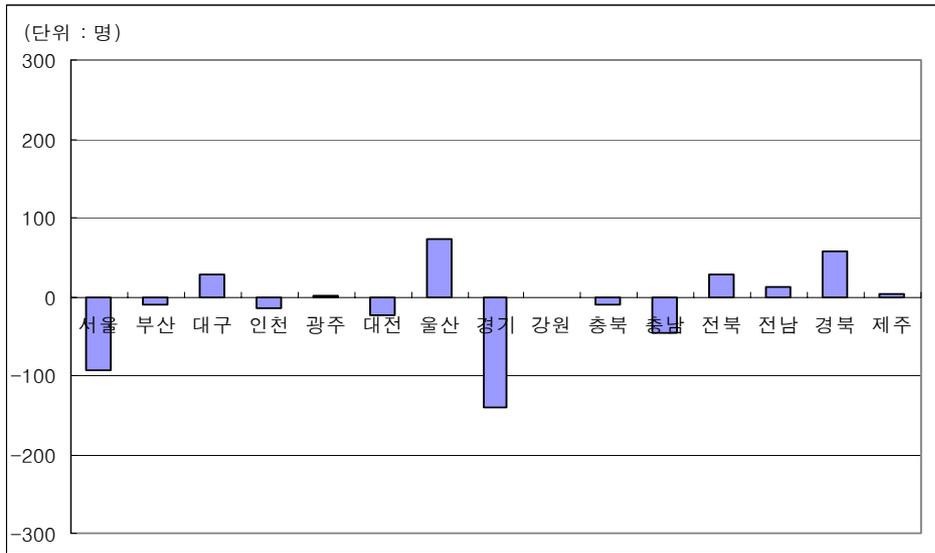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그림 63> 울산 중학생 순이동(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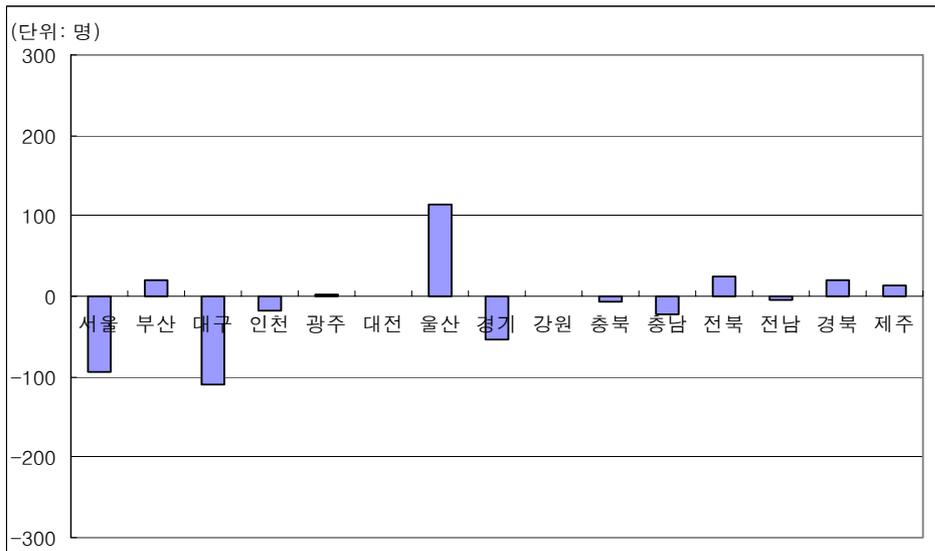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그림 64> 울산 중학생 순이동(2007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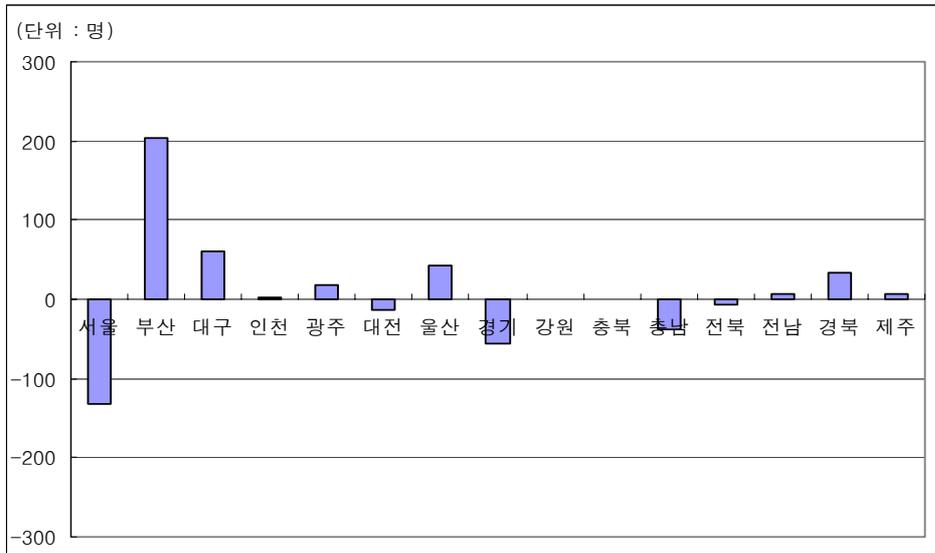
<그림 65> 경남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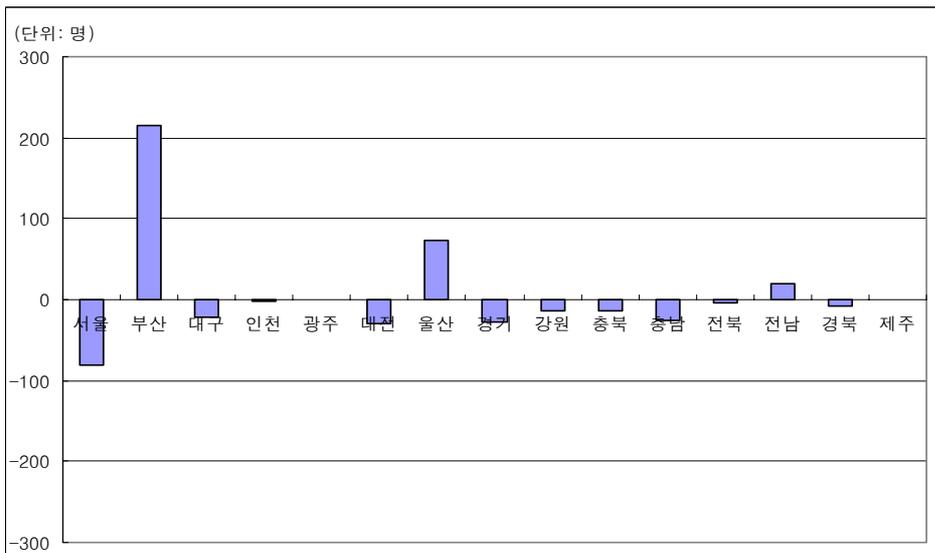
<그림 66> 경남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구의 시도별 순이동(2007년)

13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5년.

<그림 67> 경남 중학생 순이동(2005년)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07년.

<그림 68> 경남 중학생 순이동(2007년)

부록 2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서울	종로구	6,165	4,480	4,605	-3,336	125	34,522	36,212	39,016	1,690	2,804	6,488	7,909	8,156	1,421	247	-20,217	-17,624	-37,841
서울	중구	7,816	5,316	6,287	1,763	971	22,164	30,450	31,621	8,286	1,171	3,532	12,637	13,711	9,105	1,074	-5,762	-12,880	-18,642
서울	용산구	3,553	2,658	2,506	-1,136	-152	40,355	47,249	55,186	6,894	7,937	11,156	19,140	24,200	7,984	5,060	-20,836	-13,043	-33,879
서울	성동구	3,794	2,519	2,188	484	-331	43,325	59,788	75,489	16,463	15,701	11,265	30,126	43,090	18,861	12,964	-16,635	-12,919	-29,554
서울	광진구	2,035	2,266	2,009	-3,021	-257	44,539	54,242	64,901	9,703	10,659	11,619	20,443	24,472	8,824	4,029	-19,479	-27,136	-46,615
서울	동대문구	5,287	4,224	2,978	1,945	-1,246	58,940	65,782	81,268	6,842	15,486	13,131	24,367	39,891	11,236	15,524	-51,880	-6,012	-57,892
서울	중랑구	2,279	2,225	1,754	-1,456	-471	52,551	71,805	80,203	19,254	8,398	12,300	31,915	38,253	19,615	6,338	-17,641	-39,590	-57,231
서울	성북구	3,681	2,332	1,995	762	-337	72,297	83,923	105,674	11,626	21,751	8,271	23,613	45,697	15,342	22,084	-51,304	-5,909	-57,213
서울	강북구	1,570	1,589	1,348	-466	-241	59,351	61,829	79,241	2,478	17,412	10,560	13,807	25,401	3,247	11,594	-55,221	-3,862	-59,083
서울	도봉구	2,055	1,525	1,312	-1,230	-213	66,041	78,149	94,553	12,108	16,404	38,100	48,472	61,910	10,372	13,438	-18,509	3,914	-14,595
서울	노원구	2,755	2,454	2,192	231	-262	135,343	164,169	179,848	28,826	15,679	110,785	141,151	155,571	30,366	14,420	9,818	-26,438	-16,620
서울	은평구	2,223	2,106	1,747	-1,684	-359	79,350	87,333	109,251	7,983	21,918	7,094	10,822	19,907	3,728	9,085	-50,840	-8,704	-59,544
서울	서대문구	3,790	2,347	2,024	-1,222	-323	59,445	72,093	81,911	12,648	9,818	15,417	27,940	31,124	12,523	3,184	-14,137	-25,945	-40,082
서울	마포구	3,569	3,185	2,893	1,141	-292	65,795	75,333	93,425	9,538	18,092	13,256	26,148	42,100	12,892	15,952	-26,957	-9,444	-36,401
서울	양천구	2,044	2,218	2,244	-1,023	26	82,522	99,532	117,621	17,010	18,089	38,146	55,597	73,397	17,451	17,800	-15,673	3,864	-11,809
서울	강서구	3,241	3,253	2,724	-518	-529	94,031	111,476	139,678	17,445	28,202	49,697	64,639	81,601	14,942	16,962	-23,746	18,810	-4,936
서울	구로구	3,771	3,148	3,113	1,553	-35	53,637	75,943	96,053	22,306	20,110	19,117	37,712	53,750	18,595	16,038	2,233	-1,556	677
서울	금천구	1,595	1,690	2,036	-5,493	346	32,756	39,159	50,018	6,403	10,859	9,932	16,996	25,340	7,064	8,344	-30,348	-16,525	-46,873
서울	영등포구	7,183	5,978	5,708	3,522	-270	60,485	71,146	85,791	10,661	14,645	29,128	42,322	55,848	13,194	13,526	-29,470	-12,272	-41,742

134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서울	동작구	2,456	2,025	1,859	-949	-166	64,381	74,057	89,762	9,676	15,705	21,389	29,276	42,282	7,887	13,006	-40,773	-17,413	-58,186
서울	관악구	2,974	2,689	2,087	-2,328	-602	76,233	85,565	104,657	9,332	19,092	13,230	26,299	44,129	13,069	17,830	-60,796	-11,634	-72,430
서울	서초구	5,017	4,546	5,637	-5,386	1,091	79,607	84,531	99,212	4,924	14,681	51,070	55,825	68,786	4,755	12,961	-17,847	-3,179	-21,026
서울	강남구	9,932	10,533	11,352	6,032	819	118,402	126,484	135,226	8,082	8,742	90,412	98,780	102,055	8,368	3,275	-17,021	-14,770	-31,791
서울	송파구	4,501	4,497	4,298	1,719	-199	117,109	131,103	137,781	13,994	6,678	78,012	90,542	77,255	12,530	-13,287	-32,453	-72,966	-105,419
서울	강동구	2,778	2,602	2,162	517	-440	74,930	85,826	94,563	10,896	8,737	43,144	54,680	60,732	11,536	6,052	-26,136	-42,055	-68,191
부산	중구	2,085	1,381	1,258	38	-123	11,297	13,445	14,926	2,148	1,481	2,291	3,760	4,322	1,469	562	-8,513	-6,255	-14,768
부산	서구	1,343	914	698	-651	-216	29,810	32,427	36,356	2,617	3,929	4,521	6,940	10,018	2,419	3,078	-29,146	-15,438	-44,584
부산	동구	1,565	1,196	1,232	136	36	25,773	26,306	27,429	533	1,123	4,365	5,023	6,241	658	1,218	-30,124	-16,882	-47,006
부산	영도구	1,060	862	757	-3,120	-105	38,957	43,184	45,679	4,227	2,495	16,850	20,757	24,031	3,907	3,274	-28,228	-21,503	-49,731
부산	부산진구	3,982	3,173	2,718	664	-455	74,490	91,124	110,040	16,634	18,916	30,027	47,190	64,296	17,163	17,106	-43,854	-24,799	-68,653
부산	동래구	2,509	1,557	1,279	-1,128	-278	50,280	62,146	66,502	11,866	4,356	22,099	33,191	36,144	11,092	2,953	-20,902	-26,346	-47,248
부산	남구	2,685	1,470	1,290	-603	-180	53,005	65,313	82,304	12,308	16,991	16,377	26,902	41,200	10,525	14,298	-29,734	-1,635	-31,369
부산	북구	2,073	1,222	986	-517	-236	53,906	71,884	94,114	17,978	22,230	36,059	51,565	72,928	15,506	21,363	9,759	20,870	30,629
부산	해운대구	1,739	1,575	1,617	-1,164	42	54,834	101,707	115,776	46,873	14,069	29,382	70,973	83,735	41,591	12,762	88,679	-10,160	78,519
부산	사하구	2,739	2,277	1,985	263	-292	70,852	87,364	98,985	16,512	11,621	38,750	55,050	64,221	16,300	9,171	-16,105	-23,294	-39,399
부산	금정구	2,014	1,500	1,415	804	-85	47,899	57,864	68,306	9,965	10,442	18,652	25,032	31,923	6,380	6,891	-29,377	-29,546	-58,923
부산	강서구	696	764	1,295	-476	531	11,194	11,086	10,806	-108	-280	0	0	0	0	0	-11,867	-7,740	-19,607
부산	연제구	1,240	1,079	1,188	311	109	38,123	43,453	54,035	5,330	10,582	15,646	20,608	29,956	4,962	9,348	-32,248	-7,971	-40,219
부산	수영구	768	665	734	-1,537	69	35,474	40,738	50,013	5,264	9,275	15,971	18,651	25,297	2,680	6,646	-22,849	-7,234	-30,083
부산	사상구	2,202	2,316	2,294	1,674	-22	47,898	63,680	68,937	15,782	5,257	31,404	46,270	49,628	14,866	3,358	-5,482	-30,096	-35,578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부산	기장군	642	715	583	-1,600	-132	16,132	18,522	22,930	2,390	4,408	5,457	6,763	11,093	1,306	4,330	337	5,210	5,547
대구	중구	2,315	1,523	1,544	-647	21	21,973	21,076	20,440	-897	-636	5,461	5,845	6,938	384	1,093	-23,865	-11,353	-35,218
대구	동구	2,170	1,864	1,614	-220	-250	60,892	74,192	88,052	13,300	13,860	21,499	32,838	43,552	11,339	10,714	-29,191	-370	-29,561
대구	서구	2,084	1,505	1,161	-70	-344	46,053	47,901	50,050	1,848	2,149	13,725	14,847	13,862	1,122	-985	-68,716	-38,190	-106,906
대구	남구	1,575	1,052	841	-2,256	-211	36,772	38,224	40,077	1,452	1,853	8,402	9,658	10,384	1,256	726	-38,818	-17,493	-56,311
대구	북구	3,308	2,679	2,571	643	-108	64,225	90,499	114,469	26,274	23,970	32,253	58,604	80,292	26,351	21,688	8,746	39,982	48,728
대구	수성구	2,036	2,030	1,946	-1,182	-84	84,411	101,091	107,707	16,680	6,616	48,877	64,432	72,638	15,555	8,206	-12,751	-27,824	-40,575
대구	달서구	3,212	3,095	3,059	1,967	-36	86,511	132,323	144,418	45,812	12,095	59,961	103,182	112,579	43,221	9,397	79,538	-9,174	70,364
대구	달성군	1,128	1,107	1,243	-466	136	25,093	39,706	43,713	14,613	4,007	7,576	21,717	25,946	14,141	4,229	26,733	-535	26,198
인천	중구	1,573	913	1,629	-9	716	16,705	18,690	27,885	1,985	9,195	5,156	5,179	11,923	23	6,744	-4,313	19,098	14,785
인천	동구	922	599	629	-2,786	30	20,968	19,220	23,182	-1,748	3,962	5,062	5,458	10,950	396	5,492	-25,347	1,627	-23,720
인천	남구	3,385	2,607	2,138	1,979	-469	88,515	100,919	114,100	12,404	13,181	33,490	41,071	42,532	7,581	1,461	-24,115	-6,498	-30,613
인천	연수구	628	911	942	-2,013	31	52,655	64,108	70,066	11,453	5,958	45,663	54,889	59,592	9,226	4,703	31,436	-2,349	29,087
인천	남동구	2,924	2,955	3,342	-722	387	87,303	103,942	104,105	16,639	163	45,052	56,292	53,932	11,240	-2,360	-2,544	-39,104	-41,648
인천	부평구	3,677	3,122	2,644	1,935	-478	96,113	126,645	152,619	30,532	25,974	49,849	77,331	91,048	27,482	13,717	24,307	6,647	30,954
인천	계양구	1,187	1,506	1,492	-604	-14	58,087	85,944	94,814	27,857	8,870	34,459	57,930	61,278	23,471	3,348	53,631	-12,991	40,640
인천	서구	2,110	2,306	2,435	1,482	129	64,463	86,073	108,159	21,610	22,086	28,095	46,268	62,828	18,173	16,560	24,721	27,919	52,640
인천	강화군	824	780	850	625	70	19,306	21,316	23,014	2,010	1,698	704	732	2,103	28	1,371	-3,096	-476	-3,572
인천	옹진군	155	262	284	-1,816	22	4,684	5,277	5,657	593	380	0	63	294	63	231	484	1,677	2,161
광주	동구	2,078	1,233	1,119	-435	-114	26,199	26,758	28,196	559	1,438	6,469	8,830	9,858	2,361	1,028	-32,727	-9,933	-42,660
광주	서구	1,668	1,444	1,876	505	432	43,578	75,048	84,590	31,470	9,542	26,530	59,035	67,922	32,505	8,887	42,331	11,204	53,535

136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광주	남구	939	960	771	-1,991	-189	45,894	53,072	56,192	7,178	3,120	22,101	29,746	34,259	7,645	4,513	-35,779	-19,278	-55,057
광주	북구	2,951	2,555	2,265	955	-290	90,123	116,900	123,397	26,777	6,497	57,441	84,363	90,086	26,922	5,723	-15,751	-36,294	-52,045
광주	광산구	1,600	1,762	2,460	-185	698	38,266	66,300	86,933	28,034	20,633	18,707	47,002	66,755	28,295	19,753	54,793	38,468	93,261
대전	동구	1,947	1,498	1,111	-840	-387	54,254	59,247	61,725	4,993	2,478	18,661	23,888	27,754	5,227	3,866	-24,328	-21,787	-46,115
대전	중구	2,338	1,492	1,512	-220	20	55,694	65,797	71,318	10,103	5,521	23,035	32,170	38,525	9,135	6,355	-7,355	-5,481	-12,836
대전	서구	1,712	2,413	2,484	957	71	91,013	114,545	129,467	23,532	14,922	63,962	85,038	98,955	21,076	13,917	41,696	15,985	57,681
대전	유성구	1,456	1,198	1,513	-414	315	26,538	37,783	59,206	11,245	21,423	15,309	24,749	41,588	9,440	16,839	27,912	55,018	82,930
대전	대덕구	1,612	1,574	1,670	-4,399	96	42,988	56,165	58,181	13,177	2,016	23,380	34,511	35,653	11,131	1,142	16,865	-16,702	163
경기도	수원시	5,973	6,072	5,660	1,762	-412	130,275	209,015	248,004	78,740	38,989	58,637	136,425	167,425	77,788	31,000	145,617	54,889	200,506
경기도	성남시	4,310	4,797	5,330	2,886	533	159,259	182,378	200,322	23,119	17,944	96,419	110,074	119,787	13,655	9,713	-6,122	29,342	23,220
경기도	의정부시	1,911	1,867	1,707	-1,921	-160	48,993	81,398	104,559	32,405	23,161	22,912	53,439	73,401	30,527	19,962	63,372	37,726	101,098
경기도	안양시	3,788	3,374	3,387	-1,175	13	122,215	130,560	157,688	8,345	27,128	74,637	83,475	110,315	8,838	26,840	-40,539	25,577	-14,962
경기도	부천시	4,549	4,524	4,733	3,122	209	142,555	161,841	208,872	19,286	47,031	70,916	86,003	111,109	15,087	25,106	-47,741	53,595	5,854
경기도	광명시	1,402	1,358	1,259	-1,053	-99	73,696	79,840	87,459	6,144	7,619	44,639	48,589	52,152	3,950	3,563	-26,536	-23,209	-49,745
경기도	평택시	2,411	2,554	2,970	1,984	416	73,520	95,074	112,495	21,554	17,421	26,542	45,522	60,033	18,980	14,511	15,456	17,041	32,497
경기도	동두천시	570	498	434	-4,084	-64	15,385	19,706	29,180	4,321	9,474	3,568	6,928	16,507	3,360	9,579	659	8,364	9,023
경기도	안산시	4,582	4,451	4,511	2,191	60	84,362	97,605	146,101	13,243	48,496	51,630	60,357	84,625	8,727	24,268	19,333	83,422	102,755
경기도	고양시	2,260	3,530	4,305	2,946	775	122,631	192,000	224,635	69,369	32,635	81,923	145,196	174,010	63,273	28,814	175,540	84,684	260,224
경기도	과천시	584	541	533	-346	-8	15,694	16,003	12,473	309	-3,530	12,814	12,994	9,289	180	-3,705	-3,231	-12,267	-15,498
경기도	구리시	887	1,003	1,022	-283	19	23,422	34,240	44,481	10,818	10,241	9,529	21,014	31,501	11,485	10,487	17,984	17,576	35,560
경기도	남양주시	1,286	1,735	1,871	1,010	136	50,341	94,536	127,056	44,195	32,520	16,279	53,541	85,412	37,262	31,871	105,701	81,795	187,496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경기도	오산시	725	725	700	-332	-25	14,182	28,557	35,177	14,375	6,620	4,636	19,341	26,237	14,705	6,896	31,016	16,406	47,422
경기도	시흥시	1,057	2,047	2,880	975	833	28,171	78,871	99,691	50,700	20,820	15,004	61,162	73,415	46,158	12,253	158,546	52,261	210,807
경기도	군포시	1,072	1,159	1,356	646	197	51,451	64,114	72,490	12,663	8,376	40,533	51,758	58,443	11,225	6,685	7,277	-5,119	2,158
경기도	의왕시	513	532	629	-1	97	22,777	27,900	37,933	5,123	10,033	11,617	16,875	26,452	5,258	9,577	5,343	20,405	25,748
경기도	하남시	533	692	889	-112	197	16,250	19,988	24,119	3,738	4,131	7,008	10,258	15,167	3,250	4,909	728	7,451	8,179
경기도	양주시	804	855	1,072	114	217	19,931	28,847	47,341	8,916	18,494	2,802	11,062	28,504	8,260	17,442	18,796	19,996	38,792
경기도	여주군	741	779	991	-1,049	212	22,421	29,235	32,257	6,814	3,022	1,680	7,573	10,422	5,893	2,849	4,202	-738	3,464
경기도	화성시	1,828	2,030	3,400	842	1,370	39,088	53,985	88,511	14,897	34,526	2,604	12,699	47,243	10,095	34,544	21,601	97,501	119,102
경기도	파주시	1,188	1,359	1,735	478	376	38,998	49,548	73,499	10,550	23,951	5,937	16,314	40,370	10,377	24,056	18,870	65,389	84,259
경기도	광주시	881	1,253	1,539	930	286	15,482	31,904	56,630	16,422	24,726	817	9,534	27,631	8,717	18,097	41,528	68,754	110,282
경기도	연천군	323	367	426	-814	59	13,941	15,119	15,493	1,178	374	1,544	2,269	2,942	725	673	-3,077	-2,565	-5,642
경기도	포천시	1,181	1,263	1,218	928	-45	28,787	37,514	47,337	8,727	9,823	3,434	7,919	16,546	4,485	8,627	12,765	-4,529	8,236
경기도	가평군	335	351	360	-255	9	13,342	16,996	17,916	3,654	920	1,078	2,352	2,423	1,274	71	851	-1,052	-201
경기도	양평군	606	640	838	-744	198	19,301	24,360	27,774	5,059	3,414	1,099	2,173	2,814	1,074	641	3,464	5,042	8,506
경기도	이천시	1,384	1,455	1,549	-978	94	32,410	47,619	54,470	15,209	6,851	6,998	19,466	25,302	12,468	5,836	18,289	1,562	19,851
경기도	용인시	2,433	2,862	3,729	1,812	867	49,572	97,379	195,877	47,807	98,498	16,212	54,221	149,895	38,009	95,674	130,750	279,974	410,724
경기도	안성시	1,050	1,089	1,200	-213	111	28,910	38,868	49,607	9,958	10,739	4,752	12,910	23,428	8,158	10,518	7,756	12,102	19,858
경기도	김포시	1,302	1,561	1,503	11	-58	24,736	40,893	56,754	16,157	15,861	5,961	20,794	35,068	14,833	14,274	48,867	38,983	87,850
강원도	춘천시	1,550	1,619	1,774	-211	155	52,688	66,776	72,936	14,088	6,160	22,577	35,777	42,394	13,200	6,617	10,060	-3,135	6,925
강원도	원주시	1,830	1,844	1,830	269	-14	55,074	75,056	87,833	19,982	12,777	24,406	43,574	55,613	19,168	12,039	22,176	7,915	30,091
강원도	강릉시	1,575	1,476	1,638	857	162	50,826	66,745	69,678	15,919	2,933	16,813	31,422	35,352	14,609	3,930	3,601	-8,758	-5,157

138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강원도	동해시	619	614	647	297	33	24,361	30,328	32,118	5,967	1,790	9,021	15,038	17,242	6,017	2,204	-61	-5,439	-5,500
강원도	태백시	317	330	289	-254	-41	16,823	18,186	20,311	1,363	2,125	4,158	5,355	8,449	1,197	3,094	-9,003	-5,064	-14,067
강원도	속초시	584	580	541	-67	-39	20,725	29,209	29,643	8,484	434	8,501	16,523	17,433	8,022	910	6,064	-4,418	1,646
강원도	삼척시	647	511	606	-100	95	22,930	26,258	27,814	3,328	1,556	4,982	8,058	10,323	3,076	2,265	-8,966	-8,147	-17,113
강원도	홍천군	611	628	729	209	101	17,728	21,906	23,880	4,178	1,974	1,641	4,275	5,535	2,634	1,260	-2,846	-3,407	-6,253
강원도	횡성군	419	357	571	-71	214	11,983	13,604	14,531	1,621	927	940	1,737	2,339	797	602	-2,929	-1,553	-4,482
강원도	영월군	428	355	504	-12	149	13,985	15,861	15,618	1,876	-243	1,653	2,824	2,790	1,171	-34	-5,232	-6,499	-11,731
강원도	평창군	367	405	511	34	106	12,190	15,382	17,463	3,192	2,081	690	2,515	3,961	1,825	1,446	-3,252	-2,528	-5,780
강원도	정선군	371	332	502	-75	170	16,183	16,853	16,879	670	26	2,652	3,695	4,521	1,043	826	-10,654	-5,490	-16,144
강원도	철원군	407	383	408	223	25	13,137	14,965	15,573	1,828	608	949	2,170	2,778	1,221	608	-2,477	-3,852	-6,329
강원도	화천군	160	395	232	208	-163	7,046	8,216	8,062	1,170	-154	1,108	1,928	2,057	820	129	-1,986	-1,215	-3,201
강원도	양구군	187	348	229	132	-119	6,321	7,176	7,122	855	-54	745	1,289	1,506	544	217	-1,512	-2,424	-3,936
강원도	인제군	216	341	290	67	-51	8,804	10,159	11,287	1,355	1,128	960	1,464	2,623	504	1,159	-2,617	-1,805	-4,422
강원도	고성군	274	394	220	156	-174	10,047	11,184	11,092	1,137	-92	671	1,509	1,526	838	17	-3,932	-439	-4,371
강원도	양양군	238	358	322	-3,247	-36	7,879	9,779	12,085	1,900	2,306	533	1,415	3,415	882	2,000	-1,268	-2,749	-4,017
충북	청주시	3,605	3,669	3,313	2,121	-356	108,220	144,389	168,246	36,169	23,857	60,573	95,420	118,171	34,847	22,751	31,355	25,479	56,834
충북	충주시	1,548	1,594	1,695	693	101	51,993	63,955	66,104	11,962	2,149	18,499	28,901	31,811	10,402	2,910	-2,043	-12,106	-14,149
충북	제천시	901	1,006	1,005	-42	-1	34,262	42,216	43,846	7,954	1,630	11,284	18,307	20,409	7,023	2,102	-2,229	-10,534	-12,763
충북	청원군	1,048	944	1,290	522	346	29,505	38,563	39,102	9,058	539	3,998	12,060	13,089	8,062	1,029	3,814	-6,149	-2,335
충북	보은군	422	366	715	-237	349	13,080	14,015	13,723	935	-292	592	896	1,075	304	179	-4,646	-5,108	-9,754
충북	옥천군	603	508	719	-86	211	16,981	19,067	19,699	2,086	632	1,496	2,979	4,117	1,483	1,138	-3,854	-4,017	-7,871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충북	영동군	594	531	798	64	267	17,507	18,940	19,211	1,433	271	1,267	1,809	2,579	542	770	-4,134	-6,068	-10,202
충북	진천군	467	578	696	-184	118	14,260	19,040	20,625	4,780	1,585	2,064	5,448	7,189	3,384	1,741	1,641	-456	1,185
충북	괴산군	762	736	901	27	165	21,558	23,636	24,341	2,078	705	3,157	4,127	5,328	970	1,201	-6,739	-7,082	-13,821
충북	음성군	709	863	843	515	-20	20,696	26,089	28,956	5,393	2,867	4,022	8,108	11,027	4,086	2,919	1,665	-3,357	-1,692
충북	단양군	348	475	401	-2,356	-74	11,132	12,527	12,384	1,395	-143	1,138	1,987	1,980	849	-7	-4,590	660	-3,930
충남	천안시	2,831	3,148	3,575	2,068	427	73,881	122,830	150,132	48,949	27,302	27,593	74,522	100,792	46,929	26,270	65,729	65,117	130,846
충남	공주시	1,080	987	1,177	59	190	33,436	39,798	41,409	6,362	1,611	5,588	9,975	11,775	4,387	1,800	-3,991	-2,620	-6,611
충남	보령시	928	828	915	-605	87	31,113	35,275	35,885	4,162	610	5,258	9,502	10,305	4,244	803	-6,208	-10,272	-16,480
충남	아산시	1,433	1,493	1,890	173	397	37,043	61,930	67,800	24,887	5,870	6,632	30,698	36,335	24,066	5,637	18,158	11,303	29,461
충남	서산시	1,320	1,295	1,291	-63	-4	35,893	43,796	47,398	7,903	3,602	8,219	14,618	18,571	6,399	3,953	1,826	251	2,077
충남	논산시	1,358	1,248	1,382	599	134	43,915	51,381	55,378	-20,160	3,997	6,481	15,091	20,416	8,536	5,325	1,968	-5,402	-3,434
충남	금산군	649	680	788	1	108	17,831	21,513	21,341	3,682	-172	1,075	3,338	3,355	2,263	17	-6,161	-5,437	-11,598
충남	연기군	679	603	706	-129	103	19,698	23,349	25,821	3,651	2,472	2,395	5,923	8,929	3,528	3,006	-1,419	2,206	787
충남	부여군	732	754	1,103	100	349	27,478	29,463	29,326	1,985	-137	1,384	2,553	3,520	1,169	967	-9,867	-8,577	-18,444
충남	서천군	654	589	743	192	154	22,730	24,066	23,916	1,336	-150	186	1,303	1,567	1,117	264	-9,661	-8,738	-18,399
충남	청양군	397	592	668	-258	76	12,358	13,405	13,119	1,047	-286	157	743	1,160	586	417	-4,118	-5,535	-9,653
충남	홍성군	850	790	973	-118	183	25,275	27,254	28,801	1,979	1,547	1,571	3,572	5,936	2,001	2,364	-6,599	-3,550	-10,149
충남	예산군	908	802	948	115	146	27,085	30,136	30,522	3,051	386	2,349	5,099	6,365	2,750	1,266	-8,625	-5,881	-14,506
충남	태안군	687	680	710	-366	30	17,389	21,872	22,512	4,483	640	627	3,536	4,157	2,909	621	-3,847	-8,632	-12,479
충남	당진군	1,046	1,101	1,138	-2,417	37	30,626	39,002	41,589	8,376	2,587	2,885	9,270	12,699	6,385	3,429	-2,190	-8,356	-10,546
전북	전주시	3,518	3,629	2,950	1,736	-679	112,131	157,014	171,616	44,883	14,602	58,462	104,084	118,737	45,622	14,653	21,351	-17,555	3,796

14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전북	군산시	1,893	1,799	1,801	-401	2	64,992	76,976	85,447	11,984	8,471	24,707	36,822	48,140	12,115	11,318	-8,991	-19,580	-28,571
전북	익산시	2,200	2,237	2,128	1,063	-109	77,089	94,801	101,031	17,712	6,230	30,685	48,719	56,684	18,034	7,965	-6,789	-20,682	-27,471
전북	정읍시	1,174	1,097	1,231	153	134	38,855	44,057	44,724	5,202	667	6,460	11,935	14,249	5,475	2,314	-1,452	-21,829	-23,281
전북	남원시	944	801	1,346	-281	545	27,686	30,556	31,627	2,870	1,071	4,654	7,015	9,045	2,361	2,030	-7,326	-6,730	-14,056
전북	김제시	1,082	879	1,164	164	285	34,221	37,013	36,705	2,792	-308	4,209	7,090	8,206	2,881	1,116	-13,096	-11,165	-24,261
전북	완주군	715	685	814	301	129	21,065	25,009	27,642	3,944	2,633	1,129	4,518	7,891	3,389	3,373	-4,076	-2,225	-6,301
전북	진안군	384	525	583	232	58	10,934	10,546	10,048	-388	-498	298	606	608	308	2	-8,564	-1,938	-10,502
전북	무주군	293	491	349	219	-142	9,122	10,027	9,682	905	-345	189	313	574	124	261	-2,719	-2,836	-5,555
전북	장수군	272	448	423	-22	-25	8,338	8,849	8,643	511	-206	133	205	66	72	-139	-1,037	-2,482	-3,519
전북	임실군	470	471	762	122	291	12,280	12,319	12,360	39	41	442	533	806	91	273	-6,448	-4,904	-11,352
전북	순창군	349	474	740	-224	266	11,659	12,134	11,649	475	-485	255	488	506	233	18	-4,395	-3,406	-7,801
전북	고창군	698	635	910	-59	275	23,287	25,531	23,641	2,244	-1,890	942	2,269	2,261	1,327	-8	-10,191	-7,598	-17,789
전북	부안군	694	596	760	-772	164	21,776	23,724	23,338	1,948	-386	1,030	2,273	3,289	1,243	1,016	-9,543	-11,783	-21,326
전남	목포시	1,368	1,290	1,245	253	-45	53,809	63,418	73,168	9,609	9,750	23,146	33,285	43,609	10,139	10,324	-5,750	-9,021	-14,771
전남	여수시	1,037	2,280	1,923	590	-357	42,322	87,994	92,979	45,672	4,985	21,344	42,222	48,641	20,878	6,419	-17,881	-24,691	-42,572
전남	순천시	1,690	1,652	1,735	530	83	61,301	76,346	84,810	15,045	8,464	25,750	39,688	49,358	13,938	9,670	7,749	-6,039	1,710
전남	나주시	1,122	946	1,024	-115	78	32,249	36,551	35,694	4,302	-857	2,157	6,669	7,327	4,512	658	-8,261	-8,511	-16,772
전남	광양시	1,061	1,136	1,430	497	294	31,589	40,220	46,246	8,631	6,026	14,324	22,004	28,570	7,680	6,566	-886	-4,125	-5,011
전남	담양군	639	527	721	68	194	16,279	17,045	16,664	766	-381	570	688	841	118	153	-6,090	-4,247	-10,337
전남	곡성군	459	557	742	238	185	12,373	13,303	12,809	930	-494	152	759	871	607	112	-144	-8,358	-8,502
전남	구례군	319	354	473	-686	119	9,938	11,175	10,730	1,237	-445	136	672	715	536	43	-2,507	-3,805	-6,312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전남	고흥군	1,040	952	1,001	294	49	32,320	33,879	33,040	1,559	-839	380	1,444	1,599	1,064	155	-9,152	-13,167	-22,319
전남	보성군	658	538	750	-77	212	20,486	21,492	20,850	1,006	-642	473	1,257	1,721	784	464	-7,800	-6,576	-14,376
전남	화순군	615	606	879	-9	273	19,210	27,549	27,294	8,339	-255	2,425	10,024	10,373	7,599	349	5,848	-5,656	192
전남	장흥군	615	497	568	27	71	16,725	17,758	17,597	1,033	-161	242	608	1,244	366	636	-6,240	-7,162	-13,402
전남	강진군	470	473	630	-488	157	15,644	16,591	16,027	947	-564	308	774	912	466	138	-5,301	-5,337	-10,638
전남	해남군	961	819	1,030	251	211	28,983	30,545	30,604	1,562	59	1,205	2,696	3,251	1,491	555	-5,467	-10,480	-15,947
전남	영암군	568	638	914	-120	276	17,594	21,472	23,196	3,878	1,724	472	3,912	5,911	3,440	1,999	1,947	-3,189	-1,242
전남	무안군	758	678	741	220	63	20,181	20,783	20,619	602	-164	555	1,385	1,836	830	451	-4,945	-8,215	-13,160
전남	함평군	458	410	535	-233	125	15,204	15,384	15,047	180	-337	164	172	462	8	290	-5,668	-5,075	-10,743
전남	영광군	643	709	862	178	153	20,483	22,570	22,595	2,087	25	1,968	3,393	4,125	1,425	732	-3,837	-10,469	-14,306
전남	장성군	531	438	677	-204	239	16,121	17,433	17,145	1,312	-288	1,553	2,314	2,530	761	216	-3,387	-5,967	-9,354
전남	완도군	642	596	658	174	62	20,172	21,674	21,512	1,502	-162	592	1,084	1,257	492	173	-6,646	-7,098	-13,744
전남	진도군	422	597	372	-124	-225	14,074	14,558	14,596	484	38	263	421	514	158	93	-4,520	-6,134	-10,654
전남	신안군	721	590	844	-3,020	254	19,243	19,233	18,117	-10	-1,116	38	0	0	0	0	-8,628	-7,639	-16,267
경북	포항시	3,610	3,501	3,531	1,325	30	113,783	139,157	150,564	25,374	11,407	45,284	70,221	79,599	24,937	9,378	-13,160	-17,210	-30,370
경북	경주시	2,176	1,987	2,073	834	86	66,945	81,847	86,479	14,902	4,632	17,531	29,870	31,790	12,339	1,920	-2,748	-17,253	-20,001
경북	김천시	1,153	1,178	1,507	-231	329	38,163	44,620	47,011	6,457	2,391	7,286	12,709	15,706	5,423	2,997	-4,128	-762	-4,890
경북	안동시	1,409	1,362	1,581	-1,296	219	48,150	54,979	57,903	6,829	2,924	11,885	17,208	21,816	5,323	4,608	-10,449	-11,891	-22,340
경북	구미시	2,658	3,123	3,564	2,248	441	64,123	87,280	104,234	23,157	16,954	33,269	54,482	68,270	21,213	13,788	9,138	12,677	21,815
경북	영주시	875	885	1,131	-171	246	33,239	37,419	39,319	4,180	1,900	6,351	9,853	12,788	3,502	2,935	-9,216	-11,116	-20,332
경북	영천시	1,056	960	1,208	-268	248	32,441	39,154	39,026	6,713	-128	5,546	11,874	12,002	6,328	128	-4,294	-10,402	-14,696

142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경북	상주시	1,228	1,099	1,484	424	385	37,642	40,778	41,021	3,136	243	4,051	6,284	7,548	2,233	1,264	-8,016	-2,975	-10,991
경북	문경시	675	649	800	-1,673	151	24,738	26,992	27,095	2,254	103	2,293	4,041	4,606	1,748	565	-5,469	-10,107	-15,576
경북	경산시	2,322	1,554	1,663	1,206	109	37,956	58,263	69,547	20,307	11,284	13,295	33,035	43,590	19,740	10,555	38,345	-454	37,891
경북	군위군	348	516	486	-326	-30	10,253	10,930	10,858	677	-72	129	113	160	-16	47	-43	-3,492	-3,535
경북	의성군	842	768	1,148	421	380	26,170	27,242	26,327	1,072	-915	841	1,048	1,459	207	411	-7,427	-7,626	-15,053
경북	청송군	347	435	493	197	58	11,315	12,233	12,027	918	-206	821	1,299	1,331	478	32	-3,367	-4,059	-7,426
경북	영양군	238	437	346	-29	-91	7,556	8,116	8,111	560	-5	40	26	126	-14	100	-2,733	-2,620	-5,353
경북	영덕군	466	351	429	-218	78	16,799	17,848	18,135	1,049	287	408	601	858	193	257	-5,453	-3,907	-9,360
경북	청도군	569	447	556	36	109	16,259	17,859	18,473	1,600	614	471	813	983	342	170	-2,247	-3,868	-6,115
경북	고령군	411	488	542	-86	54	9,961	12,057	12,221	2,096	164	286	1,642	1,964	1,356	322	1,084	-2,195	-1,111
경북	성주군	574	489	634	-216	145	15,130	16,782	16,003	1,652	-779	393	475	891	82	416	-2,269	-3,170	-5,439
경북	칠곡군	705	712	921	73	209	21,020	30,284	32,884	9,264	2,600	6,332	14,605	15,887	8,273	1,282	12,464	-1,585	10,879
경북	예천군	639	577	846	174	269	19,887	20,809	20,839	922	30	914	1,540	1,823	626	283	-6,605	-7,866	-14,471
경북	봉화군	403	574	552	30	-22	13,925	15,363	14,868	1,438	-495	735	1,344	1,402	609	58	-6,370	-3,898	-10,268
경북	울진군	544	551	620	492	69	19,557	21,254	21,571	1,697	317	1,942	3,147	3,329	1,205	182	-4,955	-14,035	-18,990
경북	울릉군	59	148	109	148	-39	3,313	3,466	3,307	153	-159	127	107	110	-20	3	-1,087	-4,721	-5,808
경남	울산시	0	7,282	7,241	3,232	-41	0	239,031	276,578	0	37,547	0	148,179	177,182	0	29,003	8,692	11,900	20,592
경남	창원시	4,050	4,167	4,037	827	-130	97,358	117,014	121,496	19,656	4,482	68,910	87,434	88,602	18,524	1,168	1,244	-33,225	-31,981
경남	마산시	3,340	2,813	2,363	457	-450	80,458	97,807	111,910	17,349	14,103	29,111	46,342	60,923	17,231	14,581	-12,481	-6,446	-18,927
경남	진주시	2,356	2,270	2,393	1,518	123	69,199	83,734	90,940	14,535	7,206	22,625	35,530	42,432	12,905	6,902	-4,387	-10,035	-14,422
경남	진해시	752	719	937	-235	218	27,693	33,588	45,537	5,895	11,949	9,239	13,687	24,542	4,448	10,855	-2,088	11,695	9,607

시도	시군구	일자리수 95	일자리수 00	일자리수 05	일자리증감 95~00	일자리증감 00~05	주택95	주택00	주택05	주택증감 95~00	주택증감 00~05	아파트 95	아파트 00	아파트 05	아파트증감 95~00	아파트증감 00~05	순이동 96~00	순이동 01~05	순이동 96~05
경남	통영시	954	932	889	75	-43	32,157	36,081	41,552	3,924	5,471	10,104	13,273	18,969	3,169	5,696	-8,714	7,359	-1,355
경남	사천시	857	901	949	-1,214	48	30,551	34,938	38,925	4,387	3,987	7,200	10,682	14,501	3,482	3,819	-6,618	-9,588	-16,206
경남	김해시	2,115	2,632	2,840	1,654	208	53,535	85,658	127,431	32,123	41,773	20,807	47,207	87,197	26,400	39,990	62,374	75,654	138,028
경남	밀양시	978	934	992	-242	58	35,047	39,630	40,195	4,583	565	6,307	9,474	9,946	3,167	472	-7,053	-827	-7,880
경남	거제시	1,176	1,372	1,577	-313	205	36,917	49,080	60,455	12,163	11,375	14,717	25,050	36,122	10,333	11,072	9,774	7,490	17,264
경남	양산시	1,685	1,634	1,692	1,235	58	36,844	50,838	66,979	13,994	16,141	23,833	36,597	50,437	12,764	13,840	21,057	13,762	34,819
경남	의령군	399	512	705	-210	193	12,311	13,170	13,039	859	-131	267	470	377	203	-93	-3,566	-2,259	-5,825
경남	함안군	722	555	725	-77	170	18,394	20,481	22,379	2,087	1,898	2,067	3,164	5,481	1,097	2,317	-3,438	-3,242	-6,680
경남	창녕군	632	650	867	-2	217	22,419	24,561	24,809	2,142	248	1,459	2,140	2,540	681	400	-5,922	-6,590	-12,512
경남	고성군	652	591	838	-107	247	18,535	20,389	20,459	1,854	70	1,396	2,233	2,638	837	405	-5,868	-6,302	-12,170
경남	남해군	698	510	548	-104	38	19,469	20,858	20,896	1,389	38	476	937	1,199	461	262	-7,061	-5,327	-12,388
경남	하동군	614	475	786	32	311	17,506	18,953	19,542	1,447	589	651	892	1,506	241	614	-5,821	-4,006	-9,827
경남	산청군	443	664	645	171	-19	13,233	14,614	14,652	1,381	38	285	619	801	334	182	-4,508	-3,702	-8,210
경남	함양군	493	457	704	-177	247	14,722	16,533	16,469	1,811	-64	731	1,496	1,522	765	26	-3,956	-2,869	-6,825
경남	거창군	634	564	926	-115	362	20,112	22,139	23,287	2,027	1,148	1,897	3,376	4,437	1,479	1,061	-3,807	1,704	-2,103
경남	합천군	679	585	982	-1,480	397	20,886	22,248	22,259	1,362	11	709	914	1,247	205	333	-7,351	-2,707	-10,058
제주도	제주시	2,065	1,848	2,043	1,065	195	50,295	61,093	81,218	10,798	20,125	13,107	18,440	31,053	5,333	12,613	7,905	2,569	10,474
제주도	서귀포시	783	707	787	-124	80	17,205	20,410	22,943	3,205	2,533	2,551	3,935	5,413	1,384	1,478	-3,543	-3,844	-7,387
제주도	북제주군	831	856	783	-9	-73	24,067	26,846	28,923	2,779	2,077	140	553	157	413	-396	-1,188	224	-964
제주도	남제주군	865	848	712	848	-136	18,710	19,220	20,322	510	1,102	192	435	599	243	164	-4,508	-5,355	-9,863